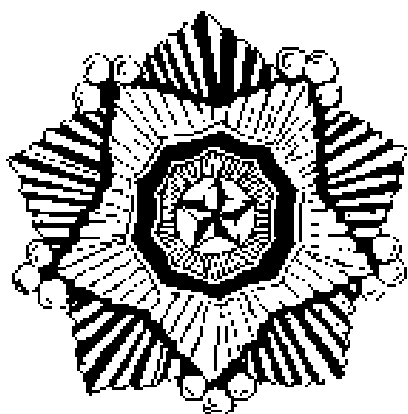




2

주체 92 (200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 92(2003)년 제2호

(루계 제 664 호)

◇◇◇◇◇◇◇◇◇◇

차 례

◇◇◇◇◇◇◇◇◇◇

2 월의 노래	4
전설적영웅 천출위인의 형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5
눈보라	7
류다른 바람소리(외 2 편)	8
물소리	8
천하제일봉	8
가사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을 쓰기까지	9
수령님추억속에(1).....	11
김정일 장군님의 백두산	11
위인과 전설	12
수령님추억속에(2).....	14
백두밀영고향집	14
세월의 언덕 넘어	15
시간, 계절	24
병사의 인사	24

평범한 일과	25
수령님 추억속에(3).....	29
소백수가에서.....	30
고향집설경	31
시대의 명작과 작가의 기교 (1).....	32
그가 남긴 생의 여운.....	38
음악에 대한 이야기	51
명언해설	61
추구한것과 발견한것.....	62
조국	67
꽃이 묻네	67
붓.....	67
축포	67
푸른 꿈	68
해방전 기행문에 반영된 시가문학에 대하여	78

송시

2월의 노래

한원희

찬란한 봄빛을 안고
밝아 온 2월의 아침
간절한 축원을 안고
하늘땅에 넘쳐 나는 2월의 노래

아, 2월의 노래는
백두의 노래
저멀리 고향집 맑은 정기를 안고
삼천리에 울려 가는 노래
오색 채운이 평롱한 정일봉에 깃든
하많은 전설을 안고
못 잊을 추억을 안고
부르고 부르다가 숨이 진대도
기쁨속에 행복속에
만민이 못다 부를 노래

그 노래속에 들려 오누나
백두의 광명성이 탄생했다고
온 세상에 알리던
천지의 봄우뢰소리
한 없는 기쁨을 못 참아
끝없이 파도치던 밀림의 설레임소리

이 노래 부르면
하늘가득 떠올라라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
언제나 그 언제나
자신의 생신날도 쉬지 않으시고
병사들과 인민을 찾으시는분

이 노래 부르면
눈시울 뜨거이 우러러 지더라
나에게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백시간 천시간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백밤 천밤을 지새워 가시는 나날에
우리 조국을 지켜 내시고
우리 인민을 구원하신분

어이 잊으리 잊을수 있으리
오성산의 벼랑길

안개 흐르던 판문점
풍랑 사나운 서해바다길
눈보라 만리 선군령도의 길에서
화창한 봄빛을 안고 오신

김정일 동지!

위대한 선군정치로
영원한 사랑의 정치로
동지를 얻고 천하를 얻으시고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수령과 인민의 혼연일체를 안아 오신 그 위업

20세기도 승리로 마감짓고
21세기 강성대국의 길도 열어 온
혼연일체의 불, 불의 대오
천지를 진감하는 천만의 발걸음소리
2월의 노래우에 실려 오누나

사상도 감정도 정서도 하나로 타끓는
혼연일체의 교향곡
년대와 년대를 이어
사랑과 의리가 메아리치는 노래
언제나 이 노래와 함께 승리를 떨치며
우리 새 세기의 봄언덕에 올라 섰거나

한없이 신비롭고 비범한 기적을 낳는
이 노래를 떠나
그 사랑 그 꿈을 떠나
나는 못 살아
인민은 못 살아
부르고 부르는
2월의 노래
감사의 노래
조국과 더불어 민족과 더불어
온 세상이 부르는 노래

아, **김정일** 동지!

이 세상에 위인이 탄생하시어
위인의 노래도 함께 태어나누나!

전설적영웅 천출위인의 형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가장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맞는 우리 작가들의 가슴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있는 끝 없는 긍지와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이 차넘치고있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받으며 성스러운 사회주의위업을 확신성 있게 전진시켜 나가고 있으며 신심에 넘쳐 창작의 붓을 달리고있는 그런 작가들과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우리 작가들과 인민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존엄과 영예는 그 어느것이나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이다.

위대한 장군님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같으신 전설적영웅이시며 백두산의 장군이다.

백두산의 장군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끄시여 우리 혁명이 개척되고 승승장구해 온것처럼 백두산의 장군이신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여 우리 혁명은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한다.

지난 20세기 마지막년대에 우리 혁명앞에 가로놓인 중중첩첩의 시련과 난관은 력사에 류례없이 첨예하고 엄혹하였으나 우리 혁명은 추호의 주저도 없이 용기백배하여 승승장구하였으며 오늘도 기세충천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참으로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며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이며 확정적이다.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는 선군령도로 전설 같은 기적을 창조하시며 민족의 운명, 인류의 자주위업을 개척하고 주도해 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을 다양한 형상으로 시대와 력사앞에 힘있게 부각하여야 할 성스러운 임무가 나서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가 지니고 있는 령도력과 품모, 그가 발휘한 충실성과 헌신성, 그가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의 지도자로서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으며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들은 문학형상을 통하여 전설적영웅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모습을 예술적화폭에 승엄히 아로새겨야 한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전설화하여 드높이 칭송하는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들과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는 백두산3대장군에 대한 전설적이야기, 특히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하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수많은 창조되어 천출위인의 전설군을 이루고 있다.

우리 문학은 이미 백두산3대장군의 전설을 수집정리하여 여러권의 전설집을 냄으로써 그것을 수령형상문학의 주요구성부문으로 정립하여 주체문학의 혁명적본색을 더욱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대한 충실성교양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과 세계진보적인민들속에서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전설을 수집정리하는 사업을 더욱 폭 넓고 심도 있게 진행하여 선군혁명문학의 귀중한 재보로 되게 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또한 전설적위인으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 깊은 탐구와 사색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미학실천적인 문제는 백두산의 기상과 기질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백두산의 기상과 기질은 맑은 천지를 안고 하늘을 찌를듯이 솟아있는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처럼 인민에 대한 순결한 사랑을 지니고 인류의 사색이 미치지 못한 가장 숭고한 위업을 역세게 실현해 나가시는 영웅적인 기상과 기질이다. 그것은 밀림의 바다를 거느리고 온 나라를 굽어 살피는 백두산의 모습처럼 천군만마를 통솔하고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키는 장군의 기상과 기질이며 천지를 진동시키는 정일봉의 우뢰소리처럼 열정과 기운이 넘쳐나고 백두산의 웅장한 자태처럼 통이 크고 어떤 사나운 폭풍과 눈보라에도 끄떡 없는 백두령봉처럼 담차고 굳센 필승의 기상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신통히도 백두산을 뚫으셨다고 하시였다.

우리 문학은 이미 가사 《정일봉의 우뢰소리》,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을 비롯하여 백두산의 기상과 기질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전설적으로 형상한 많은 작품들을 내놓았다.

백두산의 기상과 기질을 지니신 천출위인의 전설적인 모습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 창작실천적인 문제의 하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기상과 기질을 어떻게 지니게 되시였는가 하는 그 심원한 세계를 문학형상으로 파고들어 보여

주는것이다.

백두산은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이며 장군님의 담을 키워준 요람이다. 장군님께서도 항일대전이 진행되던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어린 시절을 보내시였으며 장군님의 어린 시절은 어느 위인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간고하고 엄혹하고 시련에 찬 시절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시어 보신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천고의 밀림과 불바다를 넘나드시며 강도 일제와 싸우시는 숭고한 모습이었고 들으신것은 항일의 충포성이었고 항일투사들의 영웅적인 투쟁이야기였다.

백두산에서 흘러간 어린 시절은 위대한 장군님의 성격과 기질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문학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성장하시였기때문에 백두산의 기상과 기질을 지니게 되시였으며 그것은 장군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내신 백두산에 뿌리를 두고있다는것을 전설적인 화폭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또한 전설적위인의 형상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기상과 기질을 지니게되신것은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준엄한 투쟁속에서 백두산의 장군들이신 아버지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풍격을 그대로 이어받으셨기때문이라는 것을 깊이있게 그려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해방된 조국땅에서 새 사회를 일떠세우시기 위하여 지난날 백두산에서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시던 그 숭고한 혁명정신과 그 혁명적기상으로 난관과 시련을 헤치시며 혁명을 이끄시였다.

백두의 나장군이신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활동을 보좌해 드리시면서 정력적인 활동으로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을 위한 벽찬 투쟁으로 고무하시였다. 어머님께서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경애하는 수령님을 보위하고 높이 받들어 모시며 아버지수령님과 같으신 백두산의 장군이 되시도록 큰 뜻을 안겨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백두산의 장군들이신 경애하는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혁명정신과 영웅적기상을 언제나 귀감으로 삼으시였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가려했던 조국해방전쟁시기를 대부분 최고사령부에서 보내시면서 불구름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지니고 계신 장군의 배심과 신념을 심장깊이 새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시기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드리시면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 혁명적전개력, 비상한 정열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시였다.

우리는 전설적위인으로서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형상함에 있어서 어느 시기 어떠한 사

변과 생활을 반영하든지간에 장군님께서 지니고 계시는 백두산의 기상과 기질은 아버지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의 영웅적인 기상과 기질에 원천을 두고있다는것을 형상의 근저에 굽이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형상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백두산의 기상과 기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신다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우리 혁명을 승리로 령도하시는 과정에 모든 분야, 모든 부문에서 온갖 낱은것을 다 끌어 버리고 새것을 창조하시는 가장 높은 혁명적열정을 지니시고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혁명을 일으키시고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신다. 또한 사업에서 반드시 끝을 보고야 마시는 지칠줄 모르는 열정을 지니시고 낮과 밤의 한계와 로동일과 휴식일이 따로 없이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다. 우리는 문학형상을 통하여 가장 뜨거운 혁명적열정을 지니시고 전설적인 기적을 이룩해나가는 위대한 장군님의 형상을 더 훌륭히 재현하여야 한다.

전설적위인으로서의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품모를 형상함에 있어서 장군님께서 지니신 무비의 담력을 옹게 반영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백두의 담력은 아무리 준엄하고 위급한 사태에서도 끄떡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담력,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맞받아 뚫고 나가며 적들의 그 어떤 책동도 맞받아 쳐물리치시는 무한대한 담력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과 함께 온 세상 인류는 지난 세기 말과 새 세기에 격동하는 정치적과동과 첨예한 정세에 대처하여 무비의 담력과 기상, 배짱을 지니시고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을 승리로 주도하고 이끌어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천출명장, 전설적위인으로 높이 우러르고 있으며 수많은 신비한 전설을 엮어 나가고 있다.

우리는 오늘날 무수한 전설을 낳고 있는 선군령장의 위대성을 다양한 형식과 형상수법으로 형상하여야 한다. 전설적인 선군령장이시며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전설화하여 형상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가장 성스러운 임무이며 선군혁명문학이 누리는 또 하나의특전이고 영예이다.

이 성스러운 시대적과제는 우리 작가들의 피라는 탐구와 사색을 요구하며 미학적으로 새롭게 해결하고 탐색하여야 할 여러가지 실천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모든 작가들은 우리 문학이 선군령장의 위대성을 전설화하여 형상하는데서 이미 이룩한 창작성과들을 부단히 일반화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제기되는 창작실천적인 문제를 가지

고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토론도 하고 경험도 서로 나누며 새로운 창작세계를 탐구개척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작가들은 위대성형상주제의 작품을 전설화하여 형상하는 창작과제를 의도적으로 내세우고 여기에서 자신의 창작재능과 실력이 남김없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전설화하여 체득시키도록 할데 대한 시대의 요구를 문학형상으로 관철하는 여기에 선군혁명문학을 창조하는 우리 작가들의 책임적인 시대적과제가 있고 본분이 있다. 탐구하고 또 탐구하며 사색하고 또 사색함으로써 시대가 부과하는 성스러운 임무를 원만히 수행해나가자.

눈보라

전승일

백설의 태고성산
눈보라 폭풍치는 계절에
우렁찬 첫 고고성을 울리신분이여서
장군님이시여 당신은
그리도 눈보라와 인연 깊으십니까

고운 땅만을 골라
내짚어야 할 첫 걸음마도
당신은 빙설바다우에 찍으셨습니다
동요시절 작은 손으로 움켜 쥐신것도
천년 녹지 않는 백두산의 눈이였습니다

너무도 때 일찍
눈보라와 정드신분
너무도 철 이르게
눈보라와 친숙해 지신분
아 우리 장군님

백두의 눈보라를
꽃바람처럼 호흡하시며
백두산의 아들로 성장하신분이여서
당신께서만은 오늘까지
이 세월의 찬 눈보라를 다 맞아 오십니까

우리의 운명을 지켜 주신
철령의 굽이굽이도
눈보라 우는 밤에 오르시였습니다
결심 품고 떠나신 자강땅 천리길도
눈보라 날뛰는 사나운 길이였습니다

내 뺨스를 타고
웃으며 날아 오른 칠보산탐승길도

숨 막히는 눈보라를 헤치며
당신께서 한겹 솜옷 입고
열어 주신 길이 아니였습니다

아 눈보라 눈보라는
왜 장군님께서만이 맞으셔야 합니까
우리 천만인민은 따뜻한 온돌방에 앉혀 주시고
왜 장군님께서만이
눈보라 눈보라와
한평생 길동무처럼 친숙해 져야 합니까

이 강토우에
차디찬 눈보라 없는 봄의 세월을 주시려
태양의 열도를 만리공간에 뿌리시며
력사의 폭풍을 맞받아
붉은기 높이 세기를 열어 가시는 우리 장군님

눈보라를 맞아야 혁명할 멋이 있다고
눈보라바다우에
어제도 오늘도 계시는
거룩하신 당신을 우리를 때면
불벌 쏟아 지는 삼복더위에도
우리의 마음속엔 눈보라가 지동치나니

한평생 맞으시는 장군님의 눈보라
그 가슴 치는 눈보라앞에
따뜻한 봄바람이 되고
뜨거운 열이 되고싶은
우리들의 심장은 사무치게 웨칩니다
눈보라 눈보라야
이제는 인민의 눈보라가 되여다오

류다른 바람소리 외 2편

윤경남

싸아-
밀림이 설레는 소리
빼곡이 들어 선 전나무, 이깎나무숲엔
하얗게 훑날리는 눈가루

하늘아래 첫집
백두산밀영고향집뜨락에
소복이 내려 앉네
하얀 눈송이

때없이 불어오는 찬바람
높이 솟은 정일봉중턱에 부딪쳐
밀림속에 고요히 잤아 드는
류다른 바람소리

아, 동트던 2월의 그 아침
새벽에도 불었지

귀틀집창가를 스치며
너는 속삭였지

조선의 대통운 뒸다고
남먼저 전하며
저멀리 날리던
백두밀영의 그 바람소리

오, 우리 태양 높이 솟은
력사의 지점에서
세월을 넘어 전해오는 그 환희
세월을 넘어 전해가는 그 감격

못 잊을 추억을 싣고
오늘도 불어 오네
싸아-
백두산밀영의 바람소리여

물소리

봄빛도 유정한 백두산밀영고향집엔
정갈한 소백수 물소리 물소리
2월의 봄이 오니 강산은 설레고
흐르는 물결우엔 기쁨을 실었구나

천지의 젓줄기로 흐르는 물소리
조선의 행운을 네 싣고 가느냐
아득한 밀림우엔 찬 눈이 내려도
얼지 않는 네 물소리 추억을 실었구나

들으면 들을수록 유정한 물소리
인민의 봄을 싣고 사시절 흐르누나
태양이 높이 솟은 혁명의 성지에
간절한 마음 싣고 끝없이 흐르누나

아, 물소리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물소리
축원의 한마음 싣고 흘러 흐르는
백두의 영원한 노래여

천하제일봉

천만산악 거느리고 밀림의 바다우에
우뚝 솟아 천하를 굽어 보는 정일봉
찬연한 노을속에 그 자태 력연하고
승엄한 네 모습은 이 땅의 역센 기상

백두산과 나란히 삼천리를 굽어 보며
천지조화 천변만화 순간에 펼치고
내 심장의 끓는 피를 더해주는 네 모습
이 땅의 마음들이 달려오는 메부리

끝 없는 환희에 이 마음 설레고
모든 났은 승엄한 네 모습에 어리는가

력사의 새 아침 미래를 안아 온
2월의 기쁨이 네 산정에 넘쳤구나

가도가도 끝 없는 세계로 부르는
승엄한 메부리 내 심장의 났이여
정일봉이 없는 조선은 세상에 없으랴
정일봉이 없는 이 땅은 조선이 아니여라

아 정일봉은
조선의 역센 기상
조선의 영광
천하의 제일봉이여라

가사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을 쓰기까지

정성환

이 땅에 붓을 든 사람들 다름없이 저에게도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며 위대한 스승이신 우리 장군님을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 잠들 때 하던 생각 꿈속에 이어지고 날이 밝으면 또다시 그 한 생각으로 모대기는 하루하루 더욱더 가슴속에 커지는 소원이었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내 운명파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가사가 사람의 입에 오르게 하자면 생활적으로 씌여져야 한다. 가사는 몸가짜이에서 목격하고 체험할수 있는 실지 생활이 비껴있고 친숙한 생활감이 담겨질 때 비로소 사람의 사랑을 받을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자구구 외우며 살았지만 우리 장군님의 위업이 너무도 커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습니다.

고등기계공업학교를 졸업한후에 밤낮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돌아 가는 기중기운전공이었던 저의 꿈을 헤아려 장군님께서는 김형직사범대학 작가반에서 공부시켜 작가로 내세워 주시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저의 건강을 녀려하시여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심장전문병원에서 치료를 잘해 주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였으며 조선로동당원의 고귀한 정치적생명까지 안겨 주신 하늘같은 그 은덕은 제가 한 일보다 앞으로 일을 더 잘하라는 뜨거운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났지만 장군님에 대한 가사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생각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들이 다 한 소리를 반복하는 것으로밖에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의 온넋속에, 심장속에, 저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왜 그처럼 생각이 떠오르지 않던지...

저는 백두산밀림도 걸어 보았고 로동계급속에도 들어가보았으며 병사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안고 사는 하나의 소원도 저와 다름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장군님의 로작들과 덕성실기 등 많은 책들을 다시 읽었고 필요한 문헌영화들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날 여러 나라들에서 불리워진 자기 지도자들에 대한 칭송의 가사들도 다시 보았습니다.

많은 노래들은 제나름의 좋은 점은 있었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수령을 주인공으로 놓고 구체적인 형상을 하지 못하였거나 그 일면만을 노래한 것이었습니다. 그 노래들에도 저에게 충동을 주는 문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파연 천출명장이신 우리 장군님을 어떻게 형상할 것인가.

제가 온 한해동안 이 문제를 안고 모대기던 주체85(1996)년 11월 24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판문점을 시찰하시였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의 총구가 탄알을 물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판문점에 장군님께서 나가시였다는 소식이 저에게는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기록영화화면에서 판문점을 시찰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뵈옵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은 터지는 만세소리를 썬어 삼키며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손을 높이 흔들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저의 가슴은 말할수 없이 뜨거운 걱정과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장군님께서서는 질은 안개를 물고 판문점을 시찰하시였기때문에 적들은 전혀 눈치도 채지 못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 물고 가신 질은 안개가 적들의 눈을 멀게 했던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안개가 신출귀몰하는 령장의 지략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소나기를 쏟아 부을듯 어둡던 어사벌의 하늘이 장군님께서 도착하시자 삼시에 구멍이 뚫려 눈부신 해빛을 쏟고 전승절 평양상공에 그이의 승리를 축하하는듯 광장 맞은켠에 쌍무지개가 비껴나 하는 등의 건설 같은 사실은 모두가 제가 직접 체험한것입니다.

정말 우리 장군님은 천기를 타고 나신 하늘이 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의 안녕을 녀려하여 더는 그처럼 위험한 최전방에 나가시지 말기를 바라는 일군들에게 나는 빨찌산의 아들이라고, 백두전장에서 태어나서 항일혁명의 총포성을 들으며 자랐고 부모님들을 따라 해방전의 혈전속에서 혁명적신념을 굳히였으며 조국해방전쟁의 포연탄우속에서 지략과 담력을 키웠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달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한 저의 마음속에는 하루종일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이라는 말이 떠나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이시다!

탄생하신 때부터 백두의 천고밀림에서 빨찌산 생활에 익숙하신분.

왜 나는 지금껏 우리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못하였던가.

저의 심장은 끊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빨찌산의 아들》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말씀은 그 이름만 들어도 삼도왜적이 벌벌 떨었다는 백두산의 호랑이 김대장과 랑손에 든 짜창으로 원수들을 삼대 베듯 했다는 백두산녀장군의 품에서 성장하신 자신의 근본을 밝히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국주의원수들이 우리 사회주의공화국을 없애 보려고 압력을 가하고 봉쇄를 들이댔지만 장군님께서서는 빨찌산전법으로 고난을 맞받아 나가 이기시였습니다. 나라가 고난에 처했던 시기 우리 인민이 당하는 아픔과 슬픔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험난한 산밭과 거세찬 파도를 넘어 죽음을 각오

한 선군혁명의 길을 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하루 하루는 참으로 총포성이 울부짖는 가렬한 전쟁의 백날, 천날과 맞먹는 준엄한 나날이었습니다. 이러한 나날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때도 아닌 이 시기에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는 장군님의 말씀은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그이의 이 말씀이 나의 가슴을 왜 그리도 강하게 찔렀는지 저는 그 말씀이 순간에 정들었고 그날을 그려 보며 며칠밤을 뜬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고난속에서 행복속으로! 이때처럼 제가 희망에 넘치고 힘이 솟은적은 없었습니다.

고난의 눈보라속에서 이 땅을 이 세상에 당할 자 없는 강성대국으로 꽃 피우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녕 위대한 령장이신 백두산빨찌산의 아들만이 내릴수 있는 결심이며 천변만화의 지략을 펼치시는 그이의 전범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리라고 믿고 있던 가증스러운 원수들은 흰기를 들었고 우리를 주시하던 세계는 감탄과 환성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백두산의 붉은기를 더 높이 드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장군님은 자신의 근본으로 인류사에 류례 없는 만고의 대풍량을 헤쳐 오신 전설적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 우리 민족의 어버이이시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저의 머리속에는 세계적인 명장들의 전설과 신화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전설과 신화들은 억눌린 사람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구원해 주고 지켜 줄 출중한 위인을 목마르게 기다려 지어 낸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선군의 길 자욱자욱 참으로 전설같은 위업을 실지로 쌓으시는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장군님 같은신분은 세상에 단 한분밖에 안계십니다.

이 모든 사실을 돌이켜 보는 저의 가슴속에는 백두산 빨찌산일가의 혈통을 이으신 장군님을 형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울울창창한 백두의 밀림에서 아름다리 진대나무를 타고 넘으며 힘겹게 행군하던 생각이 났습니다.

한낮에도 어둑침침한 그 푸르른 밀림.

하늘아래 첫산 흰 눈 덮인 천고밀림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해나가는 우리 장군님을 형상하자.

이렇게 되어 펜을 든 저는 한해동안 고심해온 가사의 첫절을 하얀 종이우에 쓰게 되었습니다.

천고밀림 흰 눈우에 첫 자욱 새기시며
빨찌산일가의 뜻을 이은 장군님
백두산 김대장의 붉은기 날리시는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이 가사가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저는 흥분된 마음을 누르며 2절과 3절을 써내려 갔습니다.

저는 2절에서 어머님께서 것처럼 바라시던 인민의 세상, 우리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식 사회주의를 역세게 지키시는 오늘의 김대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형상할수 있었으며 3절에서는 선군혁명 천만리를 승리로 이끄시며 조국과 민족을 위해 한평생 공격전에 계시는 우리의 장군님을 전설적인 령장으로 형상할수 있었습니다.

항일전의 그 나날을 장군님 추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밀림의 눈이 내렸네
사회주의 지켜 서신 오늘의 김대장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적전에 번개치며
위대한 백두전범 전선길에 빛내시네
조국 위해 한평생 공격전에 계시는
우리의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가사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은 이처럼 고심어린 탐구속에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지만 이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위업의 천만분의 하나도 형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91(2002)년 6월 12일 것처럼 바쁘신 시간에 제가 올린 편지도 몸소 보아 주시고 사랑의 친필까지 보내주시었습니다. 장군님의 친필을 받아 안은 저를 저와 같이 일하는 동무들과 대학선생님들이 모두 축하해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당의 총비서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여러 차례에 걸치는 치하의 말씀을 받게 되었으며 이번에는 사랑의 친필까지 받아 안은 영광을 지녔으니 꿈과 같이 너무도 엄청난 이 현실을 무엇이라 말해야 하겠습니까.

얼마전에 인민군대에 나가 있는 저의 아들이 집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내용에는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을 날마다 대렬합창곡으로 부르며 또다시 아버지의 좋은 노래가 나오기를 텔레비존에서 기다리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 중앙텔레비존에서는 이 노래를 가지고 《위대한 빨찌산의 아들 천출명장찬가》라는 텔레비존음악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조선인민군 룡해공군과 각계각층 근로자들이 모인 이 무대에서 제가 창작장위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저 우리 시인들이 쓰는 한편한편의 시와 가사를 나라의 큰 일로 여기시며 품을 들여 보아 주시는 장군님이 아니시라면 제가 어떻게 이처럼 자랄수 있었겠는가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노래로 하여 소원을 다 풀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의 소원은 오늘도 더욱더 심장에 불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장군님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 주셨습니다. 천출명장이신 장군님께서 계시고 그이께서 선군의 길을 가시는 한 우리 문학의 종자는 마르지 않을것이며 영원할것입니다.

저는 선군의 이 길에서 장군님과 발걸음을 맞추어 피어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수령님추억속에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빨찌산의 아들로 태어나 포연에 절은 옷을 입고 군대밥을 먹으며 돌격구령소리와 함께 성장한 그의 인생은 첫 시작부터가 남다른것이였습니다.

김정일이 어려서부터 대가 바르고 배짱이 센 품성을 지닐수 있는것은 선천적인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신념이 강한 투사들의 품에서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진리를 배우며 아무런 구김살도 없이 씩씩하게 살아왔기때문입니다.

김정일이 어린 나이에 비해 정신적으로 조숙한것도 빨찌산의 물을 먹으며 자랐기때문이라고 봅니다. 빨찌산들이 지니고있던 고결한 감정정서는 풍부한 자양이 되어 그의 녀속에 그대로 흘러들었고 백두산의 뒤편처럼 억센 그들의 기질은 그의 남아다운 성격에 피와 살을 보래주었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의 백두산

(로씨야) 알렉산드르 브레쥬네브

주체사상 봄우뢰가
세상을 깨운다
장엄한 백두산이 위훈을 부른다
온 세계여 영광의 노래 부르자
위대한 원수 위대한 령수이신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당신은 단군조선 빛내이시는분
만민의 존경 받으시는분
령수께서 하시는 말씀 새기며
백두산의 웨침소리 들으며
내 심장으로 백두산을 노래하노라

김정일 당신은 가장 용감하신분
이 세상 제일 강하신분
병사모표의 별들도 불길로 타고른다
성스러운 백두령봉에서
빛나는 태양의 그 빛발을 받아
정일봉의 장엄한 우뢰인양

무적의 대오 조선의 병사들
발걸음소리 우렁차라
손에손에 총을 억세게 틀어 잡은
그들의 얼굴마다 굳은 맹세 비끼고
백두의 산악과도 같은 기상
눈길마다에 어려 있어라

심장이여 세차게 고동치라
더운 피를 더욱더 끓이라
장구한 싸움터의 철퇴도
백두의 병사들을 놀래우지 못했거니
김정일장군의 강철의 병사들이여
억세게 틀어 잡으라 백두의 총대를

더 높이 휘날려라 조선의 기치여
백두산이여 노래하라 2월의 명절을
강철의 원수 **김정일**
그대 진두에 계시여
우리는 승리하리라
원췌는 멸망하리라

위인과 전설

김우경

력사가 유구하면 전설이 많기 마련이다.
반만년의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나라엔 참으로 전설이 많다.

력사는 오늘을 진단하여 주고 래일을 비쳐 준다고 한다. 력사와 더불어 전해지는 전설은 사람들의 가슴에 고향을 심어주고 생활의 지혜와 인생의 교훈과 우리것의 귀중함을 가르쳐 준다.

한개의 청동미술품에도 민족의 넋이 있는 것처럼 전설속에는 겨레의 생활철학이 깃들어있다.

내가 문학과 인연을 맺게 된것도 전설이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자강도의 궁벽한 산골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나는 마을로인들에게서 많은 전설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하였다.

지금도 잊혀 지지 않는것은 《포수집》 할아버지가 들려 준 전설들이다. 저녁이면 《포수집》 사랑방에 나같은 조무래기들만 아니라 동네어른들도 모여들곤 하였는데 할아버지는 매일 새라새로운 전설들을 이야기해주었다.

그중에서도 백두산전설은 어린 나의 가슴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숭배심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깊이 심어 주었다. 아마 이런 연고로 내가 혁명전설들을 발굴정리하는 작가로 되였는지도 모른다.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위인의 행적에는 반드시 전설이 따르는 법이다.

지금 우리 인민들속에서는 헤아릴수 없을만큼 수많은 혁명전설들이 창조되어 전해지고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 20세기이후 현 시대에 와서 더는 전설이 창조되지 않는다고 한다.

서방의 문예학자들은 그 리유에 대해 말하기를 현대전자제품 즉 라디오와 텔레비죤, 컴퓨터 등의 출현과 다세대가정으로부터 단세대가정으로의 이행으로 집집마다 전설을 전해 주는 전승자인 할머니가 없기때문에 전설창조전승조건이 상실되었기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어찌하여 그렇듯 많은 혁명전설들이 창조전승되고 있는것인가.

그것은 불세출의 전설적위인들이신 백두산3대장군을 모시였기때문이며 그분들에게 매혹된 슬기롭고 재능 있는 우리 인민들이 있기때문이다. 이것은 민족의 크나큰 긍지이고 자랑이며 우리만이 받아 안은 특전이고 행운이다.

구술이 서말이라도 께야 보배라고 입으로만 전승되고 있는 혁명전설들을 제때에 발굴정리하여 후대들에게 넘겨 주는것은 우리 민족의 혁명적문학유산을 꽃피우고 빛내어나가야 할 우리 작가들

의 임무이다. 나는 지난 근 20년간 시대와 인민이 맡겨준 성스러운 사업을 해오면서 어느 한순간도 이 력사적인 사명감을 잊은적이 없다.

그러나 혁명전설을 발굴정리하는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였다.

조국의 복변으로부터 분계연선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방방곡곡을 편답하면서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지어 조국을 방문한 해외동포들과 우리 나라를 찾아 온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혁명전설들을 발굴하는 사업도 수월치 않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것은 발굴된 전설들을 문학으로 서사화하는것이였다.

혁명전설을 문학으로 서사화하는것은 우리 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전혀 해보지 못한 생소한 분야여서 어떻게 할지 몰라 몹시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처음 우리 나라의 옛 전설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읽으며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미학적감정과 특징들을 연구하는것과 함께 방도를 모색하던 중 혹시 다른 나라 작가들이 쓴 책에서 참고할것이 없을가하여 자료작업을 진행한적도 있었다.

그 과정에 이전 쏘련에서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이름있는 작가들에 대한 현대전설 몇편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별로 참고가 되지 않았다. 실례로 제2차 세계대전시기 쏘련작가 마르샤크가 자기의 원고료로 땅크 3대를 마련하여 붉은군대에 헌납하였는데 그 땅크들이 베를린을 함락할때까지 한번도 고장나지 않았다는 전설이였다. 이것은 수령형상전설이 아닐뿐아니라 그 전설자체도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데 불과한것이였다.

이것이 어찌 사상과 내용의 폭과 깊이에 있어서 대비도 되지 않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전하여 주는 우리 인민의 혁명전설을 서사화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는가.

문학이라는 큰 테두리안에 있는 두개의 분야 즉 구전문학과 서사문학에서 구전문학이 문학발생의 시원인것처럼 우리 나라에서 수령형상문학은 백두산전설로부터 발생한것만큼 서사화된 혁명전설은 사상에술성에 있어서나 그 풍격에 있어서 웅당한 수준을 보장하여야 하는것이였다.

나는 13세기 작가 리규보가 주몽전설에 기초하여 쓴 서사시 《동명왕편》을 보면서 그리고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의 머리시를 보면서 혁명전설의 문학사적위치와 의의 그리고 전설의 생명력을 더 깊이 절감하게 되었고 그럴수록 과연 내가 이 어렵고 중대한 과제를 해낼수 있을가하

는 우려와 동요도 없지 않았다.

어느 한 자료를 보다가 인디아를 강점하였던 영국이 그 인디아를 내놓으면 내놓았지 쉿스피어만은 내놓을수 없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바로 그 쉿스피어의 유명한 비극과 희극들이 모두 유럽에서 전해 내려 오는 옛 전설들을 극으로 옮긴것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면서 이런 옛 전설에 대비도 할수 없이 귀중한 혁명전설의 위치와 무게가 온몸에 실려 와 고민과 번뇌는 더 커지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들의 눈을 번쩍 띄워주고 힘과 용기를 안겨 주신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다름 아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두산전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인민들속에서 창작되고 전해진 위대한 장군님과 항일유격대에 대한 구전작품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백두산전설을 수집정리하는 사업이 혁명소설창작에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과거의 전설은 고대나 중세기의 의식수준이 낮은 사람들에 의하여 창조된것이지만 백두산전설은 현대인들이 창조한것으로서 현대인들의 수준에 맞게 정리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가르치심은 그대로 혁명전설을 서사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였다.

이 말씀을 심장에 새긴 나는 전설을 발굴하러 나갔던 현실속으로 다시 들어 갔다. 기술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전설도 다시 듣고 생활체험을 하는 과정에 나는 참으로 많은것을 알게 되였으며 혁명전설정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것도 점차 터득하게 되였다.

혁명전설이 창조되어 전해 지고 있는 그 고장에 대한 자료를 더 깊이 알고 그 지방사람들의 사상감정과 풍습 등을 폭 넓고 깊이 있게 알 때 혁명전설을 더 잘 정리할수 있었다.

현실은 전설이 창조되는 터전이며 그것을 문학으로 서사화하는 방법과 실력까지도 높여 주는 참다운 스승이고 학교였다.

금수산기념궁전전설을 정리할 때에도 나는 금수산기념궁전 일군들과 수령님을 오래동안 직접 모시고 사업한 일군들 그리고 금수산기념궁전전설자들과 연고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생활하는 과정에 그들의 지향과 사상감정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되였으며 그들의 사상미학적감정에 맞게 발굴된 전설들을 문학으로 정리할수 있었다.

현실체험과정에 나는 전국의 여러 혁명전적지들과 사적지들에서 구호문헌들과 사적물들을 많이 보고 그에 깃든 이야기들을 듣게 되였는데 이것은 혁명전설정리사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였

다.

나는 혁명전설의 문체를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에도 많은 관심을 돌리였다.

혁명전설이라는 범주에는 백두산전설, 백두광명성전설, 백두산너장수전설, 금수산기념궁전전설, 추모설화 등 여러 종류가 속하는데 이것들은 서로 공통성도 있지만 제마끔 자기 고유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매 종류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탐구해 나가면서 구호문헌의 간결성과 명료성, 정확성과 통속성을 거울로 삼아 혁명전설고유의 문체를 살리게 되였다.

실례로 구호문헌에는 이런 글들이 있다.

《천출명장 대장 독립몽마 타고 백두산에 내렸다》

《은하수빛 흘러 간 길을 따라서 어서 빨리 보고 싶은 백두성 찾아가자》

얼마나 백두산3대장군을 높이 칭송한 혁명적인 문장들이며 또 얼마나 통속적이고 인민적이며 세련된 문장들이나.

항일투사들이 심장으로 쓴 구호문헌의 구절구절들은 그대로 혁명전설정리에서 본보기로 삼아야 할 고유한 문풍이였다. 구호문헌은 그대로 구호나무에 쓴 함축된 혁명전설들이다.

항일혁명선렬들은 혁명전설의 첫 창조자일뿐 아니라 그것을 구호나무에 기록한 첫 정리자들이였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지도를 받으며 수백여편의 혁명전설들을 발굴정리함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는데 일정하게 기여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를 받으며 혁명문학의 한 형태로서 개척된 혁명전설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는 구호문헌발굴과 함께 혁명의 만년재보를 마련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백두산3대장군을 하늘이 낸 불세출의 위인으로 형상하는데서 혁명전설이 노는 역할은 매우 크며 위력한 감화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서사문학과 달리 혁명전설은 그 자체가 위대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문학종류로서 혁명전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은 더 높이 칭송되는것이다.

지금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리전선길에 이어 공장과 농촌을 찾으시며 선군혁명명도의 빛나는 자욱을 아로새기고 계신다. 그이께서 다녀가신 인민군부대와 공장과 농촌마다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창조되고 있으며 날에 날마다 주옥같은 혁명전설들이 태어나고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창조전송되고있는 혁명전설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발굴하여 문학으로 정리하면 수령형상문학의 보물고는 더욱 풍부해질것이며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은 혁명전설과 더불어 천세만세 길이길이 전해질것이다.

유적유물은 전란의 시기나 자연재해에 의해 깨지거나 불 탈수 있지만 인민이 창조한 전설은 그 민족이 살아있는 한 깨지지도 불타지도 않으며 영원히 전해지는 것이다.
위인이 있어 위대한 전설이 있다.

전설적영웅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나라엔 혁명전설들이 오늘날 아니라 래일에도 끝없이 창조될 것이다. 나는 나라의 국보를 마련하는 영예롭고 숭고한 사업에 한생을 다 바쳐 나가겠다.

수령님추억속에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 동무를 백두산의 아들이라고 하는것은 **항일혁명의 산아**라는 뜻이며 **민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항일혁명투사들의 품에서 인생의 첫 걸음을 떼고 그 품에서 우리 혁명의 향도성으로 솟아오른 조선의 아들**입니다.》

백두밀영고향집

채동규

백두산발 천연의 푸른 성새속에
자그마한 귀틀집 한채
이갈숲에 달이 뜨면
소백수 물소리 고요히 띄창을 흔들고
밤안개 부드러이 추녀아래 흐르는 집

지붕조차 천고밀림의 바다에 잠겨 있어
삼가 프락에 들어 서기 전에는
그 전경 쉬이 가려 볼수 없건만
가장 소중한 추억우에 받들려
가장 열렬한 그리움우에 떠받들려
정일봉의 글발을 문패로 드높이 달고 솟아 있는
오, 백두밀영고향집!

쓰러지는것이 차라리 마음 편할것만 같던
《고난의 행군》 그 세월에도
나는 왜 자주
이 집을 그리도 눈물겹도록 그려 보군 하였던가
정갈한 부엌가에서 김정숙어머님

산나물죽우에 천만가지 아름다운 소원을 얹어
어리신 장군님께 드리시며
하얗을 미래에 대해 정 깊게 들려 주시던 이야기
왜 그리도 이 심장 후덥게 들끓이군 하였던가

날마다 복되어 지는 우리의 생활과
선군시대의 가슴 벅찬 래일을 생각할 때
내 눈앞엔 제일 선참 떠오르군 하였다
고향집의 사연 깊은 유산인

나무권총, 조선지도, 쪽무이포단...
그 모든것이

하늘 땅 그보다 더 크낙하게
고향집은 어디서나 보이리라
눈 내리는 최전연 전호가에서도
수천척 지하막장 한끝에서도
금나락 물결치는 연백별 들끝에서도

정녕 백두밀영고향집은
인민의 다함없는 그리움의 집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의 어버이로 우러르는
남녘겨레의 가슴마다에도 언제나 안겨 오는
위대한 태양의 집!

이 나라 북변의 어느 한 지점에
고향집이 있다고 생각지 말라
우주의 중심에 성스럽게 솟아 있어
온 세계 인류를 향도하는 등대!
원주들에겐 무자비한 멸망을 안기는 승리의
표대!

아 백두밀영고향집!
정일봉기슭의 소박한 귀틀집은
21세기의 무궁한 세월
나지막한 추녀로 이 땅과 온 세계를 뒤덮으며
날마다 부르리라
때로는 고요를
때로는 폭풍을...

세월의 언덕 넘어

배경휘

장령들과 군관들은 차렷자세로 곳곳이 서 있었다.

《다른 방안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작전도에서 시선을 떼시며 짙막히 물으시었다. 그 짧으신 한마디 말씀에 야전지휘소의 공기는 더욱 팽팽히 긴장되었다. 작전각주위에 서 있는 장령들의 얼굴마다에는 긴장과 불안의 빛이 떠올랐다. 그 물으심에 장군님께서 훈련지휘부가 내놓은 두번째 작전안에 대해서도 만족해 하지 않으신다는것을 의미했기때문이었다.

해가 넘어 가는 음산한 하늘에선 눈썹이 떨어지고 있었다. 바람은 없었으나 추위는 땀뻘었다. 그러나 지휘관들은 거의나 모두 그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을 감득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이 작전의 중요성은 누구나가 푹푹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작전은 적들의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에 대처하여 군부대집단들이 벌리는 기동훈련의 성과를 담보하는 작전이었다. 최고사령부의 전략적의도를 최종적으로 실현해야 할 이 작전은 고도의 신속성과 은밀성, 불의성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했다. 위성촬영을 비롯한 최첨단과학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인 감시 및 정보체계하에서 이번 작전의 성과를 담보하는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시선이 장령들의 굳어진 얼굴들을 재빨리 훑으시었다.

《다른 안은 없소?》

장군님께서 다시금 물으시었다.

잠시 무거운 침묵!... 침묵!

그때 장군님의 뇌리에는 잊으실수 없는 한 장령의 기름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있었으면, 그가 이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면...

장군님께서서는 혼자소리로 조용히 뇌이시었다.

《박세민동무가 여기서 작전부장을 했지...》

다시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방금전 장군님께 작전안을 설명해 드린 장령이 자신 없는 어조로 떠듬떠듬 말씀 드렸다.

《한가지 또 다른 방안이 있긴 한데... 너무 빈구석이 많아... 현실성이 부족하기에... 보류시켰던것입니다.》

《설명해 보시오.》

장군님께서서는 너그럽게 말씀하시었다.

장령은 또박또박 한마디한마디 정확하게 씌으

며 가능한것 상세히 설명하려고 애 썼다. 비록 자기가 보류시킨 안이긴 했으나 기본안들이 다 부결되고 다른 예비안이 없는 조건에서 이 자리에서는 그 방안에 최대한의 과학성을 부여하려고 애썼고 그 과정에 조금이라도 새롭게 보충완성되기를 바랐던것이다. 그러나 장군님께 설명해 드리면서 그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방안의 약점들이 너무도 크게 보여 와 거의나 절망에 가까운 안타까움을 받아 안게되는것이였다. 더우기 장군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서 그 질문들이 작전안의 약점을 면바로 찌르고있음을 의식하자 자기가 괜히 이 방안을 내놓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사실 그는 그 방안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었다. 군사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안되는 햇내기의 창조물인 그것이 장군님께 보고 드리기에 너무도 엉성하고 서투른 《제품》이라고 생각되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장군님께서 박세민을 회상하며 그리워 하시자 박세민의 아들인 그 햇내기의 안에 대해 보고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장군님의 시선이 긴장하게 지도를 응시하고 세시였다. 여기엔 뭔가 있다. 여기엔 기발한것이 있다! 장군님께서서는 내심 기쁨이 솟구쳐 오름을 금할수 없으셨다. 우리 작전일군들의 대담하고 창조적인 사색이 반갑고 대견하게 여겨 지셨다. 아직은 싹에 불과하지만 이 싹이 귀중한것이다!

《이 방안의 발기자가 누구요?》

장군님께서 물으시었다.

《부대작전참모 박정현소좌입니다.》

(박정현이라...) 귀에 익은 이름이었다.

《박정현?》하고 장군님께서 뇌이시는데 장령이 말씀 드렸다.

《한때 우리 부대 작전부장이였던 박세민동무의 아들입니다.》

《그래?》

장군님의 안광이 번쩍 빛나셨다. 박세민동무의 아들이 벌써 이렇게 자랐는가? 순간 가슴속에 이름하기 어려운 뜨거운 감정이 밀물쳐 올랐다.

박세민, 박세민...

×

...1960년대 중엽.

군인휴양소 앞바다에 뽀트 한척이 떠 있었다.

흰 와이샤즈바람의 박세민이 천천히 노를 젓고 있었고 그의 앞에선 어린 아들이 한손을 물에 잠

그었다가 꺼내며 장난을 하고있었다. 그 애가 바로 박정현이었다.

그 맞은편에 앉으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미소어린 시선으로 소년을 바라보시며 물으시었다.

《바다가 무섭지 않느냐?》

《무섭긴요!》

《그래?! 답이 큰걸. 너도 아버지처럼 큰일을 할 모양이구나.》

《나도 아버지처럼 인민군대가 될래요.》

소년은 당돌하게 대답하였다.

《그럼, 인민군대가 되어야지.》

장군님께서서는 고무하시듯 확신하시듯 말씀하시었다....

그 박정현이 지금 이렇게 자란것이다. 대견하고 기쁘기도 하였고 피로운 추억으로 가슴이 아프기도 하졌다.

박세민은 사단장시절부터 장군님의 관심을 끈 능력있는 장령이였었다.

언젠가 장군님께서 박세민의 사단에 가셨을 때 비상정황이 발생했었다.

먼저 비무장지대안에 무력을 집결시켰던 적들이 맹렬한 포사격의 엄호하에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분계선을 넘어 침공해 왔던것이다. 사단장감시소에서 포연이 자욱한 산발들과 골짜기들, 폭발하는 먼지기둥과 섬팡들을 주의깊이 살피던 박세민은 침착한 태도로 발생한 정황과 자기의 결심을 군단에 보고하였다. 그 도발이 전쟁에로 이어질지도 모르는 긴박한 정황이었지만 그의 태도에는 조금도 당황하거나 초조한 기색이 없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배심 있는 태도가 마음에 드시었다.

지도우에서 자기의 작전방안을 설명하는 박세민의 보고를 들으면서 장군님께서서는 적의 기도를 제격 파악하고 대답하고 진공적인 반공격방안을 내놓는 그의 능숙한 지휘능력에 내심 믿음과 만족을 느끼지 않을수 없으시었다. 군관학교에서 전술강좌장을 했다더니 과연... 군단참모장이 그를 자랑스레 소개하던 일이 실로 그럴만 하다고 생각되시었다.

얼마후 관하 지휘관들의 보고를 받은 박세민은 다시 몇마디 지시를 주고나서 장군님께 몸을 돌리고 말씀 드리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놈들을 본때 있게 답쇄길수 있습니다.》

그때 눈에 불을 담고 결괏 있게 말하던 세민의 모습을 눈앞에 그리시며 장군님께서서는 지금 그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고 생각하시었다.

...그가 오직 일밖에 모르고 밤이나 낮이나 작전문제에 고심하며 너무도 무리한다는것을 아셨기에 그의 탐구심과 정열을 기쁘게 여기시면서도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건강이 넘려되시어 속후휴양소에서 가족휴양을 하게 하시였었다.

그러나 한달동안 가족휴양을 하면서도 그는 별로 나아진것 같지 않았다. 료해해보시니 그는 휴양을 와서도 작전문제와 부대관리에 온 마음을 쏟으며 때로 밤잠도 설치군 한다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일부러 그를 뽀트놀이로 불러 내셨는데 그 전날 밤에는 장군님의 호위사업을 위해 꼬박 새우다싶이 했다는것이였다. 그 모든것을 미리 료해하신 장군님께서서는 노를 젓는 박세민의 수척한 얼굴을 근심어린 시선으로 더듬으시었다.

자나깨나 오직 일 밖에 모르는 일군, 믿음이 가고 그럴수록 더욱 아껴주고 싶으신 전사였다.

《작전부장동무는 가족휴양을 와서도 일밖에 몰랐다는데 래일 나하고 묘향산에 갑시다. 묘향산 경계를 구경하며 다시 휴양을 해야 하겠습니까.》

장군님께서서는 조용히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다심하고 지극하신 사랑에 박세민은 황황히 시선을 떨구고 어쭙은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뜨직뜨직 대답을 올렸다.

《저의 휴양기간은 끝났습니다. 전 부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간곡히 이르시었다.

《부대엔 나하고 묘향산에 간다고 하시오. 아니, 내가 말해 주겠습니다.》

눈을 들어 장군님을 우러르는 박세민의 시선에서 그이께서는 그의 가슴에 넘치는 뜨거운 격정을 읽으시었다. 눈물겨운 고마움과 끝없이 부풀어 오르는 행복감... 그것뿐이 아니였다. 그 어떤 강렬한 빛과 그들이 언뜻 스치는것도 장군님께서서는 놓치지 않으셨다. 그다음 다시 어쭙은 미소...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태도가 안심되지 않으시여 거듭 강조하시었다.

《래일 직승기편에 떠납시다.》

그러나 다음날, 박세민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기고 부대로 떠나갔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저의 건강을 넘려하시는 그 뜨거운 심정을 제가 어찌 모르며 그 뜻을 제가 어찌 저버릴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대의 작전을 책임진 제가 당의 혜택을 받기만 하며 오래동안 초소를 떠나 있다면... 어찌 수령님의 전사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있으며 자기 본분을 수행하지 못하는 전사를 무엇에 쓰겠습니까. 철부지라면 행복에 도취해 버릴수도 있겠지만 그 행복을 지켜야 할 군인인 제가 자기 본분을 망각한다면 그야말로 배은망덕한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그 지극한 권고를 마다하는것이 제 도리가 아니며 그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는것이 도대체 인륜에 어긋나는것임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누구나 감히 바랄수 없는 행복을 받아 안고도 도리어 피로와 하게 되는 제심

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소에 서서 수령님의 안전, 조국의 안전을 담보할수 있을 때 저는 진정으로 기쁘고 마음이 가벼우며 건강도 좋아질것 같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 저때문에 너무 마음을 쓰시지 마십시오. 묘향산으로 떠나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십시오.》

편지를 읽으시면서 장군님께서는 고마와 하면서도 당황해 하던 박세민의 모습을 회상하시였고 그때에야 그의 심정을 똑똑히 헤아리셨었다.

장군님께서 그를 묘향산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신것은 군부대 작전구역안에서는 도저히 그를 사업에서 떼어낼수 없다고 보셨기때문이였다. 그래서 그를 작전구역밖에 보내어 가능한껏 충분한 휴식을 시키려고 생각하셨던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박세민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시였지만 자신의 뜻을 받아 들이지 않는 그가 야속하기도 하셨었다. 끝없이 주고 싶은 정을 다 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이랄가... 그때의 일이 지금 뇌리에 생생히 기억되는것도 그 서운한 감정의 여운일것이다. 너무도 고지식하고 받은 임무앞에서는 사소한 에누리도 모르는 그가 안타깝기도 하고 더없이 미덥기도 하셨었다. 자신께서는 순간의 휴식도 모르시면서도 전사들의 건강과 휴식에 대해서는 늘 세심한 관심을 돌리시는 장군님이시였다. 아직 젊으셨으나 그이는 전사들의 아버지이시였다.

×

만약 박세민이 그때 장군님의 권고를 들었더라면... 그래서 몸이 튼튼해 졌더라면 지금 장군님 곁에 서있을지도 모른다. 그를 때 이르게 잃으신 아픔을 안고 계시기에 장군님께서는 그의 아들에게서 보시게 된 그 남 다른 창조적재능을 두고 누구보다도 기뻐하시였다.

(네가 아버지의 뒤를 잇겠구나.) 하는 대견함과 반가움을 안고 장군님께서는 박정현이 내놓은 작전안을 세밀히 검토해 보시였다. 실로 대담하고 독창적인 안이라고 할수 있었다. 여기엔 큰것이 있다고 장군님께서는 생각하시였다. 물론 현재로서는 허황하다고 볼수도 있었다. 훈련지휘부에서 그 안을 보류시킨 근거가 충분히 이해되시였다. 그러나 그 안에 최고사령부의 작전적기도를 가장 정확하게 훌륭히 수행할 방도가 있는것이다! 박세민이 사망한 다음 박정현이 후방군관학교에 추천되었다는것을 료해하시고 아버지의 뒤를 잇게 작전일군으로 키우라고 하신 일이 얼마나 옳은 조치였는가를 새삼스럽게 느끼시였다.

장군님께서는 주위에 서 있는 장령들과 군관들을 둘러 보시였다.

《박정현동무가 어디에 있소?》

장령은 당황해 하며 정중히 말씀 드렸다.

《그의 방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인정되었기에 작전조에 망라시키지 않았습시다. 지금 관하구분대에 지도사업으로 내려 가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유감스러우신듯 안색을 흐리시였다. 그리고 근엄하게 말씀하시였다.

《이 방안을 완성하십시오. 여기엔 최고사령부의 작전적구상을 가장 정확히 실현할수 있는 씨앗이 있소.》

그러시고는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물으시였다.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오?》

장령은 눈을 크게 떴다. 한순간 생각에 잠겼던 그는 절도 있게 대답을 올렸다.

《24시간내로 완성하겠습니다.》

《24시간?...》 장군님께서는 그의 긴장된 얼굴을 여겨 보시였다. 자기들이 현실성이 없다고 밀어놓았던 안을 24시간내로 완성하는것이 결코 험하지 않으리라는것을 헤아리시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아니, 12시간동안에 완성하십시오.》

12시간은 너무도 짧은 시간이였다. 그러나 조성된 정세가 요구하는 시간이였다.

《알았습니다.》

장령의 크게 뜬 검은 눈엔 비장하게까지 느껴지는 각오가 번뜩이였다. 그는 자기의 어깨우에 놓인 짐의 무게를 똑똑히 느끼고 있었다. 장군님의 명령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자각이 가슴속에 기둥처럼 서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수행할것인가 하는 방도와 틀림없이 수행할수 있다는 확신은 아직 명확히 않았다. 오직 죽어도 수행해야 한다는 각오만 뚜렷할뿐이였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심증을 헤아리고 계시였다.

결의는 좋지만 결의가 곧 결과는 아닌것이다. 문제는 그들의 안목과 수준에 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이 방안을 완성하는것을 하나의 작전을 성공으로 이끄는 문제로뿐만아니라 작전일군들의 안목과 수준을 한계단 도약시키는 계기로 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였다. 기존관념을 깨고 새로운 비약의 시대, 과학과 정보의 시대에 맞게 군사분야에서도 보다 과학적인 대담한 비약이 이루어 져야 하는것이였다! 한때 기존물리학의 개념으로는 해결할수 없었던것을 량자물리학이 해결한것과 같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타이르듯 말씀하시였다.

《박정현소좌를 소환하여 그를 중심으로 작전조를 다시 편성하고 작전안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보시오. 적과의 대결은 무엇보다도 지휘관들의 두뇌전이요. 이 두뇌전에서 적을 타승해야 하오. 난 동무들이 꼭 해내리라고 믿소.》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승용

차 곁에 서 있는 부관의 초조한 얼굴이 눈에 띄었다. 그가 장군님의 휴식때문에 저렇듯 초조한 얼굴로 서있다는것을 장군님께서는 알고계시었다.

요즘 장군님께서서는 며칠밤을 거의나 새우다싶이 하셨던것이다. 달리는 승용차안에서도 장군님께서 일을 하시었다. 겹쌓이는 피로와 손발을 얼구는 추위는 온몸의 세포를 마비시키는것 같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일을 하셔야 했다. 복잡한 세계정세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인민들의 장래가 그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또 먼 길을 떠나셔야 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차안에서의 쪽잠이 그리우셨다. 참으로 달콤한 쪽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마저 아까우시었다.

×

차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는 산과 들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러나 장군님의 시야에 보이는것은 지도우의 각종 부호들과 화살표들이었다. 각 병종 군부대들의 장엄한 흐름이었다. 이 시각 장군님의 사색은 박정현의 작전안을 완성시키기 위한 긴장한 탐구에 모든것을 집중시키고 있었다. 박정현의 방안에서 장군님의 주의를 끈것은 적들을 일격에 몽땅 소멸해 버리려는 대답하고 통이 큰 시도였다. 그러나 그를 위한 부대들의 기동과 집결에 문제가 있었다.

적들도 머저리가 아닌만큼 우리의 기도를 눈치채면 백방으로 방해할것이며 작전을 변경시킬것이다. 전쟁에서의 불의성은 예나 지금이나 승리의 필수적요인의 하나이다. 다만 그를 위한 수단들이 보다 현대화되고 교묘해 졌을뿐이다.

여기서 박정현이 놓친것은... 그는 자기의 방안에서 부대들의 기동과정에 있을수 있는 난관들을 출시했고 결국 기동시간과 거리를 무시했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 기초가 없는 집과도 같았기에 부대참모부에서는 그의 방안을 허황한것으로 일축한것이였다. 하지만 그가 시도한 전술적기동과 화력의 밀도, 그 타격에 대한 과학적타산들은 최고사령부의 의도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것이였다. 만약 그가 현조건에서 불의성을 보장할 방도를 찾는다면 작전일군들의 전술적시야를 넓히고 현대전의 요구에 적응시키는데서 비약으로 될것이였다.

하나 기성관념으로 볼 때 주어 진 조건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것이였다...

얼마후 장군님께서서는 야전지휘용승수화기를 드시었다.

《참모장동무요? 작전안에서 새로운 전진이 있소? 아직 연구중이라?! 박정현동무가 도착했소? 그럼 그와 바꾸시오.》

이어 짧고 청청한 그러면서도 흥분에 떨리는 목소리가 전류를 타고 날아 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소좌 박정현...》

그이께서는 마감말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정결게 물으시었다.

《수고하오. 그레 작전안을 완성시킬 방도를 연구해 봤나?》

《최고사령관동지, 연구해 봤지만 아직...》

박정현의 송구스런 대답이 들려 왔다.

《제일 난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오?》

《주타격부대가 현재위치에서 지정된 시간까지 공격출발계선에 도착하는 문제입니다. 불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시간내에 기동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는것은 있을수 있는 정황과 거리를 타산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것입니다.》

《그렇거요. 때문에 현존 기동로를 리용하지 않는 방향에서 모색해 보라구. 이를테면 부대를 ○○령방향으로 기동시켰다가 불의에 직선통로로 매봉을 돌파할수 없겠는가? 문제는 ○○령과 매봉사이의 골짜기를 극히 짧은 시간에 극복하는데 있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화구에서는 전류의 흐름소리가 초조한 숨소리와 함께 들려 왔다.

드디어 정현의 흥분에 겨운 떨리는 목소리가 귀전에 울리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 신심이 생깁니다.》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 좋아, 연구를 더 심화시키라구. 사소한 빈틈도 없도록... 요점은 주타격부대의 기동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면서 보조부대들의 기동과 기타 수단들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거요.》

《알았습니다.》

《그럼 수고하오. 성공을 바라오.》

장군님께서서는 송수화기를 내려 놓으시고 등반이에 몸을 기대시었다. 박세민동무, 아들이 괜찮소. 머리가 돈단 말이요.

어두운 하늘에서 쏟아 지는 눈송이들이 전조등 불빛속에 춤 추며 달려 와 차창에 부딪치기도 하고 옆으로 지나가기도 한다.

불현듯 망각속에 묻혀 버렸던 음산한 늦가을밤의 정경이, 외등불빛속에 거무스레하게 보이던 비에 젖은 군인숙박소청사가 눈앞에 떠올랐다.

×

군인숙박소의 앞마당.

한 장령과 이야기를 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득 청사에서 나오는 박세민을 보시었다.

서둘러 손을 들어 경례를 하는 박세민의 얼굴이 누를수 없는 반가움으로 확 밝아 졌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에게 마주 걸어 가시여 손을

꼭 잡으시었다.

《언제 왔습니까?》

《어제 왔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그런데 왜 나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한없이 다정하고 친근하신 물으심이였다. 얼른 대답을 올리지 못하는 박세민의 눈썹이 불그레 달아 올랐다. 일찌기 부모를 잃고 탄광에서 소년로동으로 잔뼈를 굳히며 정에 주려 온 그의 심중에서 일어 나는 파동이 얼굴에 그대로 내비쳐 저서 장군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었다. 나이는 자신보다 10여년이나 우였으나 이를데없이 순진한이 장령에게서 풍겨오는 인간됨이 만나실 때마다 장군님의 마음을 후덥게 하는것이였다.

정겨운 시선으로 물끄러미 박세민을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나무라시듯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동무도 참... 그래 언제 갑니까?》

《지금 가는 길입니다. 12시차로 내려 갑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손목시계를 들여다 보시었다. 11시 10분... 너무도 시간이 촉박했다. 서운함을 금할수 없으시여 장군님께서서는 《그렇습니까?》하고 나직이 뇌이시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그럼 역까지 내 차를 타고 갑시다.》하고 이르시였다.

《아니, 일 없습니다. 대기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차를 타시오. 내가 바래주겠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성큼성큼 곁에 서 있는 승용차에다가가시여 손수 차문을 여시였다.

《자, 타시오.》

한순간 어쩔줄 몰라 하며 서 있던 박세민은 엉겁결에 차에 올랐다.

승용차는 평양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보시고싶던 일군을 만나신 상봉의 기쁨과 작별의 서운함이 뒤섞인 착잡한 심정으로 장군님께서서는 묵묵히 차를 모시었다. 운전대를 쥐신 손을천천히 움직이시며 가로등불빛속에 거무스레하게번들거리는 아스팔트를 주시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덧없이 흘러가는 이 아까운 시간이 가슴을 조이여서 마침내 침묵을 깨뜨리셨다.

《집에서는 다 편안합니까?》

《예, 다 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빙그레 웃으시었다.

《그때 뽀트에 탔던 아이가 잘 자랍니까? 그 녀석이 참 뽀뽀했는데...》

인민군대가 되겠다고 당돌하게 대답하던 아이의 영채돌던 눈을 그려보시며 장군님께서서는 감회깊게 말씀하시었다.

《그때 애들에게 사진을 찍어주자고 했는데 괜히 애들을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운전사에게 간식도 있었던것을...》

박세민은 어쭙은 웃음을 지었다.

《작전부장동무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전 건강합니다.》

《건강에 주의하시오. 인민군대는 나라의 맡아들인테 더우기 그 핵심적위치에 서 있는 일군이 많으면 안됩니다. 다음부터는 평양에 오면 꼭 나에게 전화하시오.》

마디마디 뜨겁게 울리는 장군님의 말씀에 박세민은 목이 메인듯 갈린 소리로 나직이 대답을 올렸다.

《알았습니다.》

불빛이 환한 평양역사가 소리없이 다가왔다.

승용차가 멈춰 섰다.

박세민이 가방을 들고 내려 서자 장군님께서도 차에서 내리시었다. 어쩔수 없는 작별의 시각이였다. 박세민의 손을 힘 있게 잡으신 장군님께서서는 다시금 당부하시었다.

《건강하시오. 평양에 오면 나에게 꼭 전화하시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그 간절한 목소리에 김정일동지께서는 안타까운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작전부장동무를 이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그 성미를 알기때문에 붙잡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평양에 오면 즉시 전화하시오. 찾아오던가...》

순간 박세민의 눈에 핑 물기가 어리였다.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장군님을 올려다 보며 그는 조용히 말씀 드리였다.

《무척 분망하신 시간에... 어서 가보십시오.》

《그럼 잘 가시오.》

차는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얼마쯤 가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차를 세우시고 돌아 보시었다. 밝은 가로등불빛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박세민의 키 큰 모습이, 굳어 진듯 서 있는 그 모습이 웬일인지 장군님의 심중을 찌릿하게, 아프게 두드리는것이였다. 그때 어떤 예감이 있었던가?! 아니, 그것은 너무도 짧은 상봉과 아쉬운 석별의 서운함이였을뿐이다! 정녕 기쁨보다 아픔이 더 컸었다. 쏟지 못한 너무도 큰 사랑이, 너무도 뜨거운 정이 가슴속에서 끓고 있었다. 그 모든 정을 《평양에 오면 전화하라.》는 한마디에 담으신 그이이시였다. 차는 서서히 조용히 다시 움직이였다...

×

그것은 너무도 뜻밖의 일이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지금도 그때의 충격을 잊지 않고 계시었다. 잊을수 없으시였다.

박세민이 파오를 범하고 제대되다니? 소총명, 관료주의적작품... 독단으로 인한 실책...

그처럼 고지식하고 솔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하긴 빠르고 순탄한 발전의 길을 걸어 일찌기 30

대에 장령이 된 그인만큼 소총명이 생겼을수도 있다. 재능있는 사람일수록 소총명이 있을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그의 인간됨을 볼 때 도저히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셨다. 것처럼 순박한 사람이...

《다시 알아보시오.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준절히 말씀하시였다.

하지만 다시 알아본 결과도 같은 내용이었다.

가슴속이 텅 빈듯 쓰러졌다. 믿고 싶지 않은 그 일을 인정하시자니 마음을 가라앉힐수 없으시여 장군님께서서는 자리에서 일어 서시였다.

어느새 그가 그렇게 되였는가... 그의 마음은 얼마나 피로왔겠는가. 한생을 군사복무에 바친 그가 군복을 벗자니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웠을것이다. 그런데 그는 왜 그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면목이 없어서? 아무리 그래도 나에게야 마음속 진정을 터놓아야 했을것이 아닌가. 내가 자기를 진정한 동지로 여긴다는걸 그가 몰랐단 말인가. 아니, 그 믿음이 큰것을 알았기에 더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을것이고 혼자 피로와 하며 묵묵히 고행길을 걸으려고 했을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그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될 사람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순간 《소총명, 판료주의!...》 그의 파오가 다시 뇌리를 때렸다.

그런즉 그에게 혁명화의 기간이 일정하게 필요하다. 맡아들일수록 엄하게 신칙해야 한다. 로동계급속에서 단련하는 그 기간이 보약으로, 새로운 추동력으로 되게 해야 한다. 아마 그자신도 일을 잘해서 파오를 씻고 새롭게 사상수양을 한 다음 편지를 하려고 했을것이다. 그런데 한생을 군대에서 보낸 그가 새로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겠는지... 그에게 모든것이 생소할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몇달후 해당 기관을 통해 박세민을 인민경제대학 단기반에 보내도록 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였다.

×

2년이 지난 어느 날 군인휴양소를 돌아 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청사에 모셔진 대형 사진속에서 자신과 나란히 서있는 박세민의 모습을 보시였다. 순간 그에 대한 인상깊은 추억들이 아릿한 충격속에 되살아왔다. 그사이 그가 인민경제대학 6개월 단기조를 졸업하고 공장 부지배인사업을 하고있다는 보고를 받으셨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있는지...

한참동안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한 수행일군을 부르시여 박세민에 대해로 해할 과업을 주시였다.

며칠후 장군님께서서는 료해정형을 보고받으셨다. 헌데 보고내용은 뜻밖의것이였다. 박세민이 부지

배인으로 일하는 공장에서는 그가 직무수행에 성실치 못하다고 평정한것이였다.

보고자료를 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무거운 안색으로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송수화기를 드시여 해당 일군을 부르시였다.

《박세민동무의 문제로 찾았소.》 장군님께서서는 신중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료해자료에는 그가 본신헌명파업에 성실하지 못하다고 적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되지 않소. 그는 조국해방전쟁때도 잘 싸웠고 전후시기나 사회주의건설시기에도 일을 잘한 사람이요. 우리 당에서 품을 넣어 키운 군사일군이였소. 그의 고지식하고 순박한 인간됨을 나는 잘 아요... 얼마전에 파오로 제대되였지만 나는 그가 혁명화기간에 새롭게 성장하리라고 기대했었소. 그런데 제대후 그가 혁명화를 불성실하게 했다니 참만해도 모를 일이요. 동무가 직접 그 동무의 문제를 료해하시요. 현지에 가서 구체적으로 알아 보고 보고하시요.》

보름후 장군님을 찾아 뵈고 료해정형을 보고드리는 일군의 얼굴빛은 어두웠다.

《박세민동무는 제대후 량심적으로, 성실하게 일하였습니다. 부지배인으로서 공장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늘 탄광과 농촌에 나가 살았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나갈 때에도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함께 일한 사람들은 그가 오직 공장일밖에 몰랐다고 합니다...》

전번에 보고된 자료는 그의 제대경위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본 일부 편협한 일군들이 잘못 반영한것이였습니다.》

장군님의 안광에 번개가 일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움쭉 일어나시여 창문을 향해 몸을 돌리시였다.

일군은 보고를 계속하였다.

...제대되어 갔지만 박세민은 군사복무에 대한 동경을 지워버릴수 없었다. 한번은 독감으로 누워 앓다가 미제의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에 대한 소식을 듣더니 벌떡 일어나 앓았다. 고열로 온몸이 불덩어리였지만 그는 작업복을 찾았다.

《나는 공장에 나가야 하오. 군인인 내가 이런 때에 누워있어선 안되오.》

《원, 아직도 군인이시우? 그 몸에 어딜 가신다구?》

깜짝 놀란 안해가 막아나섰다.

박세민은 안해를 흘려 보며 대꾸했다.

《난 영원히 군인이요. 정세가 긴장한데 군복을 잘 손질해두오.》...

그는 군복을 벗은 자기가 군대를 위해 이바지할수 있는 일은 조국해방전쟁경험을 비롯한 전쟁에 대한 글을 써서 남기는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것이 뜻밖의 오해를 살줄은 몰랐었다. 잠시간에 전쟁주제 실화문학을 써서 현상응모에 당선된적이 있었는데 공장의 협애한 책임일군은 그를 본신헌임무에는 머리를 안쓰고 돈벌이를 한다

면서 회의를 열고 술한 사람들앞에서 《리기주의자》 감투를 씌워놓았다.

장군님께서서는 몸을 뒹 돌리시였다. 이글이글 타는 눈에서 불이 쏟아졌다. 역세계 틀어쥐신 주먹이 몸부림치듯 부르르 떠시였다.

《어쩌면 그럴수가 있소?》

피를 뿜는듯 한 장군님의 부르짖음이 방안을 쩡 울리였다.

《어쩌면… 어쩌면 그렇게 심장이 차거울수 있는가!》

그러니 그 편협한 일군이 박세민을 직무에 불성실하다고 평가했을것이다. 군대에서 떨어져왔다고 잔뜩 색안경을 끼고 보면서 조국해방전쟁을 겪은 자기의 체험담을 후대들에게 전하려고 밤잠을 안자고 글을 쓰는 그의 피타는 안타까움은 리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을것이다. 돈벌이를 한다고?… 그런 일군밑에서 박세민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는가 싶으셨다.

《계속하오.》

장군님께서서는 걱정을 누르시며 갈리신 음성으로 낮으나 엄하게 말씀하시였다.

일군은 주저주저 말씀 드렸다.

《얼마전에 박세민동무는 뇌혈전으로…》

장군님께서서는 아연하신 눈길로 물끄러미 일군을 바라보시다가 《뭐요, 언제?》 하고 나오지 않는 음성을 짜내듯 나직이 물으셨는데 그 조용한 음성이 일군의 가슴을 바위돌로 치는것 같았다.

일군은 시선을 떨구고 머뭇머뭇 보고를 계속하였다.

《몇달전입니다.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운신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부지배인으로서 생산용 석탄을 보장하느라고 탄광에 나가 탄부들과 함께 일하다가 발파시 고막이 상해서 잘 듣지도…》

장군님께서서는 병상에 누운 박세민의 폐인이 된 모습이 눈앞에 력력히 보여와 손바닥으로 탁을 내려치시고 모서리를 짹 움켜쥐시였다. 박세민이 그렇게 되다니, 박세민이…

《그런 사람을 돈벌이한다고…》

떨리는 음성이 신음처럼 흘러나오셨다.

단 두해사이에 사람이 그 지경이 되다니… 파오를 씻으려고 그가 얼마나 모태졌으면… 그의 모진 고생이 력력히 헤아려지시였다. 그런 사람을… 실로 일군이 준비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며 혁명에 얼마나 큰 손실을 끼치는것인가? 과연 그 일군은 자기의 편협한 관점이 자기보다 비할바없이 훌륭한 인간의 운명을 짓밟았고 그것으로 하여 혁명앞에 무엇으로도 씻을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것을 알기나 하겠는가? 당에서 보다 큰일을 위해 말긴 인재를 소중히 보살필 대신 그렇게 짓밟아버리다니… 가슴속에서 용암이 끓어번졌다.

인간은 자기가 준비된만큼 보고 듣고 받아들인

다. 높은 정치적안목과 인간성, 그것이 결여되면 혁명을 할수 없다. 원쑤들은 갖은 수단을 다해 우리 대오에서 동지를 떼내려 하는데 동지를 아낄줄 모르는 사람은 저도 모르게 적을 도와주게 된다. 결국 동지를 얻는 과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계급투쟁이며 혁명은 진정한 동지를 얻는 과정이고 동지를 위한 투쟁이다. 동지를 위할줄 모르는 차거운 심장을 가진 사람은 혁명을 할수 없으며 그런 인간은 일군은커녕 인간의 자격조차 상실한 존재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나직이, 처절하게 뇌이시였다.

《내가… 내가 그를 잘 돌보지 못했소.》

끝없는 비애가 어린 그이의 말씀에 일군은 머리를 번쩍 들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저희들이 일을… 그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회복시키시오. 꼭 원상회복시켜야 하오.》

안타까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그리고 조용히 절절히 뇌이시였다.

《그는 우리 군대의 기둥감이였소. 더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 얼마간 단련시키자고 했소. 그런데 당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 편협한 사람들은 그를 잘 도와줄 대신 짓밟아버렸소. 이건 그 한사람이 아니라 우리 조국과 혁명의 손실이요. 그를 회복시키지 못하면 무엇으로도 그 손실을 보상할수 없소.》

장군님께서서는 나무잎들우에 뛰노는 눈부신 해빛을 바라보시였다. 만물을 따듯이 어루만지는 저 눈부신 해빛이 박세민의 가슴에 어떻게 비쳐졌겠는가 싶으셨다. 저 해빛을 보며 박세민은 북받치는 삶의 희열보다도 이룰수 없는 희망에 대한 간절한 동경과 상실감을 더 사무치게 느끼지 않았겠는가 싶으셨다. 가슴아픔을 누를수 없으시여 장군님께서서는 다시 몸을 돌리시고 걸음을 옮기셨다. 세민동무, 그런 피로움을 안고도 왜 나에게 편지를 하지 않았소. 왜? 물론 동무는 나에게 아픔을 줄가봐 저어했겠지.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더 큰 피로움을 주리라는것을 왜 몰랐소? 정녕 씻을수 없는 고통을 줄수 있다는것을 왜 몰랐소? 그것이 혁명에 더 큰 손해로 되리라라는것을 왜 몰랐는가?

장군님께서서는 근엄하신 어조로 다시금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꼭 회복시켜야 하오. 당장 강력한 의료진을 무어 치료대책을 세우시오.》

×

박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으로 중앙의 권위있는 병원에 와서 집중치료를 받고 마비되었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래도 의사들은 그에게 아직 극력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장군님께서는 그의 치료정형을 료해하시고 완전무결하게 깨끗이 낫게 하라고 당부하시였다.

박세민의 건강이 회복되면 군복을 다시 입히실 작정이었던것이다. 그만하면 그에게 새로운 과업을 주실 때가 충분히 되었다고 보신것이였다. 그러기 위해서도 치료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군님께서는 뜻하지 않은 보고를 받으시였다. 박세민이 장군님의 하늘 같은 은덕속에 병원침대에 누워 있을수만 없다면 의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내려갔다는것이였다.

《집으로 가다니? 아직 깨끗이 치료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장군님께서는 근심스런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당장 그를 데려 와야 하겠소.》

그런데 다음날, 당중앙위원회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 왔다. 박세민이 생산보장을 위한 전투를 벌리다가 순직했다는것이였다.

...집으로 내려 간 박세민은 그 길로 공장으로 나갔다. 공장에서는 군대에 필요한 물자를 보장하기 위한 긴장한 생산전투를 벌리고있었는데 원료보장이 씨원치 않았다. 폭우로 수송로가 끊어지고 보니 모두 맥을 놓고 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었다.

박세민은 자재과장에게 단호하게 말하였다.

《앞아서 기다릴순 없소. 현지에 가서 대책을 찾아봅시다. 생산을 보장못하면 동무나 나나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소.》

폭우속을 뚫고 결사적으로 수송로를 개척하였다. 제일 험한 굽인돌이에서 원료를 만제한 차한대가 경사지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로쁘, 로쁘를 걸라!》하고 웨치며 박세민이 지레대를 들고 차바퀴밑에 뛰어들었다...

차는 구원되었으나 쓰러진 박세민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는 너무도 억이 막히시여 《그게 무슨 소리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수 있소?》하셨을뿐 더 말씀을 잊지 못하시였다. 너무도 큰 상실감이 심장을 압박하여 숨이 막히시는것 같았다. 그가 그렇게 가다니... 바야흐로 이제부터 큰일을 해야 할 그였는데... 그래서 그에게 아픔도 주고 단련도 시킨것인데... 어쩌면 이렇게도 허무하게 갈수 있단 말인가. 그 귀중한 생을 그렇게 버리다니... 원료 한차라는 너무도 작은것을 위해 큰 생명을 바친 그였다. 그러나 그 보잘것 없는 원료 한차가 그에게겐 무엇보다 큰것이였으니 그것이 곧 그에게겐 조국이고 인민이었던것이다. 그러한 박세민이었기에 그를 잃은 아픔이 더욱더 크졌다. 그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씻을수 없으셨다. 이 세상을 다 주어도 그의 생을 다시 불러올수는 없는것이다. 아, 박세민이 장령복을 입고 군부대지휘관이 된 모습을 보시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것 같으셨다. 많은 고생

을 해온 그에게 이제는 기쁨만을 주고싶으셨는데 그것들을 하나도 받지 않고 가버린것이였다.

장군님께서는 가슴터치는 아픔을 누를수 없으시여 애절하게 입속으로 불려보시였다. 세민동무! ...

《장군님, 식사시간이 지났습니다.》

안타까이 나직이 울리는 부관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신듯 그이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였다.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격류를 가슴에 안으신채 장군님께서는 몸부림치시듯 집무실을 거니시였다. 그 순간 장군님의 심중을 파고드는 고통의 깊이를, 그 깊은 상처의 크기를 누가 헤아릴수 있었겠는가.

며칠후 박세민이 유서처럼 남긴 경애하는 장군님께 울리는 편지가 당중앙위원회로 전달되였다...

×

휘몰아 치는 눈보라를 뚫고 야전차는 령길을 달린다.

어둠이 내려 덮인 차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시는 장군님의 눈앞에 그 편지의 글줄들이 우뚝이 떠올랐다.

《...뵙고싶었습니다. 평양에 오면 꼭 전화하라고 하신 장군님의 자애로우신 모습은 제 삶을 비치는 해빛이였습니다. 장군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은 제 삶의 기둥이였습니다. 피로움과 난관이 증첩될 때도 장군님의 다정하신 음성과 친근한 모습이 저에게 힘을 주고 이끌어주었습니다. ... 공장에 와서 저는 장군님의 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를 뼈속깊이 절감하였습니다. 그 믿음과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인생을 다시 살리라 결심하였습니다.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이 생을 초불처럼 태우리라 맹세하였습니다. ...

장군님께서 저에 대해 주신 간곡한 말씀을 전달 받은 그날은 정녕 이 가슴에 해가 다시 솟은 날이였습니다. ...

장군님의 그 믿음에 정녕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습니까. ... 어제든 오늘도 저는 장군님의 영원한 병사입니다. ...

부디 건강하십시오. 장군님의 건강에 군대와 인민의 운명이 있습니다. ...》

그 절절한 글발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광막한 어두운 하늘에 불타는 글자로 씌여지는듯 싶었다. 박세민의 불 타는 심장이 꺼지지 않는 불길로 하늘에 새기고 있는듯 싶었다.

장군님의 눈에 눈물이 펑 고여 올랐다. 다시금 가슴에서 피가 터지는듯 싶으셨다. 박세민이 그렇게 빨리 떠나갈줄은 모르셨었다. 꼭 다시 만나 보고 싶으셨건만, 보다 큰 영광을 안겨주시려고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길 기다리시다가 끝내 다시 만나지 못하셨던것이다. 애끓는 슬픔과 후회를

금할수 없으시여 장군님께서서는 애통스런 시선으로 어둠을 응시하시며 괴롭게 속으로 뇌이시었다.

나도 동무가 보고 싶었소. 동무가 그렇게 갈줄은 정말 몰랐소. 왜 그렇게 몸을 혹사했소? 동무는 매번 나에게 아픈만 주는구만... 무정한 사람...

그러나 세월이 가고 강산이 변해도 동무는 내 마음속에 살아 있소. 우리의 우정과 믿음은 영원한거요. 나는 동무를 믿고 동무는 나를 믿는 이 믿음이 귀중한거요. 이 믿음으로 우리 대오는 더욱 억세어 질것이고 어떤 시련도 뚫고 나갈것이고요. 나는 이 믿음과 사랑의 힘으로 혁명위업을 완성하자고 하오. 진정한 동지에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시금석이요...

세민동무, 동무가 했어야 할 일을 이제 아들이 할거요. 훌륭한 아들을 둔것을 축하하오.

잠시 어둠속을 응시하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송수 화기를 드시었다.

《이번 작전의 주타격을 담당한 부대지휘관으로 박정현동무를 임명하는게 좋겠소... 그는 해낼거요. 나는 그가 최고사령관의 믿음에 보답하리라고 믿소.》

그처럼 중요한 작전에서 주타격을 담당할 부대의 지휘관으로 아직 경험이 부족한 애송이소좌를 임명한다고 놀라와 하는 상대방의 심정을 그의 목소리에서 느끼시며 장군님께서서는 미소를 지으시었다. 놀랄수 있다. 실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에겐 잠재력이 있다. 그것을 계발시켜 활짝 꽃피워야 한다. 여기에 웃사람의 몫이 있는것이 다.

×

며칠후, 역시 쉬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우에서 경에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인민무력부에서 올라온 표창대신서를 보아 주시었다.

문건에는 박정현이 작전을 완결하는 《1》지점으로 진출하던중 기발하고 대담한 착상으로 통로를 개척하고 주타격집단을 제 시간에 공격계선에 진출시킴으로써 군부대집단의 기동훈련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고 적혀있었다. 그 짧은 표창대신서의 의미를 장군님께서서는 깊이 헤아리고 계시었다. 그때는 적들의 전쟁연습이 절정에 이르고 있던 때였다. 놈들이 군사분계선전역에 밀집시킨 방대한 무력이 마구 총포탄을 쏘아대며 살벌한 기세를 돋우고 하와이와 오키나와, 괌도에서 날아 든 각종 전투기들이 까맣게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때, 놈들은 저희들이 암암리에 항공특전대를 투하하려고 계획한 그 장소가 바로 계획된 그 시각에 우리의 강력한 화력타격으로 불바다가 되는것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여 비명을 질렀던것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모든 일이 예견하신대로 되었다. 그 짧은 보고서, 짧은 표창대신서에 깃든 승리와 위훈의 사연들을 음미해보시는 장군님의 뇌리에 문득 박정현이 소속된 연합부대 참모장인 장령이 하던 말이 떠올랐다.

《장군님, 이제는 제가 낡은것 같습니다. 작전도 그렇고... 제가 눈이 멀다나니 귀중한 싹을 짓밟을번 했습니다. 저는 박세민소장이 소총명때문에 제대되었는데 그 아들까지 소총명을 부린다고 옥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장군님이 아니셨다면... 제가 무슨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때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며 호탕하게 웃으셨었다.

《그래도 동무가 그의 방안을 제기하지 않았소?》

그러시고는 의미심장하게 덧붙이시었다.

《인재를 보려면 먼저 지휘관의 눈이 높아야 하고 마음이 뜨거워야 하오. 우리가 박세민동무를 잃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거요. 나는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훌륭히 이으리라고 믿소. 미안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동무를 끝동무에게서 뺏아가야 할것 같소. 그러나 인재를 배출시킨 지휘관은 잊지 않겠소. 하하하.》

장군님께서서는 문건우에 달필을 달리시었다.

《영웅입니다. 우리 군대의 보배입니다.》

다음순간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번쩍 드시었다. 박정현을 당장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던것이다.

그처럼 보시고싶던 박세민을 속절없이 떠나보낸 이후 그 아들 박정현을 꼭 만나보리라 생각하셨었다. 그러나 오늘까지 만나지 못하셨었다. 그런데 그가 위훈을 세운 오늘은 꼭 만나서 그의 아버지와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다 나누고싶으셨다. 기념사진도 찍고... 줄수 있는 모든것을 다 주고싶으셨다. 그러면 땅속에서라도 박세민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차를 세우시오.》

차에서 내리시자 맵짠 바람이 휘파람소리를 내며 달려 들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솜웃자락을 날리시며 주머니에 손을 지르시고 거연히 서시여 굵이굵이 뻗어 간 도로우에 점점이 보이는 자동차불빛들과 어둠에 잠겨 버린 아아한 산발들을 숙연히 바라보시었다.

그러시다가 가까이 다가서는 책임부관에게 시선을 돌리시었다.

《차를 돌리시오. ××군부대로 갑시다.》

부관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군부대로 가려면 이미 온 천리길을 거의 되돌아가야 했던것이다.

《장군님... 이제 ××군부대로 가시면 래일 평양에서 열리게 될 회의시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길에 얼음이 깔려 령길상태가 나빠

졌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타이르시듯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그래도 가야 하오.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아오? 박세민동무의 아들이 있소. 박세민동무가 생전에 것처럼 날 보고 싶어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면… 길이 험해도 갑시다. 회의는

미룰수도 있지만… 어길수 없는것이 있소.… 이것이 우리의 룰이요 생활이 아니요!》

부관은 고개를 떨구었다. 장군님의 전사들에 대한 육친적사랑에, 자식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는 아버지의 그 헌신적사랑에 다른 말을 찾을수 없었던것이다.

세계성구속담

시간, 계절

가장 값 비싼 랑비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것이다.(그리스)

가장 귀중한것도 《지금》이며 제일 잃기 쉬운것도 《지금》이다.(중국)

변명을 찾는 자는 시간도적놈.(인디아)

봄은 꽃으로 아름답고 가을은 곡식밭가리로 아

름답다.(로씨야)

시간은 잘못을 마멸시키고 진실을 빛나게 닦아준다.(프랑스)

한평생 래일만 기다리면 오만가지 일이 모두 허사로 된다.(영국)

여름의 하루는 겨울의 열흘맛잡이.(로씨야)

병사의 인사

박해출

우리 초소를 찾으시여

환하게 웃으시던

그 미소를 지으시며 오셨습니다

총 잡고 내가 지켜 선 조국으로

장군님은 원동에서 돌아 오셨습니다

보십시오

병사가 지킨 저 푸른 하늘엔

밝고 밝은 태양이 눈 부시게 빛납니다

풍요한 기름진 들엔

이삭의 물결 파도칩니다

그래서 병사는 더더욱 기다린 오늘입니다

산천초목도 기쁨에 춤 추는 강산

돌아 오신 장군님 꽃속에 모시고 싶어

대홍단 삼천리엔 감자꽃도 삼천리

우리 장군님 향기속에 모시고 싶어

백리파원엔 향기도 백리에 넘쳐 납니다

온 나라가 엮어 가는

송이송이 그리움의 꽃다발속엔

불 밝은 산원의 창가에서

행복에 겨워 웃는 삼태자어머니도 있습니다

석탄산 높이 쌓은 탄부들의 숨결도 있습니다

8월의 따가운 해별아래 이삭을 익히며

기쁨속에 속삭이는 농민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쌓이고 쌓인 그리움이

화산처럼 분출하는 땅

한없이 열렬한 그 뜨거움이

병사의 총창우에 담겨 저 있어

더 밝아 지고

더 억세여 지고

더 무거워 진 나의 조국

기쁘게 받으십시오

총대로 안아 올린 아름다운 이 강산

총대로 가꾼 조국의 아름다운 모습

아버지가 집을 떠나 먼 길을 갈 때

만자식에게 집을 맡기듯이

병사의 어깨우에 맡긴 인민의 집

백두산총대우에 맡긴 사회주의집

이 집을 지킨 자랑스런 하여

병사는 긍지로 가슴 부풀게 아닙니까

아 이것이

장군님께 드리고 싶었던

병사의 꽃다발입니다

병사가 드리는 축하의 인사입니다

평범한 일과

백하

언제나 일과는 조용히 시작되었다
아직은 그 어떤 기록도 새겨 지지 않은
일력장의 빈 공백과 함께
하루일과는 레사로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일력장을 넘길 때
위대한 장군님의 그 일과는
너무도 놀랍고 크나큰 자욱
신화 같은 전설과 끝 없는 경탄으로
쉬이 넘길수 없었다

리진하장령은 오늘도
일력장을 두장이나
선뜻 넘기지 못하고 있다
얼마나 벅찬 격동과 충격의
눈물겨운련속이었던가
위대한 장군님의
초도방문과 판문점시찰!
시대를 격동시키고 세계를 경악케 한
력사의 이 두 사변이 어떻게
이틀어간에 서로 이어 졌던가?

하나의 전투도 치르고나면
다시 전호를 굴설해야 한다
치열한 전쟁에도 휴전이 있고
사나운 폭풍도 쉬었다 간다
하나 기관총의 연발사격처럼
서로 이어 진 이 특대사변들!
두장의 일력장을 전체
리진하장령은 아직도
그 걱정 of 소용돌이에 휘말려
황홀하게 더듬고 있다
다시 그 순간순간들을...

1

너무도 레사로운 날이었다
달력엔 류다른 표식도 없다
기상예보도
바람은 초당 5미터
하나 돌연 심술궂은 날씨가
모든걸 뒤집어 왔다

수평선엔 시커먼 구름이 덮여 오며
비방울이 후두둑 꽃히더니
폭풍이 터졌다
삽시에 온 바다엔 산물결이 곤두서서
쏟아 진다, 금시 갑판을 깨버릴듯

패속정엔 해병들 바빠 뛰는데
리진하장령의 얼굴은
더욱 컴컴한 낮색
아, 이 일을 어찌하는가?

하나 위대한 장군님 벌써
수행원들과 담소를 나누시며
나오시였다
뽕양게 물갈기 날리는 부두가에

서둘러 다가간 리진하장령
《장군님
바다상태가 너무 험악해 저서
오늘 초도엔 못 가지겠습니다.》
《그럼 일과를 바꾸자는겁니까?》
《바람이 초당 20미터입니다.
저 작은 배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머리우엔 하얗게 설레이는
갈매기무리의 날개소리
장군님 바다를 내다보신다
파도의 갈기를 아찔하니 일구어
창-창- 부두를 들부서대며
소란스레 뚫어 번지는 바다

하나 장군님은 오히려
은근히 심취되신듯
탄성을 터치신다
《바다가 장관입니다.
정말 볼만 합니다.》
그리고 수행원들 돌아 보시며
유쾌하신 어조
《자, 또 떠나봅시다.
우리가 언제
순풍에 돛 달고 다닌적이 있습니까.》

배에 오르셨다
수행원들 이끄시고
그러자 배전엔 솟구치는 물기둥
불시에 요동치는 선체
아, 정녕 장군님
비 내리는 철령을 넘어
뒤엎힌 가시철망사이
아슬아슬한 민경초소길을 지나
351고지의 험한 파편밭을 지나
가고 가시는 전선길

그 언제 한번 순풍에 돛 단적 있었던가

전방감시소에서 전호가로
전호가에서 다시 깎아 지른 벼랑길로
날과 날을 이어 가시는
장군님의 일과
너무도 가슴 저린 일과
허나 이제는 관습이 된
너무도 평범한 일과
장군님의 선군장정

장군님 이 아침도 선수갑판에서
찬 물갈기를 맞으시며
거연히 옷자락을 날리시는데
가슴 타는 인민의 그 마음인가
군함의 확성기에선 노래소리 노래소리
-장군님, 장군님
찬 눈길 걷지 마시라
두드린다, 가슴벽을 세차게 세차게

그 노래를 안고 일떠섰는가
리진하장령과 군관들
장군님을 둘러 싸고
그대로 방파제가 되었다
팔과 팔을 끼고 덮쳐 드는 파도를 막으며
흠뻑 물에 젖어
일어 섰다, 격랑우에 조각상같이
장군님과 수행원들 한덩어리가 되어
하늘가에 솟은 이 눈물겨운 화폭

찰나 내리꽃은 산파도
무섭게 뒤흔들리는 갑판

《안되었습니다. 장군님
이제라도 돌아 서 주십시오.
초도는 아직도 까마득합니다.》
간절히 아뢰이는 수원들을 바라보시며
밝게 웃으시는 장군님
《어디 가서
이런 파도를 맞아 보겠소.
이런 날씨를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리진하는 더욱 아연한 얼굴
애 뿜는 두눈에 번쩍이는것은
눈물인가, 바다물인가
《장군님, 부디
저희들 요구를 들어 주십시오.
이 풍랑속에 장군님을 모신걸
후에 인민들이 알면
우리를 군사재판에 회부할겁니다.》
폭소가 터졌다

장군님 호탕하게 웃으신다
그 파동에 온 바다가 들썩-들썩-
통채로 뒤채인다
장군님 리진하장령의 팔을 쥐시었다
《진하동무,
수령님께서 저 초도를
불패의 전함으로 만들라신거야
동무도 잘 알고 있지 않소.
수령님께서 몇번 기회를 보시다가
종시 초도에 못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초도에 들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바다가
말을 들어 줄니까.
하루만이라도 미루어 주십시오.》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한번 떠난 길에서는
지뢰밭이라도 밟고 나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한발자국이라도 벗어 나면
절대로 안됩니다.》
소리치는 격랑을 등지고
장군님의 근엄하신 눈빛
준절하신 그 선고를 걸어 안고
물기둥이 하늘천정을 치받는다
물사태가 무너져 내린다

수령님 바라시는 그 길로
장군님 자욱 굳게 이어 지고
태양의 력사는 다시 힘차게 흐르나니
바다여, 바다여, 말해 다오
수령영생위업은 무엇인가?
말해 다오 그 참뜻은
아, 그 위업은
사나운 풍랑 넘어 있던가
그 누구도 대신 못할 그 위업이
그리도 험난하고 그리도 준엄한
사선의 언덕을 넘어야만 했던가
장군님의 이 헌신, 이 의지를
력사에 새기라 누리에 새기라

마침내
물새소리만 외롭던 초도의 기슭에
터졌다 《총폭탄!》, 《결사옹위!》
환호의 함성사태가
목 메인 섬이 처음 터친 말도
《장군님, 이 험한 날씨에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 오셨습니까.》

섬은 온통 감격과 걱정의 불도가니
격동에 젖은 부대장의 전투정황보고도
교사포진지의 화력복무훈련

구령소리도 장탄소리도 희열 또 희열
 섬에도 굵이굵이 마지막 한끝
 해안포중대의 나어린 포장은
 꿈같이 오신 장군님앞에
 그 짧은 보고도 다 못하고
 눈물만 쏟았다 목이 짝 잡겨서

오, 초도에 장군님 오셨다
 하늘의 검은 장막도 활 걷어 내셨는가
 쏟아 지는 해빛, 해빛속에
 위대한 장군님을 복판에 모시고
 미더운 초병들이 찍은 기념사진
 천만년 전해 갈 불멸의 기념사진
 보는가 바다여, 조국이어
 아, 태양과 위성들의
 억년 드물지 않을
 이 혼연일체의 모습
 조국의 관문에 그대로
 가라앉지 않는 전함이 되어
 망망대해우에
 장엄하게 솟아 올랐어라!

2

이날 다시
 물에 오른 리진하장령은
 열결에 돌아 봤다 뒤척이는 바다를
 한잎 가랑잎 같은 작은 배가
 어떻게 그 폭풍조난구역을
 뚫고 넘을수 있었던가
 그 순간 가슴에 앓은 재가
 아직도 아리고 무거웠다
 그의 생각은 오직 하나
 장군님의 그 모진 피로를
 한시바삐 풀어 드릴 굳은 결심

하지만 가실 길 없는 불안
 래일의 일파를 두고
 알길없이 다시 조여 드는 마음
 숙소에 이르신 장군님
 부르시였다, 리진하장령을
 허나 쾌활하신 표정
 《오늘 수고했습니다.
 나를 따라 다니기가 험치 않습니다.》
 룡담이라도 하실듯

그러나 나직이 이으시는 말씀
 《래일 아침엔
 좀 더 일찍 떠나야겠습니다.》
 《네? 그럼 또...》
 《래일은 관문점으로 갑시다.》
 망연히 입을 벌린채
 그는 제 귀만 의심했다

무서운 풍랑속에서 벗어 나
 금시 땅을 밟았는데
 더 위태로운 험지에 가시다니
 그곳이 어디라고?
 실오리 같은 중앙선을 사이 두고
 총부리와 총부리가 맞선 곳
 무시로 도끼가 날아 들고 총탄이 날던
 그 위험구역에 어찌
 장군님을 모실수 있으랴

리진하장령은 단호한 한마디
 《다른데는 다 가시더라도
 관문점만은 못 가십니다.》
 땀속해 진 얼굴에선 찬 기운을 뿜는듯
 그 무엇도 범접 못할 기상
 장군님 빙그레 웃으신다
 《가장 힘든 초소를 맡은 동무들이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데보다
 그곳을 먼저 가봐야 합니다.
 일 없습니다.
 나야 빨찌산의 아들이 아니요.
 나는 백두산에서부터
 그 생활에 습관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마치도 사정을 하시듯

순간 리진하장령은
 불시에 눈앞이 흐려 저 얼굴을 돌리였다
 아, 장군님
 잠을 드시여도 침대를 잊은
 야전차안의 쪽잠
 식사를 드시여도 식탁을 모르는
 한장 보자기우의 췌기밥
 현지시찰도 온 한해
 사나운 눈비속에 풍찬로숙

항일투사들도 이제는
 행전을 다 풀었건만
 오늘도 빨찌산생활을 이어 가시는
 백두산의 아들 **김정일** 장군님

이 강산 풍상고초를
 스스로 한몸에 다 받아 안으시고
 가고 가시는 그 길에
 한가닥 찬 바람도 다 막아 드리고
 한방울 찬 이슬도 다 가려 드려야 하거니
 어찌 가슴 무너졌는 태풍권안에
 장군님을 모실수 있으랴
 더욱 단호해 진 리진하장령
 돌연 허리에서 권총을 꺼내
 탁자우에 내놓았다

위대한 수령님 친히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수여하신
《백두산》 선물권총

너무도 뜻밖의 일에
장군님 놀라시듯
《이건 어찌자는겁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생전에 마지막으로
장군님을 잘 보위하라고
이 권총을 주시었는데
이 권총을 차고 제가 어떻게
장군님을 그 험지에 모십니까?
못합니다. 그렇겐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입니다.》

셀레이는 대지가 말했다
푸르른 산숲이 말했다
온 강토가 절절한 념원을 담아
엄숙하게 말하고 있었다
아, 더는 어쩔수 없으신가
조용히 일어 나 방안을 거니신다
들리는듯 마는듯 혼자소린듯
나직이 울리는 갈리신 음성

《저 판문점에
수령님의 친필비를 모신 날부터
나는 잠을 청하지 못합니다.
글자는 아홉자밖에 안되지만
그속에는
조국통일을 위해 바치신
수령님의 한생이 다 담겨 저 있습니다.
판문점의 친필비는
그대로 수령님이십니다.

가시기 마지막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신
그 통일문건을 그대로 쥐신채
지금도 저 바람 부는 판문점구내에
수령님께서 서계시는것만 같습니다.
나는 전선길을 가다가도
수령님이 그리우면 그쪽을 바라봅니다.
나는 수령님이 너무도 보고 싶어서
판문점에 가려고 합니다.
어서 가서... 수령님의 뜻대로
조국통일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합니다.》

강산이 듣고 있었다
고요한 저녁이, 조용히 퍼지는 노을이
뜨거움에 젖어 듣고 있었다
순간 얼굴을 추켜 든 리진하장령

두눈에선 건잡을수 없이 쏟아 졌다
후덥고도 진한것이 멈출줄 모르고

그리움을 어찌 막을수 있으랴
조수처럼 밀려 드는 그리움을
그 어떤 힘이 막을수 있으랴
아버이수령님을 부르며 찾으며
뜨거이 내닫는 그리움의 바다를

다음날
불과 불의 대결장
판문점의 트랙 한복판에
홀연 장군님 나타나셨다
태연히 수행원들 데리시고
허나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
알지조차 못했다 중앙선너머에서는

하늘이 낸분이어서
자연도 계절을 뒤바꾸었는가
서리찬 초겨울에 자욱히
때 아닌 흰 안개 구름같이 피어
삼가 그이 두리에 흰 장막을 둘렀다
안개 흐른다
몽실몽실 안개바다 흐른다
고요한 아침
수령님의 존함이 온 하늘을 가린
판문점 친필비앞에
조용히 서신 장군님
그립고 그리운 수령님을 뵈온듯
눈가엔 함뻑 넘치는 정

들려 오셨다
잊을수 없는 그날
장군님의 의견을 물으시며
전화기가 터질듯
청청 울리던 수령님의 그 음성
《그럼 그대로 활동하겠소.》
울려 온다 그 음성, 그 숨소리
판문점구내를 드릉드릉 흔든다
《그럼 그대로 활동하겠소.》
메아리친다 수령님의 그 활동선언
조국분렬의 지점우에 거연히
7월 7일이 일어 섰다

안개바다 파도친다
수령님의 그 통일의지를 안고
장군님 판문각 높은 로대우에서
말씀하셨다 남녘산야를 굽어 보시며
《판문점은 분렬의 상징이 아닙니다.
판문점은 통일의 상징입니다.》
뜻이 바뀌어 졌다 판문점의 그 뜻이
판문점의 새 력사가 열리었다

안개바다 파도친다
 그 자욱한 안개구름 타시고
 장군님 정전담판 회의장도
 정전협정조인장도 다 돌아 보시고
 적들의 숨소리 들리는 중앙선앞에서
 판문점 초병들의
 번개치는 훈련모습도 다 보아 주시고

품어 주셨다
 한마디 환호성도 터치지 못하고
 걱정의 흐느낌도 애 써 삼키고 선
 그 미더운 가슴팍들을
 안아 주고 쓸어 주고 쓰다듬으시며
 영광의 기념사진도 다 찍어 주시고

떠나셨다 유유히
 소리없이 자취없이 떠나가셨다

아 세계를 경악케 한
 장군님의 판문점시찰!
 온 세상을 뒤흔든 현대의 특대사!
 -백두산호랑이 구름을 타고
 판문점에 나타났다!
 적들은 금시 발밑에서 불이 터질듯
 파랗게 질려 떨고 있었다
 《유일초대국》이
 공포의 나락에서 사색이 되었다

불 같은 날과 날이 흘렀다
 장군님의 멸적의 일과가 흘렀다
 초도의 물갈기에 젖은 옷자락
 그대로 판문각로대에 날리시며
 신출귀몰하는 백두장군의
 전설 같은 혁명일화가 이어 졌다

×

리진하장령은
 크나큰 흥분속에
 일력장들을 넘기였다

력사에 길이 전할
 천출명장의 혁명실록이
 조국청사에 또 한페지
 뜨거이 새겨 졌다

날과 날을 이어
 끝없이 소문없이 흐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일과
 천지를 들부시는 폭풍우뢰의 길을
 봄날의 들길로 바꾸어 놓으시며
 첩첩 막아 선 난국의 절벽을
 가벼운 웃음으로 날려 보내시는
 위대한 령장의 일과
 우주를 뒤흔들고 지구를 움직이는
 가장 무서운 퇴성벽력의 일과
 가장 거센 선군폭풍의 그 일과가
 위대한 장군님겐
 너무도 레사롭고 범상한
 평범한 일과이거니

장군님의 조용한 시선
 한번 스치여도
 멸적의 퇴성이 터지고
 장군님의 범상한 걸음
 한번 옮겨도
 지구가 움썹 혁명의 폭풍이 이나니

리진하장령은
 거연히 가슴 펴고 무섭게
 원썬놈들을 굽어 선고하여라
 《전를하라! 전를하라!
 제국주의 떨거지들아
 보느냐?
 이 지구우에서 침략과 전쟁의
 피 흐르는 날과 날을 영원히 없애기 위해
 백두령장의 정의의 일과가 흐른다
 네놈들의 마지막숨통을 끊을
 백전백승의 일과
 천출명장 **김정일**장군
 불멸의 선군력사가 흐른다!》

수령님 추억속에 (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무를 민족의 령도자로 키운것은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의 투사들이 그를 향도성으로 내세워 주었으며 백두산의 정기가 그의 기개로 되였습니다.

우리 혁명의 대가 군건한것은 **김정일**동무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나서 자란 민족의 령수이기때문입니다. 그는 만민의 지지와 총애를 받는 인민의 령도자입니다.

빨찌산의 아들로 태어나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속에서 수령의 후계자가 되고 민족의 령도자가 된 **김정일**동무의 위업은 앞으로도 필승불패할것입니다.》

소백수가에서

최용호

눈보라가 휘몰아 친다.

우- 우- 사납게 태질하며 폭풍치듯 노호하는 눈보라, 백두의 눈보라...

길 량옆에 뺨꼭하니 들어 찬 울울창창한 원시림, 아득한 천리수해가 세차게 설레인다. 두렵게 쌓여 무겁게 짓누르던 눈을 털어 버리며 몸부림치듯 설레는 아름다드리거목들, 눈사태가 인듯 쏟아져 내리는 눈가루들... 강대 넘어가는 소리가 메아리친다.

저 하늘끝까지 무언한 공간을 꼭 메우고 이리저리 훑날리는 눈가루로 하여 은빛장막이 앞을 가린듯 한치앞도 분간하기 어렵다.

무릎까지 폭폭 빠져 드는 눈길, 눈을 뜰수 없게 사납게 몰아 치는 눈보라, 웃은 온통 눈범벅이 되고 한 걸음도 내짚기 힘들 정도이다. 세찬 맞바람에 숨 쉬기조차 가쁘다.

당장 그 자리에 주저앉고만 싶어 진다.

하지만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이 눈보라가 어떤 눈보라인가.

일제의 학정밀에서 도란에 빠져 신음하는 우리 조국, 오로지 백두산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 우리 겨레의 운명을 구원하 시켜 우리 수령님 걸으신 길, 항일의 선렬들이 만만시련을 이겨 내며 헤쳐 나간 그 눈보라 아니 던가.

나약해 지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힘을 내어 걸음을 다그친다.

눈보라야, 더 세차게 불어 다오.

내 마음 채찍질해 주고 내 발걸음 떠밀어 다 오.

백두밀영고향집을 찾아 가는 길,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깨우쳐 주려고 눈보라도 이렇듯 세찬것인가. 눈보라는 세차도 마음속은 후덥게 달아 오른다.

발걸음에 앞서 마음이 먼저 달려 가는 이 길...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듯 눈보라치는 날에 백두밀영고향집을 찾아 가니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지고 마음도 더욱 숭엄해 진다.

저기 답사대오의 앞에서 붉은기가 휘날린다.

세차게 몰아 치는 눈보라속에서 힘차게 나뭇기는 붉은기, 그 붉은 색조가 뽀얀 눈보라속에서 더욱 선명히 안겨 온다.

산굽이를 돌아 드는데 누군가 환희에 찬 목소리로 웨쳤다.

《정일봉이 보인다!》

정일봉, 정일봉이다. 대오가 설레었다.

정일봉!

하늘을 떠받드는 기둥인가 창공에 거연히 솟은 정일봉의 웅장한 자태가 세찬 눈보라속에 우뚝이 안겨온다. 뽀얗게 날리는 눈안개속에 숭엄히 안겨 오는 불멸의 글발-《정일봉》.

이 땅의 모든것을 날려 보낼듯 사납게 울부짖으며 노호하는 광풍속에서도 이 나라의 미래를 지켜 선 수호신마냥 끄떡없이 하늘가에 서 있는 억센 메부리, 그 장엄한 기상.

천하를 굽어 보며 터치는 장군의 웃음발인양 눈발을 날리며 서있는 정일봉의 억세인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산악이 들어 앉은듯 마음은 든든해지고 새 힘이 샘 솟는다.

어서 가자, 정일봉이 우리를 부른다, 우리를 기다린다-

더욱더 걸음을 다그치며 눈보라속을 뚫고 나가 는 답사대오.

어느덧 대오는 소백수골안에 들어 섰다.

힘준한 산봉우리들에 둘러 싸여서인지 기승을 부리던 눈보라도 한결 속어 든듯 싶다.

골안을 꼭 메운 아름다드리거목들, 태고의 원시림속을 꿰질러 흐르는 소백수...

나는 소백수가 구호나무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아 조선아 백두성탄생을 알린다》고 항일의 선렬들이 그날에 터쳐 올린 환호성을 새겨 안고 력사의 증견자로 오늘도 서 있는 구호나무.

구호나무옆을 흐르는 소백수물소리가 유정하게 내 마음속에 젖어 든다.

정든 고향집앓을 감돌아 흐르는 시내물소리처럼 정답게 안겨 오는 소백수물소리.

사납게 몰아 치며 골안을 뒤흔드는 눈보라소리속에서 속삭이듯 울리는 소백수물소리에 생각을 엮으니 가슴이 마냥 뜨거워 진다.

소백수.

력사의 그날에 올린 백두광명성탄생의 환호성을 너는 들었으리라.

그 환호성을 온 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에 한시바삐 전하고자 두터운 얼음장을 박차고 부시고 떠밀며 용용히 굽이치며 흘렀으리.

그 흐름 식민지노예의 멍에아래서 한숨속에 죽어가던 겨레의 가슴속에 거세찬 투쟁의 격랑을 일으켜 주었고.

그 흐름 찢기고 멎들고 일어 들었던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재생의 봄온기를 안겨 주었거니.

력사의 환호성을 전하여 주며 오늘도 즐기치게

흐르는 소백수...
저쪽에서 답사대원들이 주고 받는 말소리가 들려 왔다.

《아이, 정말 신기해. 이렇게 눈속에서도 얼지 않고 흐르는구만요.》

《정말.》
랑랑히 울리는 처녀들의 목소리, 손뼉을 치며 어쩔줄 몰라 한다.

청년의 굵직한 목소리가 받는다.
《그건 이 소백수가 저 백두산천지에 시원을 두고 백두밀영고향집을 감돌아 흐르기때문이요.》

그 말을 듣는 나의 생각은 깊어 졌다. 키를 넘게 쌓인 장설속에서도 박달나무도 찢찢 얼어 터지는 한겨울의 강추위속에서도 기운차게 흐르는 소백수.

겨울이 오면 물이 어는것은 자연의 리치이다.
폭이 넓고 깊이가 깊은 큰 강들도 겨울이 오고 추위가 심해 지면 얼어 붙고 만다. 그것은 어디 서나 볼수 있는 자연현상인것이다.

하다면 소백수는 어이하여 북방의 원시림, 키를 넘게 쌓인 눈속을 흐르면서도 얼지 않고 신비경을 펼치는것인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천지에 그 시원을 두고 태양의 성지 백두밀영고향집을 감돌아 흐르는 소백수.

그 즐기찬 흐름에는 조국과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며 혁명을 위해,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오신 백두산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력사가 어려 있거늘.

내가 못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못하면 손자가 해서라도 짓밟혀 신음하는 조국산천에 기어이 해방의 새봄을 안아 와야 한다는 아버님의 《지원》의 뜻을 이어 피어린 혈전만리를 헤쳐 오신 백두산청년장군 장군님.

수령결사옹위의 총성을 눈 덮인 백두광야에 울리시며 혁명의 운명, 조국의 운명을 한몸으로 지켜 싸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백두의 담력과 기상을 세상에 펼치시며 강성대

국건설의 진두에 서시여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시는 백두산빨찌산의 위대한 아들 **김정일**장군님.

정녕 소백수는 백두산가문 위인들의 애국, 애민, 애족의 뜨거운 열기를 담아 싣고 흐르기에 한겨울의 강추위속에서도 저렇듯 즐기차게 굽이 치며 흐르는것 아니랴.

그 폭은 넓지 않고 그 흐름은 세차지 않아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태양의 열기를 안겨 주고 거세찬 혁명의 격랑을 일으켜 주며 대하마냥 조국강산을 굽이쳐 흐르는 소백수.

그 흐름 가닿는 곳마다에서는 창조와 건설의 불길이 치솟고 전변의 기적이 일어 나거늘.

새 세기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어 가는 백두산지구,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그 모습 일신해 가는 온 나라 농장벌들, 가는 곳마다에 일떠서는 현대화된 새 공장들, 온 나라에 차넘치는 강성대국건설의 세찬 열풍...

인적 드문 원시림속을 흐르지만 조선을 안고 흐르는 소백수 맑은 물,

그 즐기찬 흐름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 영원하리, 태양이 영원하듯이-

눈보라가 몰아 친다. 태고의 원시림이 몸부림 치며 설레인다.

어깨우로 폭포처럼 쏟아 저 내리는 눈가루, 그 상쾌함...

나는 고개를 들어 설레이는 밀림의 바다우에서 있는 정일봉을 우러러 보았다.

눈가루를 휘말아 울리며 사납게 태질하는 눈보라속에 거연히 솟아 있는 정일봉.

그 장엄한 기상은 력사의 광풍을 맞받아 쳐갈 기며 새 세기를 이끌어 나가시는 위대한 백두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담력과 기상 그대로이다.

백두산의 무게, 조선의 무게를 더해 주며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 그 위용을 펼치는 조선의 제일봉, 세계의 제일봉-

나는 심장이 뜨겁게 달아 오르는것을 느끼며 백두밀영고향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사

고향집설경

박상민

정일봉 수림우에 하얀 눈이불
고향집 프락가엔 하얀 서리꽃
하늘나라 선물인가 2월의 설경
어머님의 품입니다 사랑의 세계

따사론 해빛이 흘러 내리는
처마끝에 고드름 물방울소리

봄이 오는 소리인가 눈 부신 설경
어머님의 품입니다 정다운 세계

순결한 눈향기에 미래를 안고
눈속의 봄향기에 조선을 안고
광명성이 솟아 오른 고향집설경
어머님의 품입니다 환희의 세계

시대의 명작과 작가의 기교 (1)

김성우

태양은 순간에 자기의 빛과 열로 온 우주를 가득 채운다. 그 찬란한 해발과 그 뜨거운 숨결과 그 격렬한 기상을 손색없이 그려 내자면 우리 작가들의 붓대는 너무도 작고 가벼운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군혁명문학은 그러한 거장의 붓대를 버리어 냈다. 절세의 위인이 백두의 용암에 잠겨 버리어 낸 주체의 《붓대포》로 우리 작가들은 선군시대의 하늘높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힘찬 수령형상문학의 줄기찬 축포를 쏘아 올렸다.

그 무수한 시대의 명작들을 읽으며 우리는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일찌기 사회주의 문학이 첫 걸음을 떤던 그 시기에 청소한 로동계급의 혁명문학을 두고 《얼은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것은 예술》이라고 소란스레 떠들던 부르조아 문예평론가들의 악의에 찬 비방은 거품처럼 사라졌다.

인류가 낳은 절세위인들의 형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감명 깊게 그려 냄으로써 우리 작가들은 주체문학이야말로 사상성은 물론 예술성에 있어서도 인류문학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대표한다는것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가장 위대한 인간을 손색없이 그려 낸 문학은 가장 아름다운 법이다.

1. 산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다

-장편소설 《고요한 행성》-

만일 작가에게 독자들에게서 받고 싶은 최대의 찬사가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물론 사람나름이겠지만 인간정신의 기사인 우리 작가들은 독자들이 자기의 작품에서 산 인간을 보고 산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제일 만족해할것이다.

작가의 기교에서 응당 첫 손가락에 꼽아야 할것은 형상의 중심에 놓인 인간을 현실에서와 같이 숨 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산 인간으로 그려 놓는 솜씨이다. 위인의 형상을 창조하는 경우 그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개인이 아니다. 그런데 문학에서는 추상적인 인간을 그리는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을 그려야 하는것만큼 로동계급의 수령을 추상적인 존재로 그려서는 안된다.》

수령을 구체적인 인물로 그리면서도 개인으로

형상하지 말아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은 수령형상문학의 고유한 생리를 규정한다. 어떻게 하면 수령을 추상적으로 절대화하여 그리지 않고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동한 인물로 그리면서도 수령의 풍격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여 주겠는가? 이렇게 문제가 선다.

소설가 박운은 선군시대소설문단의 화원에 또 하나의 명작으로 창작되어 독자들속에서 광범히 읽히우고 있는 장편소설 《고요한 행성》에서 이에 대한 훌륭한 대답을 주고 있다.

령장의 초상

어느 이름난 작가가 이렇게 말한바 있다.

제일 좋은 묘사는 묘사를 하지 않는것이다. 어딘가 좀 교만이 느껴 지는 역설적인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을 작가의 붓대로써는 미칠수 없는 그러한 높이의 숭고한 대상과 련관시켜 보면 어느 정도의 리해를 가질수 있다. 과연 태양을 그대로 방불히 묘사할수있는가. 과연 그 어느 예술가의 붓이 저 태양의 강렬한 빛과 열을 그대로 발산하는 그런 안료를 찍어 본적이 있는가. 우리는 다만 그 태양을 바라보는 인간의 느낌만을 그릴수 있고 그 빛발을 받아 안은 우주의 광채를 그릴수 있다. 그리고 그 태양이 이 땅우에 가져다 준 그 생명의 호흡과 신비로운 창조의 물동만을 그릴수 있다. 허나 어쨌든 그것은 태양을 그린것이다.

작가 박운은 자기의 소설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모습을 보통 작가들이 늘 써오는 초상묘사의 수법으로 직접 그리려고 하지 않았다. 다시말하여 위인의 초상을 그리되 일정한 대목에서 집중적으로 조형적으로 소묘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위인을 외형적으로 특징 짓는 직접적인 묘사는 거의 없다. 다만 허담, 유창민 등 측근인물들의 시점에서 위인을 우러르는 그의 느낌과 인상을 생활의 여러 계기마다에서 간결하게 그려 주고 있다. 인물들의 심리에 굴절된 단편적인 그 느낌과 인상들이 독자의 상상속에서 하나로 종합되면서 산 인간의 형상으로 선명하게 재현되는것이다.

《...땃땃한 언덕기슭의 숲은 연보라빛운무에 싸여 뿌연게 보이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눈길우에 두필의 말이 불쑥 나타나 쏜살같이 달려 오고 있었다. 앞선 청부루는 류달리 날렵하고 탄력 있는 자세로 힘차게 네굽을 놓고 있었고 뒤에 선 재빛말은 힘겹게 겨우 따라 오고 있었다.

말은 뽀얀 눈보라를 일으키며 순식간에 허담일
 행앞에 이르러 뒤발로 일어 서서 성급하게 투레
 질을 하였다. 평범한 옷을 입으신 **김정일** 동지
 께서는 갈개는 말을 진정시키며 미소어린 눈길로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었다. 그이의 몸에서 뿜어
 나오는 열기로 갑자기 주위가 더워 지는것 같아
 허담은 대변에 어리둥절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소설에서 이렇게 우
 리 독자들앞에 처음 등장하신다.

지금 그이께서 타고 계신 말은 사납기로 소문
 난 《알프스》이다. 최고급의 마술사도 석달은 피
 땀을 들여야 올라 탈수 있다는 말. 지금 세살이
 지만 벌써 네사람의 육체를 불구로 만들었다는
 청부루이다.

뒤발로 일어 서서 성급하게 투레질을 하는 사
 나운 청부루우에서 미소를 지으시고 사람들을 내
 려다 보시는 장군님... 그저 그뿐이고 구체적인
 초상묘사는 없다. 그뒤에 다만 《그이의 몸에서
 뿜어 나오는 열기로 갑자기 주위가 더워 지는것
 같아 허담은 대변에 어리둥절하였다.》는 허담의
 느낌과 인상이 그려졌을뿐이다.

한손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시며 유쾌하게 웃으
 시는 장군님의 첫 말씀은 어떠한가.

《이놈의 말이 대단히 훌륭스럽습니다. 자존심
 이 보통이 아닙니다. 사람들앞에 나서게 되니 또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이께서 고삐를 조여 채시자 말은 금시 순
 중하며 조용해 진다.

《멀리서 보니 남일동무는 말경력표에서 본 이
 <알프스>의 주인이었다는 프랑스공작을 련상시킵
 니다. 지금도 서방외교관들과 맞서면 파히 인격
 부터 떨어 지지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뒤따라 말 타고 온 최현을 향해 《서
 돌러 다가가시여》 말에서 내리는것을 거들어 주
 신다.

얼마나 생동한가, 얼마나 인상적인가, 또 얼마
 나 뜻 깊은가.

작가는 이 짧은 한페이지의 묘사를 통해 우리 장
 군님의 개성적인 성격적특징을 대변에 다 그려
 주었다. 여기에는 눈보라와 드세찬 말을 좋아 하
 시는 백두산남아다운 그이의 호방한 기질과 취미
 가 있고 품위있는 해학으로 순간에 사람들의 마
 음속에 쏙고 들어가는 소탈하고도 세련된 지성미
 가 있으며 모든 말씀과 행동이 서두르는듯 활달
 하고 현현하신 성미가 있고 선배들을 존경하고
 따뜻이 돌보는 겸허하고 섬세한 인간성이 있다.

이 대목은 깊은 상징적의미를 안고 안겨 오기
 도 한다. 여기에는 유엔총회 제30차회의를 계기
 로 땅바닥에 떨어 진 제놈들의 체면을 어떻게 하
 나 회복해보려고 오만하게 날뛰는 미제의 우두머
 리 포드를 훌륭스럽고 자존심 많고 갈겅질 세찬
 《알프스》처럼 자신만만하게 다스리시며 강철의

방패로 전쟁의 불구름을 막고 인류의 평화를 수
 호하시는 천출명장의 기상과 담력이 어려 있는것
 이다.

보다싶이 작가는 위인의 초상묘사를 따로 하지
 않고도 생활속에서 인간성격이 표현되는 성격적
 세부들 섬세하게 파고 들면서 위인을 목격하는
 인물들의 체험, 인상을 통해 성격을 특징 짓고
 있다.

위인의 성격은 무한대한 대양처럼 그 폭과 깊
 이를 가늠하기 어려운것이다. 우리 작가들이 아
 무리 거인적인 안목과 뛰여 난 기교를 지녔다 하
 더라도 그 바다의 깊이를 다 투시해 볼수 없으며
 그 광활한 폭을 다 시야에 담을수 없다. 어쨌든
 우리는 그 바다의 한 기슭에 서 있는것이다. 그
 령다고 하여 해저의 밑창까지 다 훑어 보고 수평
 선너머를 다 넘어 가보아야 대양의 전모를 알수
 있는것이 아니다. 작가는 그 바다의 기슭에 서서
 도 바위를 들이받고 솟구치는 세찬 파도의 비말
 을 맞으며 해변가의 보드라운 모래를 정성껏 일
 고 이는 맑은 물결의 출렁임과 그 정다운 노래를
 들으며 바다가 지닌 그 거창한 힘과 열정, 그
 풍요한 재부와 다식한 정서, 그 찬연한 광채와
 천변만화의미를 느낄수 있다.

작가 박운은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그 기슭에
 함께 서 있는 자기의 등장인물들과 함께 무시로
 안저 드는 그 체험과 느낌의 한가닥한가닥을 그
 미세한 음영과 파동도 놓치지 않으면서 침착히
 전달하고 있다.

생활은 계속 흐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숲
 속을 거니실 때 광풍이 터졌다.

그러나 오히려 다감한 표정으로 눈보라가 배회
 하는 하늘을 올려다 보시며 자신께서는 이런 사
 나운 날씨를 좋아 한다고, 이런 눈보라와 바람이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늘 백두산이 그림다고
 말씀하시는 그이를 우리르며 허담은 또 어떤 느
 낌을 받는것인가.

《아름다움과 역셈이 신비하게 조화를 이룬 그
 이의 범상치 않은 얼굴에는 랑만과 리지로운 사
 색이 한껏 비졌는데 예지로 빛나는 그 눈길이 섬
 광마냥 번뜩일때마다 주위는 갑자기 태양의 빛을
 받았을 때처럼 모든 자연적인 세부가 더욱 선명
 히 형체를 드러내는것 같았다.》

광풍... 다감한 표정, 섬광마냥 번뜩이는 눈길,
 그 눈길의 빛을 받아 더욱 선명히 드러나는 자연
 적인 세부... 참으로 아름다움과 역셈의 신비로운
 조화이다!

작가는 이 신비론 령장의 모습을 부정인물의
 시점에서도 그려주었다.

영국의 부르조아군사평론가인 로베르 《백작》이
 판문점에서 그이를 처음 뵈우고 너무도 강한 충
 격을 받는 대목이 그러하다.

로베르는 회의실안에 낮 선 장령들과 함께 수

수한 옷차림을 한 일군이 나타났을 때 무심한 눈길을 듣다가 그이의 눈길과 부딪쳤다.

《순간 로베르는 마치 강렬한 태양빛을 마주했을 때처럼 눈앞이 아찔해 지는것을 느꼈다. 아니, 그것은 빛이 아니었다. 이름할수 없는 신비하고 류다른 그 무엇이 상대방으로부터 뿜어 나오며 자기의 온 몸을 갑자기 무장해제시키는것이다. 심장의 박동이 별안간 높아지고 머리속이 울리면서 몸을 지탱할수 없었다.··· 이 신비로운 충격은 그의 심장이 견디지 못하였다.》

이것은 말 그대로 신비인가? 한번의 눈길로 상대방의 심장을 틀어 잡는 그 강렬한 눈빛! 과연 정신에너르기의 흐름이 실지로 존재한단 말인가? 여기에는 분명 새로운것이 있다.

장군님의 초상은 우리가 매일같이 우러르는 친근한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렇다. 작품의 묘사에는 작가가 새롭게 발견한 몫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위대한 생명이다! 우리가 잘 알면서도 다 알지 못했던 그 생명의 거대한 호흡이며 빛이며 열이며 노래이다! 작가는 그 누구보다도 위인의 숭고한 자태에서 맥박치는 산 심장의 고동소리를 더 크게, 더 민감히 들었던것이며 그것이 주위사람들에게, 지어는 무심한 자연에까지 나누어 주는 생명의 박동, 향기, 빛발을 우리보다 더 예민하게 감수하고 있었던것이다. 작가는 그것을 독자들이 실지로 체감할수 있게 하고저 하였다. 그것은 성공하였다.

령장의 내면세계

한때 일부 작품들에서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즉석에서 척척 결론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 나가는 수령의 외적모습만 그림으로써 수령의 인간적풍모를 생동하게 보여 주지 못하였다. 수령형상에서는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행동하는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세계를 깊이 펼쳐 보여 주어야 한다.

심리묘사의 수법을 원만히 활용하려면 작가는 인물의 내면세계를 한 시야에 담고 손금처럼 내려다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작가들이 아무리 높은 지성과 예민한 감각을 지녔다 해도 수령의 지성세계, 감정세계에는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상식적인 인식의 한계를 뛰어 넘어 인간지성의 상상봉우에 나래치는 뛰어 난 사색과 탐구의 하늘을 보여 줄수 있을것인가. 험치 않은 이 과제앞에서 적지 않은 작가들의 붓대는 머뭇거리고 수령의 내면심리세계를 대담하게 그리기를 저어하였다. 그러나 작가 박운은 대담하게 창작의 붓을 들어 순수한 내면심리묘사가 아니라 생활과 밀착되고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심리, 사색, 감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소설에서 절세위인의 위대한 내면세계가 어떻게 구체적인 생활의 계기와 밀착되어 심오히 묘사되었는가를 보여 주는 가장

빛나는 대목은 그이께서 허담외교부장과 함께 인민군협주단에서 창조한 혁명가극을 보아 주시는 장면이다.

이 대목에서 직접적으로 그려 진 사건이라면 차를 타고 극장까지 가시여 가극검열공연을 보시고 나서 그 길로 4. 25국방체육단으로 찾아 가시는것이다. 외견상 가극검열공연이라는 단순한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그려 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체험과 사색의 세계는 실로 폭 넓고 심오하다. 그것은 세계적판도에서 벌여 지는 사회력사적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괄하고 있으며 정치와 경제, 전쟁과 평화, 예술과 문리의 전 영역을 관통하고 있다.

작가는 생활의 구체적계기에서 환기되는 위인의 체험과 사색의 실머리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여기서 련이어 아지를 쳐나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색과정을 따라 독자들앞에 천출위인의 비범한 예지가 빛발치는 한없이 숭고한 새로운 철학세계, 미의 세계를 펼쳐 놓는다.

···달리는 차창밖으로 바라보이는 평양시민들의 봄철옷차림으로부터 시작된 위대한 장군님의 체험과 사색은 평양과 대조되는 베를린과 모스크바사람들의 옷차림을 거쳐 당시 쏘련의 《위성》국가들의 주체성문제로로 솟구쳐 오른다.

지금 세계는 동서양극의 대립속에서 곡절 많은 70년대의 역사를 수 놓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태를 보면 20세기 초엽부터 형성된 전통적인 지역중심만이 명색으로 남아 있을뿐 사상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 없다. 돌발적인 사태가 벌어 지는 경우 《위성》국가들은··· 정신적, 물질적기력을 하루아침에 잃을수 있다. 그러면···

그이의 심원한 사색속에 앞으로 간고해 질수도 있는 력사발전의 어느 한 침체기가 펼쳐 진다.

그이께서는 언젠가는 자신께서 미국이라는 일극화세력과 맞서게 되리라는것을 거의 운명적으로 절감하게 되시는것이였다.···

그렇다면 미국이 쳐든 서슬 푸른 검은 칼에 대응하여 우리가 혁명의 억센 붉은 칼을 더 높이 들고 맞받아 쳐야 하는가? 아니면 강철방패를 내대여 그 검은 칼을 꺾어 버려야 하는가? 그 검은 칼을 꺾어 버려야 한다는 의지만은 너무도 명백한것이다. 그렇다면 칼이나? 방패나?

아직은 동유럽의 사회주의가 10여년은 더 존속하게 될 그때에 벌써 충격적인 미래의 사태를 예민하게 감촉하시며 그에 대처한 전략을 구상하시는 그이의 사색은 이처럼 거창하고 심오한것이 다.

서곡의 관현악이 울리기 시작하자 장면이 변함에 따라 반주음악의 단조로움을 느끼시는것으로부터 시작된 그이의 사색은 가극관현악의 독특한 극음악적기능에 대한 심원한 미학세계에로 갈래

를 뺀어 나가는가 하면 마음에 드시는 명곡을 대했을 때는 노래가 안겨 주는 신비의 세계에 심취되어 노을 비낀 전야와 수림, 강물과 바다, 철갑모를 번쩍이는 대오, 백양나무 서 있는 동구길, 안개 낀 공장지구 살림집창문들, 민들레씨 날리는 농촌소학교정문으로 노래쳐 가기도 한다.

《그래 우리 인민이, 저렇게 창조하고 고민하고 투쟁하고 인정세계에서 울며 웃는 우리 로동계급이 과연 전쟁을 바라는가?…

원하지 않는다. 언제 한번 바란적이 없다!…

하지만 일단 놈들이 달려 든다면, 일단 이 땅에 전쟁이 터진다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음악의 흐름을 타고 예민해 진 감정으로 깊은 고뇌에 잠기신다.

결국 정의의 전쟁이 닥쳐 올것이다. 승리는 당연하지만 이 전쟁은 엄청난 희생을 가져 올것이다.

《…아니, 우리 조선의 혁명가들, 동지의 인간애호정신으로 단련된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포성이 울리는 마지막순간까지 신성한 평화의 진지에서 있을것이다. 마지막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최후의 총성이 울릴 때까지 이 땅에 깃든 평화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로동당원들의 혁명성이고 인간성이며 이 지구와 인류에 대한 큰 사랑인것이다. …》

《그러나 우리의 평화는 존엄 있는 평화이며 억센 총대우에 서 있는 평화이다!… 우리의 총창! 그것은 존엄 있는 평화를 지키는 총창이다!》

이렇게 하나의 관현악울림에서 시작된 그이의 사색은 끝없이 심오한 철학세계에 도달한다. 전쟁과 평화, 총대와 사랑이라는 두 극단을 하나로 맞대어 놓고 우리의 평화는 총대우에 서 있는 존엄 있는 평화라는 주체적인 평화관, 총대철학이 탄생하는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가극검열공연이라는 생활적계기를 통하여 장군님의 내면심리세계를 풍만하게 개방하면서 그 종횡무진 사색과정에 어떻게 미제의 《팁 스피리트》 군사연습에 대처한 공격적인 방어외의 대응전술안을 구상하게 되시는가를 보여 주었다.

가극의 수정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4.25국방체육단으로 찾아 가시는 길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적들이 노리는 두 통선고지방향의 주타격방향을 지향해서 대련합부대기동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하자는 작전방안을 내놓으시는것이 다.

이렇게 작가는 무변광대한 위인의 내면세계에 거침없이 침투하고 있다. 그것은 강철의 론리우에 구축된 위대한 사상의 세계이며 뜨겁고 섬세한 인간사랑이 굽이치는 풍만한 감정의 세계이며 생활의 그 어느 갈피, 력사의 그 어떤 영역에나 파고 드는 예리한 지성의 세계이다. 작가는 인

간으로서 도달할수 있는 아득한 지성의 높이에서 그 갈래갈래를 속속들이 헤아리면서 때로는 위인의 내면독백과 대사로, 때로는 심리분석적설화로, 주정토로로 그 사상, 그 감정, 그 의지의 미세한 파동까지 남김없이 전달하는데 성공하였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하다. 우리는 그 사상의 힘에 압도되고 그 감정의 열파에 매혹되며 그 의지의 분출에 넋을 잃는다. 그것은 그대로 철학이며 시이며 노래이다. 그것은 명언들로 충만되어 있다.

《…우리는 마지막순간까지 평화의 진지에서 있을것이며 마지막순간까지 전쟁의 검은 마차가 질주하지 못하도록 제동기를 밟을것입니다. 우리의 립장은 인류에 대한 크나큰 사랑으로부터 출발한것입니다. 이 행성에 깃든 고요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는 영원한 것입니다.》(대사)

《인민들은 우리 당과 군대를 믿고 저렇게 아무런 구김살도 없이 봄을, 삶을 맞이하고 누리고 있다.

저 고무풍선이 날리는 맑은 하늘에, 저 아이들의 순진한 미소가 흐르는 파란 잔디밭우에, 저 청춘의 정력이 넘치는 강반의 요트우에 미국놈들은 최악의 폭탄을 던지려 하고 있다!

조선사람들이 과연 전쟁을 바라는가?…》(내면독백)

《김정일 동지께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소녀를 내려다 보시었다. 아이들이란 얼마나 예민하고 직감적인가? 동심의 순결한 소우주에는 모든 현상이 더욱 선명하게, 예리하게 비끼는것이 아닐가? 그런데도 어른들이란 때로 아이들은 단순히 복잡한 사물현상에 대한 분석과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른 바 자기들끼리의 이야기를 그들 면전에서 망탕 내뱉는 일종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것이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는 언제나 진실이 속임수를 쓰지 않으면서, 복잡한 환원반응을 거치지 않으면서 그대로 비껴 드는것이다.

그이께서는 부지중 입가에 미소를 지으시고 소녀의 사랑스러운 두볼을 만져 주시었다.》(심리분석)

이 레몬들만 보아도 우리는 위인의 내면세계가 얼마나 심원한 철학세계, 매혹적인 미의 세계인가를 절감하게 된다.

이 소설에서 수령의 형상은 그 결과만 강조되지 않았다. 그 결과를 이룩하기까지의 체험세계와 심리적굴곡과정이 진지하게 그려져 있다. 그리하여 인민의 어버이는 우리와 흥금을 똑 터치고 심장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것이다.

이제는 확신할수 있다. 이제는 우리 작가들도 수령의 사상정서를 자기것으로 체득하고 그대로 전달할수 있는 높은 기량을 소유하였다. 대담하

라. 환상하라. 창조하라. 붓은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세부… 세부… 세부…

인간의 성격은 오직 생활의 세부속에서만 드러난다. 소설에서 세부묘사란 결국 생활의 구체적인 단면에서 인간성격의 개성적인 표현과정을 그대로 그린 것이다.

수령의 형상창조에서 세부의 의의는 더욱 커진다. 수령을 주위인물들과의 공식적인 관계속에서만 그리고 생동한 생활세부를 찾아 보여 주지 못하면 수령의 형상은 딱딱하게 격식화되어 생기를 잃고 말 것이다.

그런데 보통사람이 아닌 위인의 품격에 어울리는 생동하고 진실한 생활세부를 찾아 손색없이 그려 준다는 것은 험치 않은 일이다. 역사에 실지 있는 위인을 그리면서 작가의 풍부한 예술적 환상이 요구되는 분야가 바로 이 생활세부의 탐색과 묘사인 것이다.

장편소설 《고요한 행성》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은 위인다운 생활의 세부속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위인의 생활은 우리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수령도 인간인 것만큼 우리가 체험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자신의 가슴속에 안고 사는 것이다. 때문에 작가는 위인의 생활이라고 하여 그 어떤 특출한 것을 찾아 꾸며 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과연 아무런 차이도 없겠는가. 위인은 분명 우리와 같이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새롭고 창조적인 결론을 찾아 내고 《뜻밖의》 행동을 한다. 그것은 돌발적인 것으로 느껴 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위인의 성격과 생활의 논리에 맞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우리의 요구에 맞는 가장 자연스러운 결론이고 행동인 것이다.

소설에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서부지역방어작전도에 수표를 하시는 장면이 있다. 이 대목에서 일부 일군들이 막대한 외화를 벌수 있는 고급석재원천으로서 개발하려고 했던 화강석산을 서부지역방어에서 전술적의의가 큰 지령점으로 보시고 오히려 여기에 한개 구분대를 더 배치하고 새형식의 방어축성물을 구축하자는 천재적인 방안을 내놓으시는 령장의 모습도 중요하다. 나팔레옹이나 주코브스키의 방어형식을 뛰어 넘어 우리나라 지형에 맞고 현대전의 특성에도 맞으며 우리 혁명무력의 본질적사명에도 맞는 독창적인 공격과 방어형식을 밝혀 주시는 그 탁월한 군사적 예지앞에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는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작전도에 수표를 하시려고 붉은색연필을 드시었던 장군님께서 문득 눈길을 드시고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그 세부속에 있다.

《가만, 이 작전도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번 했습니다. 우리가 무책임한 수표를 할번 했습니다.》

일군들은 당황하고 어리둥절하여 작전도우에 머리를 수그린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작전연필로 지도우의 두 지점을 거의 일직선으로 연결하여 힘 있게 선을 그으시며 시급히 이 두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내야겠다고 말씀하신다. 그것은 련합부대군관자녀들의 통근차길이었다.

이 작전도우에 그려진 통근차길세부는 그에 앞서 그려진 일련의 세부들과 련결되면서 참으로 의미심장하게 안겨 온다.

아버이장군님께서서는 이곳에 오시던 길에 만나 보신 분임이라는 꼬마애를 통해 류다른 사연을 료해하시었다. 어느 한 중대 군관자녀들의 통학거리가 50리나 되어 려단에서는 지휘부밖에 기숙사를 따로 마련하고 아이들이 월 마지막주 토요일 저녁이면 집으로들 갔다가 하루밤을 자고 돌아 오게 했다는 것이었다. 서로 떨어져 있는 아이들은 아버지를 그리워 하고 아버지는 아이를 그리워 하고… 그러다가 그 중대 중대장이 눈사태가 인 날 먼 곳까지 아이마중을 나왔다가 부대에 늦어 나간 바람에 비판을 받고 집에서는 부부간 다름까지 생겼다는 것이었다. 이 사연을 《고발》하는 분임이의 왼쪽 귀밑에 난 까만 기미가 그이의 기억속에 유표하게 새겨 졌다.

그런데 군관사택마을에서 분임의 집에 들리신 장군님께서서는 무엇을 발견하신 것인가. 손질한지 오래된 꽃밭옆에 뿌리채 뽑아 놓은 평행봉대이다. 분임이가 집에 오는 날이 명절날이어서 애아버지가 무척 기다린다고 얼굴 붉히며 말씀드리던 녀인이 저 평행봉대랑은 왜 뽑아 놓았느냐는 물으심에 당황하여 머리를 숙일 때 오른쪽 귀밑의 까만 기미가 눈에 띄어 장군님께서서는 부지중 미소를 지으시었다. 딸애와는 반대쪽에 기미가 있었던 것이다.

중대장은 분임이가 없으니 더는 필요없게 된 그 철봉대를 중대에 내가겠다고 뽑아 놓고 정치지도원은 필쩍 뛰며 저녁에 다시 해놓겠다고 야단하고… 녀인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며 군정배합이 잘되는 중대 같다고 못내 기뻐하신 장군님이시었다.

이 짙막한 철봉대세부는 그뒤의 화강석산지대 현지시찰과 작전토의장면의 이야기들에 묻혀 사라져 버린 듯 하다.

그런데 그 세부는 작전지도우에 그어 주신 통학차길세부와 련결되어 새로운 의미를 안고 다시 떠오르는 것이다.

《오늘 관하구분대들을 돌아 보니 젊은 군관들의 얼굴에 생기가 부족합니다. 후대들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들자신이고 미래이고 사랑입니다.…

나는 려단일군들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

다. 하지만 한결음 더 나아가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나는 전진보장대장의 집에서 뿔아 놓은 평행봉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통학할 아이들이 많지 않은만큼 소형뺨스를 보내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에 대한 사랑, 위인의 뜨거운 인간애를 보여 주는 세부만이 아니다. 그속에는 작전도우에서 방어축성물만을 보신것이 아니라 군인들을 보고 그들의 사상감정상태를 먼저 가늠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인간중심, 사상중시의 주체적인 군사학이 비껴 있다. 그 통근차길은 부대의 기동로나 무기탄약의 보급로에 못지 않는 《전략도로》의 하나인것이다. 그 길을 따라 총을 쏜 아버지와 책가방을 멘 딸, 전호숙의 군대와 후방인민들의 심장과 심장의 피줄이 이어 지고 그 피줄을 따라 흐르는 뜨거운 사랑과 정이 군인들의 총대에 핵탄보다도 위력한 애국의 장약이 되어 장진된다. 이 《전략도로》가 새겨 짐으로써 작전도는 비로소 위대한 장군님의 군사사상이 빛나는 불패의 작전도로 완성된것이다.

우리 장군님께서 분임이와 그 어머니의 귀밀에 서로 반대로 찍혀 진 까만 기미를 발견하시고 부지중 미소를 지으시는 세부도 인상적이지만 그 뒤에 들려주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추억의 일화 속에 담긴 그 풋당콩세부와 위인들의 눈가에 어렸던 눈물세부는 또 얼마나 인상적인가.

자기앞에 마주 선분들이 어떤분들인지 알수 없는 늙은 너인은 쪽정이가 많이 섞인 풋당콩 뒤뉘를 놓고 터무니없이 높은 값을 부르며 사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값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어버이수령님의 물으심에 제사 오히려 역정을 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자신의 주머니돈과 부판의 돈까지 다 털어 너인에게 주시며 늦게까지 시장에 앉아 있는 연유를 물으시었다. 뜻밖에 부른 값의 몇배나 되는 돈을 받아 쥐고 그제야 정신이 든듯 일어 서서 풀이 죽은 얼굴로 눈길을 내려 잔 너인은 손자가 래일 학교에 가는데 학습장을 하나 살가 해서 나왔다고 말씀 드렸다. 아버지는 전선에서 돌아 오지 못했는데 애한테 책 하나 마련해 줄수 없어서... 그 옆에 떨며 서 있던 병약해 보이는 더벅머리소년의 인사를 받으시는 수령님의 눈가에 축축한것이 번쩍이었다. 그 풋당콩보따리를 받아 드신 어리신

장군님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다. 그 옛날의 추억을 말씀하시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신다는 장군님의 눈가에 또 얼핏 맺히는것!

이 일화속에서 그 볼품 없는 풋당콩보따리와 위인들의 눈가에 번쩍인 눈물에 대한 세부는 천만근의 무게를 가지고 절세위인들의 한없이 고매한 인간세계를 웅변으로 보여 주는것이다.

작가는 이렇게 그 어떤 선언적인 설명이 아니라 생활적인 세부와 세부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고 있다. 이 주옥 같은 세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등장하시는 모든 대목들에서 그이의 세심한 심리적체험에 대한 묘사와 잇닿으면서 인상 깊은 일화와 일화를 낳고 사건과 사건을 이루면서 위인의 형상을 생동하게 특징 짓는다.

중요한것은 그 모든 세부들이 단지 위인의 형상을 생활적으로 선명하게 부각시킬뿐아니라 앞에서 본바와 같은 보다 깊은 상징적의미, 철학적의미를 띠고 깊은 사색과 여운을 안겨 준다는데 있다.

작가는 위인의 시점을 빌어 모든 생활의 단면들을 투시해 보고 있다. 그 눈길이 한번 미치면 그 단면단면에 숨겨져 있던 생활의 비밀들이 금시 생기를 띠고 자기의 독특한 형체, 색깔, 활동을 가지고 살아 나 우리와 교감을 시작한다. 우리는 가슴 벅찬 흥분을 안고 위대한 심장이 들려주는 줄기찬 고동소리를 듣는다.

이처럼 생활세부묘사에서 위인의 시점과 자기의 시점을 하나로 통일시킬수 있는 작가의 기교는 위력한것이다. 마침내 작가는 자기의 위대한 주인공과 함께 숨 쉬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최대의 행복을 지니게 되는것이다.

*

장편이라는 방대한 생활화폭속에서 우리는 극히 일부분에만 시선을 모아 작가의 기교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인의 형상에 매혹된 나머지 과장된 칭찬으로 볼수 있다. 아니다. 더 찾아야 한다. 더 말해야 한다.

문학예술의 영재이신 위대한 21세기의 태양이가꿔 낸 시대의 명작들을 놓고 그 창조에 바쳐진 작가의 재능과 열정에 대해서는 이제 비로소 이야기가 시작된것이다.

그가 남긴 생의 여운

-시인 최영화를 추억하여-

오영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당과 수령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하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내린다 하여도 오직 당을 받들어 충성의 한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 나가야 하며 그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야 한다.》

백두의 이갈숲을 적시며 내리는 7월의 장마비를 맞으며 시인 최영화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탄생하신 백두의 고향집을 향하여 걸음을 다그치고 있었다.

2월이면 온 나라 인민들의 간절한 축원을 받으며 탄생일을 맞으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시로서 인사를 올리고 싶었던 최영화였다. 물론 이 길이 처음 걷는 길이 아니며 열번나마 밝아 보았던 길이다.

그가 백두산으로 떠날 결심을 하고 행장을 갖추며 사람들은 그를 만류했다. 어떻게 그 어려운 길을 일흔다섯살이라는 고령의 몸으로 떠나겠느냐고... 그 길은 이미전에 체험도 많이 해본 길인데 평양에서 그 체험을 되살리며 글을 쓸수도 있지 않느냐고 다들 걱정해 주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말했다. 기존의 체험으로 글을 쓰자는것은 작가의 태만이다, 이것은 목은 창고를 뒤져 쓸만 한것이 없겠는가 하여 무엇인가를 골라 보는것이나 같다, 체험은 언제나 새로와야 하며 작가의 고간에는 언제나 새로운것들이 끊임없이 보충되어야 한다, 작가인 경우에는 같은 길을 간다고 하여 그것이 결코 같은 길이 아니다, 어제 느끼지 못했던것을 오늘에 느낄수 있지 않는가... 바로 그 생소한 느낌을 얻기 위해 배낭을 지고 떠난 걸음이었다.

열차에 몸을 싣고 평양을 떠나면서 그는 생각도 많았다. 지금처럼 아직도 건강이 파괴되지 않았을 때 가보지 않으면 언제 다시 백두산에 올라 보겠는가, 아마도 이 길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가보는 백두산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갈마들 때마다 최영화는 어느 사이인지도 모르게 올라 서고야 만 자기의 고령이 원망스럽기까지 하였고 그 나날에 많은 시를 쓰긴 했지만 위대한 장군님께 크게 기쁨을 드릴수 있는 백두산에 대한 좋은 시를 써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가슴이 아프기도 했다. 꼭 좋은 시를 써가지고 오겠다는 마음속 각오는 정말 비상했었다.

약 보름만에 그가 평양에 돌아 왔을 때 우리 시인들은 마치도 개선하는 영웅을 대하듯이 그를

맞이하였다. 이날 이때까지 일흔다섯살의 고령의 몸으로 백두산을 답사한 레는 우리 작가동맹 안에서는 없었던 기적이였다. 떠날 때보다 그는 더 젊어 보였다. 사람들은 최선생은 백살까지도 문제없이 살수 있다고 그의 건강함을 부러워 했다. 사실 그는 건강했고 나이가 들수록 더 왕성하게 현실을 체험하며 창작했다. 키가 커서인지 걸음도 빨라 그와 함께 길을 걸을 때면 나는 언제나 반걸음쯤 뒤떨어 지지 않으면 안되였고 혼자 걷기보다 곱절이나 힘이 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 하던 그의 건강이 그리도 쉽게 파괴될줄은 누구도 몰랐다. 처음으로 그의 신상에 변화가 생긴것은 그의 눈이였다. 한쪽 눈을 빼내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내가 병원의 입원실 4층에 있는 그의 병실에 들렀을 때 그는 방금 수술을 끝내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한쪽 눈을 봉대로 두텁게 감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비판하는 기색이 없이 낙천적이였다. 걱정하는 나를 오히려 달래며 《일 없어. 한쪽 눈이 또 있는데... 소경도 한생을 사는데... 잃은 눈의 시력은 다른 한쪽 눈으로 모아 진다고들 그래...》 시력이 모아 지기까지는 시일이 경과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최영화는 그 시력이 미쳐 모아 지기전에 그만 불치의 병진단을 받았다. 그리하여 백두산에 다녀 온 후 1년도 못되는 8개월만에 그는 우리결을 떠나갔다. 이제는 현실의 인간이 아니라 추억속의 인간이 된 그를 생각하며 원고지를 마주하고 앉아 있노라니 그를 앓아 간 병마가 저주롭고 아직도 그 병마를 징벌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의학이 원망스럽고 또 그렇게 간 사람이 아쉽고 늘 사람 좋은 웃음으로 맞이해 주던 그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와 내 붓이 서슴어 지는것을 어찌할수 없다.

릉정땅에서 심은 씨앗

사업에서의 성실성, 생활에서의 낙천성, 인간관계에서의 겸손성과 소탈성- 이것은 최영화를 특징짓는 성품이라고 할수 있을것이다. 이것은 결코 고인에 대한 산 사람의 너그럽고 후한 평가도 아니다. 그의 생존시에도 젊은 작가들과 우리 후배들은 그렇게 늘 말해 온것이다. 나는 한때 사람들에게 그것은 최영화의 천품적인것이며 그 천품에 우리 당의 교양이 합쳐 진것이라고 말한 적 있다.

심장이 남달리 뜨거운 사람만이 정의와 량심을

귀중히 여기고 생활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법이다. 그러한 사람은 인간이 지녀야 할 온갖 미덕을 성실하게 받아 들이며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공고화시킨다. 시인 최영화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주체41(1952)년 12월 종합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약 1년나마 로동신문사의 기자로, 부장으로 있다가 당중앙위원회에 소환되어 지도원(당시)으로, 과장으로 만 8년동안 사업했으며 주체51(1962)년부터는 작가동맹 부위원장으로, 주체61(1972)년부터는 문예총 부위원장으로, 그 후 문예총 제1부위원장으로 일해 왔기 때문에 그의 한생의 대부분은 작가들과 예술인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흔히 사람들이 이런 위치에서 오래 일하게 되면 은연중에 지도 받는 군중과 자기를 차별하면서 자기우월감에 도취될 수도 있다. 그러면 군중과의 거리감이 생기게 되고 자기는 웅당 존재 받아야 할 존재로 치부해 버리는데 습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천성적이라고 하겠는지 그는 직위감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의 언어는 뻔뻔하거나 날카롭지 못했고 아래사람들에게 큰소리를 칠 줄 몰랐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최영화는 작가로서나 적당하지 간부의 체질은 못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에게는 전용승용차가 있었지만 거의 걸어 다니는 보행간부였다. 그리고 담배는 공급소에서 내주는 《룡성》이 고작이었고 그것마저 떨어지면 《제비》나 《해당화》를 가지고 다닐 때가 많았다.

그러다가 누가 색 다른 담배를 권하면 사양하지는 않았는데 달가와 하지는 않았다. 상대방의 호의를 무시할 수 없어 자기의 자존심을 양보한 것이다. 그렇게 그는 소박하고 소탈하였다.

문학예술부문의 책임적인 위치에서 사업하면서 그는 늘 바빠서 퇴근도 늦게 했고 일요일도 명절도 따로 없었다. 그러나 종합대학을 다닐 때 자기를 배워 준 스승들의 생일날에는 꼭 찾아 가족배의 잔을 붓곤 했으며 누구의 집에 불상사가 났을 때는 그가 비록 이름 없는 젊은 작가인 경우에도 서슴없이 찾아 가 위로해 주곤 하여 그 집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러한 그의 성품은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모진 생활의 세파를 겪으며 다스려진 사람됨일 수도 있다.

시인 최영화는 주체15(1926)년 6월 16일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에서 화전농의 맏아들로 출생하여 한살 때 살 길을 찾아 북간도로 떠나는 류량민의 때에 섞여 두만강을 건너 갔다. 처음엔 화룡현 룡흥리에 자리 잡고 중국인토호의 땅을 소작하다가 그것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최영화가 여섯살때 연길현의 룡정으로 나왔다. 그때로부터 해방된 이듬해 11월 조국으로 나올 때까지 룡정에서 생활하였다.

룡정은 생김새가 기묘하여 그 일대에서 이름난 모아산을 사이에 두고 연길에서 40리가량 떨어져 있는, 당시에는 5~6만인구를 가진 도시인데 간도로 이주해 간 조선인들의 중심지였다. 두만강에 흘러 드는 해란강이 한복판에 흐르는 이 도시에는 일본총령사관과 항일유격대를 《토벌》한다는 《토벌대》본부가 틀고 앉아 있어 침략과 살륙의 소굴인 동시에 또한 지하혁명조직들의 활동도 맹렬한 곳이었다. 일본놈들과 중국인들도 있었지만 인구의 대부분은 조선인들이었고 산발적으로 모여 든 곳이었어서 조선인들속에서도 그 유형과 처지는 각이했다. 애국에 뜻 있는 사람도 있었고 친일파도 있었다. 또한 장사에 눈이 먼 돈벌이군도 있었는데 하면 생활의 밑바닥에서 허덕이며 해매는 품팔이군도 있었다. 우물에서 룡이 하늘로 올라 갔다는 전설이 생겨나 그 이름을 룡정이라고 부르는 이 고장에서는 김책, 안길 등 혁명가들도 배출되었고 문익환, 윤동주 등 애국적인 인물들도 여기서 젊은 시절의 꿈을 키웠다.

최영화의 가정은 그야말로 극빈가정으로 룡정의 최하층에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형편이었다. 아버지 최석흥은 룡정하주운송부에서 우차물리와 로두구탄광에서 갱내로동과 안도현 오도양차 등지의 산관에서 별목로동도 하면서 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떠돌아 다녔고 어머니는 중국인의 남새밭에서 품팔이도 하고 국수집에서 망질도 해주며 겨우 몇잎의 돈을 보냈다. 어린 최영화는 소꿉도 베여다 팔고 밤마다 떡을 외상으로 넘겨다 팔면서 힘겹게 고학을 하였다. 룡정제1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아침이면 이른 새벽에 물지게를 지고 물장사를 하였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 와서는 신문배달을 하였다.

고마운 우리 제도하에서 행복하게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시인은 자기의 불행했던 그 시절을 이렇게 추억했다.

이처럼 기쁘기도 한 날에 태어난 너
너는 얼마나 행복스러운것이나
그처럼 슬프기도 한 날에 태어났던 나
네 나이때의 아빠의 불행을 생각한다면...

일제에게 쫓기는 원한이 서리고 서린 몇천리
류량의 눈길우에서 엄마의 등우에서
눈보라에 한살대기 피덩이가 몇번이고
까무라치며 까무라치며 님은 이국땅-간도

찬바람 문풍지에 애 끓는 오막살이 단칸방에서
품팔이엄마의 한모금 젖을 그리다 못해
그만 할머니의 가랑잎처럼 마른 젖꼭지를 물고
쓰린 창자에 몸부림치며 흐느끼던 나의 울음을
-시 《어린것에게》 [주체46(1957)년 8월]-

룡정시 복신가의 빈민촌, 초가지붕을 올린 하모니카식집의 한칸을 차지하고 살고 있던 최영화와 울타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몇해를 함께 지내온 맹재건(오래동안 외국어번역원과 통역원으로 종사, 모란봉구역 인흥동에서 공로보장을 받고 있다가 사망하였음)은 서로 다니는 학교는 달랐으나 이국의 곳은 비속에서 서로가 의지하며 마음 속이야기를 터놓던 벗이었다. 최영화는 맹재건을 비롯한 조선학생들과 함께 망국노의 설움에 울기도 했고 동북지방에서 조선사람들에게 감행한 일제놈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대하여 주먹을 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에 대한 소식은 하루가 새롭게 룡정 시내에 전해지곤 했다. 사람들은 서로 찾아 다니며 새 소식을 전했고 희망으로 눈빛이 빛났다. 하루는 최영화가 자못 흥분한 기색으로 맹재건을 찾아 와 자기가 쓴 시를 들어 보라고 했다. 그 시를 오늘에 그가 다 기억할수는 없는데 그 내용인즉 축지법을 쓰시는 조선의 장군이 기어이 일제를 쳐부시고 해방의 날도 축지법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이었다.

룡정시절 최영화의 생활은 참으로 비참했고 고생스러웠다. 그가 열여덟살때인 주체33(1944)년에 중병으로 앓고 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가고 그후에 어린 두 동생들도 당시 만연하던 장질 부사에 걸려 죽었다. 너무도 일찌기 망국노의 쓰라림을 체험했고 너무도 많이 설움의 눈물을 쏟았던 룡정땅, 그러나 그 매정한 이국땅에서도 최영화가 심어 놓은 귀중한 씨앗들이 있었으니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크나큰 흠모심이었고 그 무엇인가 세상에 대고 자기의 심중을 호소하고 싶었던 문학에 대한 갈망이었다.

백송리에서 받아 안은 영광

신념과 의지의 강자인 비전향장기수 최하종은 최영화가 룡정에서 살고 있던 그무렵 그도 룡정에 있었으나 다니는 학교가 서로 달라 모르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시인이 스무살때인 주체35(1946)년 11월에 조국에 나와 함경북도 민청선전부에서 사업할 때 그도 학생부 지도원(당시)으로 있으면서 어제날의 룡정의 벗으로 통성이 되었다. 이듬해 9월에 최영화가 종합대학에 추천받아 갈 때 그도 함께 대학으로 갔으며 시인은 문학부였고 그는 공학부였지만 룡정출신으로 도민청에서 함께 사업했던 그 인연으로 하여 대학에서도 서로 오가며 막역한 사이로 지냈다. 6.15 북남공동선언이 리행되어 드디어 조국의 품,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안기게 된 비전향장기수들의 명단과 신문에 크게 난 사진들을 보면서 최영화의 입에서는 환성이 터져 올랐다. 너무도 낮

익은 최하종의 얼굴이 보였던것이다. 그분들이 송환된후 잠시 머물러 있던 고려호텔에 당장 달려 가고 싶었지만 가족들을 만나 새집을 받고 일정하게 안착될 때까지 그의 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한동안 시일이 지나 최하종에게도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될 때 최영화는 문득 최하종의 집문앞에 나타났다. 《하종이!》, 《영화!》 서로의 목소리는 목이 메었고 부둥켜 안고 놓을줄 모르는 그들의 옷설은 눈물에 젖었었다. 그들은 밤이 깊도록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회포를 나누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한채의 이불을 함께 덮고 덩굴던 도민청의 합숙방이 떠올랐고 해방의 감격으로 하여 잠을 몰랐던 열혈의 그 시절 청년들에게 하루빨리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과 해방된 새사회건설을 위한 새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밤새 선전물을 찍어 내던 그 등사기가 생각났다. 룡남산에 자리 잡은 종합대학에서 첫 강의를 받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이 고마와 눈물 흘리던 일이며 어찌다 누구에게 돈이 생기면 기숙사에서 불러 내어 떡을 사먹으려 시내를 돌아 다니던 일들도 추억하였다.

그처럼 가깝게 지내던 그들이 헤어지게 된것은 미체가 도발한 전쟁때문이었다. 최영화는 주체39(1950)년 6월 28일 당중앙위원회 의 파견으로 남반부 정치공작대로 떠나갔다. 그는 서울과 충청북도 피산군에서 당조직을 내오고 인민정권을 세우고 토지개혁을 수행하고 군중들에게 정치선동사업을 하다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강제까지 가서 정치관판학교에서 군정학을 하였다. 다시 평양에 나와 당시 내무성에서 복무하다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학생들을 대학으로 불러 주시는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그 이듬해 8월 24일 종합대학 어문학부에 복교하였다. 당시 백송리에 자리 잡고 있는 종합대학에서 학업에 열중하고 있던 최영화는 룡정에서의 어린 시절부터 축지법을 쓰시는 백두산장군의 전설같은 이야기를 들으며 그토록 흠모해 마지 않던 장군님을 만나뵙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었다.

그는 자기의 자서전에 이렇게 쓰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4월 12일 저녁무렵 백송리에 자리 잡고 있던 종합대학을 찾아 주시었다.

다음날인 13일 이른 아침 그이께서 학생들의 식생활을 료해하시기 위해 학생식당에 들리시었을 때 마침 식사중이었던 나는 다른 몇동무들과 함께 꿈같이 어버이수령님을 직접 만나뵈었고 그이께서 식생활에 대하여 물으시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는 영광을 지니었다.

그후 오전 10시경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어문학부트락 소공원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와 전후복구건설, 대학사업에 대하여 력사적인 연설을 하

시였는데 이때 연설을 마치신 어버이수령님앞에서 나의 자작헌시 <수령님께 드리는 노래>를 탄생 40돐을 맞으시는 그이께 읊어 드리였다.

내가 사랑송을 끝내자 소공원 연락에서 몇걸음 옆 소박한 긴 나무결상에 앉으시여 나의 헌시를 들어주신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자리에서 일어 나시여 큰 인사를 드리는 나의 손을 따뜻이 잡으시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이것은 당시 학생이었던 나에게 있어서 말과 글로는 그 감격과 흥분, 걱정을 다 표현할수 없는 무상의 영광이며 행복이였다.》

지금 백송리혁명사적지에는 그날에 최영화가 어버이수령님께 읊어 드린 시를 새긴 헌시비가 있다.

수령님께 드리는 노래

만만년 력사우에 솟아 오른
인민의 태양 장군!

그이의 해발아래 새 조선은 태어나
어제날의 머슴이 영웅이 되고
온 강산이 타번지는 불바다속에서도
배움의 꽃은 피여 청춘은 푸르려라
...

이렇게 시작을 펜 시인은 어버이수령님을 자기들의 배움터에 모신 영광과 공지를 열정적으로 노래하면서 수령님께서 밝혀 주신 원대한 구상을 온 나라 강산에 꽃 피워 같 온 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조높이 웨쳤다.

장군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빛내리라!

이 시에는 당년 스물여섯살의 청년시인 최영화의 열화와 같은 심장의 분출이 있다. 이 시야말로 그가 그토록 우러러 따르는 어버이수령님결으로 가까이 간 영광의 발자욱이였다. 당시 우리대오에 기여든 미제의 고용간첩놈들과 종파분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날뛰었고 수령님께서 종파놈들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도 크시였던가. 그런속에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을 전쟁의 승리로 이끄시느라 그 로고가 얼마나 크시였으랴. 젊은 시인 최영화가 《장군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빛내리라》라고 소리높이 웨친것은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수령님을 위해 원쑤격멸으로 돌진하는 우리 인민의 신념의 목소리였고 수령제일주의, 수령절대옹위의 맹세와도 같은것이였다.

조선어문학부뜨락 소공원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설을 하실 때 최영화는 너무도 감격스러워 흥분된 심정으로 이 즉흥시를 써나갔다. 좀체로

남보다 앞에 나서기 싫어 하는 그였지만 그 순간만은 도저히 참을 길이 없었던것이다. 그가 어떻게 그 소박한 즉흥시를 들고 감히 수령님앞에 나섰는지, 어떻게 읊어 드렸는지 모른다. 최영화는 후날에 와서도 《내가 그때 제 정신이 아닌것 같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그는 수령님께 매혹되어 마치도 천진란만한 어린애처럼 되어 버렸던것이다.

청년시인 최영화가 이런 시를 쓰게 된것은 결코 어떤 계기에 돌발적으로 이루어 진것이 아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투철한 숭배심은 통정시절부터 체질화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가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로동신문》사에서 기자로, 부장으로 사업하다가 당중앙위원회 지도원(당시)으로 일하던 무렵인 주체44(1955)년에 《김성진영웅》이라는 원고지 231매에 달하는 긴 서사시를 잡지 《새 세대》의 5호와 6호에 편재하였는데 물론 미숙한 점은 있어도 그 사상적내용에서는 변함없이 투철한 그의 수령관이 반영되어 있었다. 당시만 하여도 수령중심의 사상체계가 확고하지 못했던 그때로서 하나의 글을 써도 오직 수령님을 생각하고 모든것을 수령님과 결부시키는 그런 견결한 립장을 가진다는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였다.

결사의 싸움을 앞두고 적후에서 가진 당회의장면을 그리면서 시인은 썼다.

그들에게는 여기
저 마다의 충성을 몽친
마음의 주석단이 있어
경애하는 그이를 모셨다

남조선이 고향인 김성진이 인민군대에 의하여 마을이 해방되던 날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는데서도 시인은

성진이는 숨어서가 아니라
난생 처음으로 목청껏
그립던 마음의 노래!
《장군의 노래》를
목 메여 목 메여 불렀다!

이런 최영화였기에 《장군님의 나라》라는 아직은 그 누구도 찾아 낼수 없었던 명문구를 찾아낼수 있었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백송리에 가셨던 때의 일을 추억하시며 큰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시였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 64(1975)년 12월 6일 백송리혁명사적지를 돌아보시면서 종합대학 학생들이 수령님의 탄생 40돐에 즈음하여 수령님께 올린 헌시 《수령님께 드리는 노래》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헌시에 수령님

을 맞이한 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기쁨과 충성의 결의가 잘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장군님의 나라를 온 세계에 빛내리라》라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시었다.

최영화는 자기가 랑송한 헌시를 명주천에 붓글씨로 써서 수령님 탄생 40돐 축하 종합대학 대표단을 통하여 4월 15일 오늘의 전승혁명사적지 방공호 집무실에 게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올리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모직양복 한벌, 와이샤쯔, 넥타이, 구두를 선물로 보내주시는 큰 사랑과 영광을 안겨 주시었다.

그가 붓글씨로 헌시를 쓴 명주천둘레에 금수를 놓은 한 녀대학생이 있었는데 그가 졸업후 최영화의 안해로 된 그의 한해 아래반인 조선문학과 3학년생 정언용이었다. 정언용으로 말한다면 조국해방전쟁시기 건지리에 있는 최고사령부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다가 종합대학 어문학부에 입학한 동무였다. 최영화는 그를 안해로라기보다 혁명동지로 대하며 한생토록 지극히 사랑하였다. 그들은 가정에서도 상대방을 《정동무》로, 《최동무》로 불렀다. 부부간의 호칭으로는 좀 남 다른 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대학생때부터 그렇게 불러 온것이 굳어져 버린데도 있겠고 서로가 동지로 존경하는 각별한 의미도 있는 것 같다. 부부간의 정은 류달리 깊었고 서로가 위해 주는 마음이 지극하고 성품이 아름다와 한생토록 단 한마디 언짢은 말도 오간적이 없었다. 신병으로 오래 앓아서 집안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안해가 해야 할 집안의 굶은 일을 최영화가 거의 맡아 하였지만 앓는 안해를 둔 자기의 불편을 그 누구에게도 말한적이 없었다. 오히려 난치의 병을 만난 안해를 구원하지 못해 속을 태웠고 그가 측은하게만 생각되어 더 극진히 위해 주었다. 나는 그의 열현관에 살고 있었기때문에 그들의 가정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정언용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 갔을 때 령구앞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최영화를 보며 나의 가슴도 아팠다. 사람들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인지 이내 울음을 거두고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백송리 밤나무골의 깊은밤에 방금 다녀 가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리며 정성껏 비단천에 금수를 놓던 그 있을수 없는 밤을 생각하고 있는것 같았다.

매혹되어 따르던 그 나날

주체51(1962)년 2월부터 최영화는 작가동맹 부위원장으로, 당위원장으로 사업하면서 작가들을 우리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우리 당의 의도대로 창작을 옹바로 이끌어 나가는데 자기의 온갖 정열을 다 바쳤다.

이듬해 11월 3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책, 권영벽, 마동희, 강건 등을 원형으로 하여 그들의

혁명활동을 두고 전기식으로가 아니라 혁명적대작으로 창작할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었다.

이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무엇을 설계하고 어떻게 집행하겠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최영화가 담당수행하여야 할 몫이었고 책임일군으로서의 그의 지도력이 발휘되어야 할 분야였다.

창작지도일군으로서의 그의 사색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교시와 말씀을 어김없이 정확하게 집행하겠는가 하는데 집착되어 있었다. 그는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작가대렬을 사상에서 견결하고 행동에서 진취적인 대오로 되게 하는데 온 심혈을 다 기울였으며 그들이 당이 요구하는 훌륭한 작품을 써내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자기 사업의 보람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는 당중앙위원회의 해당 부서와 토론하여 대작창작조를 당시 우리 소설문단에서 가장 유력한 실력자들이였던 천세봉, 황건, 윤시철, 리상현, 박태민, 윤세중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 조직사업이 있던 다음 최영화는 주체53(1964)년 7월 대작창작조를 인솔하는 책임자가 되어 40여일에 걸쳐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를 답사하였다. 지금처럼 혁명전적지에 대한 답사행군길이 완비되지 못한 조건에서 그 많은 전적지들을 돌아 본다는것은 여간 힘겹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은 배낭을 메고 도보로 길 없는 길을 헤쳐 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해산에서 보천보, 곤장덕을 거쳐 리명수, 청봉, 건창, 배개봉, 삼지연을 돌아 보는데 차도 없었거니와 차가 있다고 해도 차길이 없었다. 그때 일행으로 된 소설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 보느라 아쉽게도 그들의 대부분이 고인이 되였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30대, 40대의 나이여서 기력이 왕성하여 그 길을 걸었다. 그들은 단순히 혁명전적지를 답사한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항일혁명투사들과 연고자들 그리고 목격자들을 수없이 만나 진지하게 취재하였다. 책임자인 최영화인 경우도 단순한 인솔자가 아니였다. 어쩌다 가끔 만나게 되는 화물차나 빠스의 차잡이노릇은 그가 주로 했었다. 뿐만아니라 식사조건을 마련하는 일까지도 그 누구를 시키지 않고 자기가 옹당히 해야 할 일로 여겼다. 그는 그렇게 잡단을 위해 헌신하였다.

백두산정점에 올라 가는 문제에 부닥쳐서는 논의도 분분하였다. 성원들이 그동안 강행군에 너무 지친것도 있었고 바람이 너무 세차서 올라 가다가 도중에 내려 온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 돌고 있었던것이다. 여기서 단장의 결심은 매우 중요하였다. 지금까지 헌신적인 심부름꾼이였던 최영화는 이때만은 책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그리하여 일행은 8월 4일 아침에 백두산을 향해 출발하였다. 무두봉에서 백두산천치까지의 길이

제일 극복하기 어려웠다. 산을 요정넬듯 붙어 치는 바람에 부석들이 날아 돌며 머리며 불을 사정없이 때렸다. 해주학원 학생들은 더는 전진할 수 없었는지 뒤걸음치며 내려 오고있었다. 자기 몸도 가누기 어려운 처지였지만 최영화는 그들의 앞을 막아 서며 인내성 있게 설복하였다. 《물러서는 약자가 되지 말고 뚫고 전진하는 강한 사람이 되라. 동무들이 물러 선다면 혁명을 위하여 희생된 부모들의 뒤를 어떻게 잇겠는가.》 아마 그의 이 충고가 어린 그들의 심장을 울려 주었는지 그들도 힘을 내어 산정에까지 올라 갔다. 그때 일행에 속했던 동맹의 한 책임일군은 지금까지 백두산에 여러차례 올라 갔지만 그때의 인상이 제일 강하게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삼지연에 내려 온 그들은 행군을 계속하여 유곡림산사업소를 거쳐 두만강, 서두수, 무산, 회령, 남양, 선봉 등지를 답사하면서 정열적인 취재활동을 벌렸다.

그 나날에 흥미 있는 일화들도 많았다. 술에서는 주도로 자처하는 윤세중, 리상현, 황건에게 있어서 제일 고통스러운것은 강행군의 피로보다도 일체 술을 엄금한 단장의 조치였다. 성스러운 혁명전적지를 답사하는데 절대로 흐린 정신을 허용하지 않았던것이다. 답사가 거의 끝날 무렵 남양에서 8.15해방의 날을 맞이했는데 명절날이야 어떻게 맹송맹송해 보내겠는가고 생각했던지 단장 최영화가 마을에 나가서 술 몇병을 사들고 들어왔다. 이날 점심은 자못 기대가 컸다. 참으로 오랜만에 잔을 입에 가져 갔는데 그만 술이 너무 역해서 도저히 마실수 없었다. 오죽하면 술의 대가들인 윤세중, 황건조차 마시기를 포기했겠는가. 제일 딱하게 된것은 최영화였다. 그도 애주가인만큼 자신이 술선 수범하기 위해 억지로 마셔 보려 했지만 그도 역시 한모금도 넘기지 못한채 잔을 내려 놓고 말았다. 여기서 유독 큰 잔 하나를 깨끗이 비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리상현이었다. 역한 술은 코를 손으로 막으면 능히 마실수 있다는 비결을 일찌기 터득했던것이다. 이것으로 하여 그는 윤세중, 황건을 단연 압도하고 술의 1인자가 되었던것이다. 그후 이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은 리상현이 그때 술잔을 다 비운것은 남보다 류달리 술을 좋아 해서라고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날만은 금주령을 해소시키면서 동지들을 위해 수고스러이 술을 구해 온 단장에 대한 고마운 감정이 앞섰기때문이라고 했다.

고생스럽기는 했지만 참으로 많은것을 보고 배우고 충격도 대단히 컸던 나날이었다. 모든 일에서 최영화가 책임을 지면 아래사람들은 신경을 쓰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이 편했다. 최영화는 자기의 성실하고도 소탈한 성품으로 집단을 언제나 화목하게 하였다.

장편소설 《준엄한 지구》, 《혁명의 려명》,

《아들딸》, 《태양의 아들》 등을 비롯한 혁명적 대작들은 모두가 이런 답사과정을 밑거름으로 하여 솟아 난 우리 문학의 봉우리들이었다.

그는 소설문학만이 아니라 시문학지도에도 큰 힘을 기울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56(1967)년 5월 25일 당사상사업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을 계기로 우리 당 사상사업부문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 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운명적인 문제로 제기되었을 때 온 나라는 비동된 열기로 들끓었고 우리 시인들은 시대와 혁명이 절실히 요구하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주야로 분투하였다. 그리하여 강령적인 5.25교시가 있는 이듬해에 작가동맹 시문학분과 위원회의 이름으로 서사시 《우리의 태양 원수》가 《로동신문》 2면에 걸쳐 게재되었고 전국이 중대방송으로 청취하였다. 뒤이어 《푸른 소나무 영원히 솟아 있으리》, 《조선의 어머니》가 같은 방법으로 신문에 실리고 전국이 청취하였다. 여기에 참가한 시인들은 정서춘, 리백, 김학연, 김조규, 박세옥, 남태범동무들이었고 이 작품창작조를 총체적으로 책임진 사람은 부위원장 최영화와 당시 분과위원장이었던 정서춘이었다.

《우리의 태양 원수》의 창작전투는 이해 가을 당시 로동성산하 우산장휴양소 1각에서 진행되었다. 지금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에 의하여 이 휴양소가 통채로 작가들의 창작기지로 되어 수많은 장편소설들과 명시, 명가사들이 창작되고 있지만 그때 그 창작조가 우산장에 발을 디딘 첫 작가들이었다.

그후의 서사시창작은 주로 지금의 예술인려관에서 했다. 이 작품을 창작지도하면서 최영화는 창작가들과 함께 밤을 꼬박 밝히곤 했다. 그때 내 나이가 서른세살이여서 밤을 밝히는데는 누구만 못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위원장과 오영재중에 누가 더 견디는가 은근히 지켜 보고 있었던것 같다. 거짓말을 보태지 않아 최영화는 3일을 단 한순간도 졸지 않고 밝히었다. 그는 늘 자기가 밤을 잘 밝히는것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면서 불은 습관이라고 말하곤 하였다. 사흘째 최영화가 밤을 밝히며 시어의 한자한자를 다듬어 갈 때 언제나 곁에서 조력하던 내가 자리에 없은것을 알고 부위원장은 빨리 찾아 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끝내 찾지 못하고 돌아 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 났나 해서 창작성원들이 다 동원되어 있음직한 곳을 다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누가 우연히 려관방벽에 붙어 있는 이불장을 열어 보고 나를 발견했던것이다. 나는 너무도 졸음을 이기지 못해 누구도 찾기 힘든 이불장을 피신처로 택했었다. 결국 나는 밤을 밝히기에서 나보다 아홉살 우인 최영화에게 패했던것이다. 그가 그렇게 밤을 물랐던

것이 단순한 생리적인 우점이었겠는가. 그것은 그의 높은 책임성과 당적과업에 대한 끝 없는 성실성이었던것이다.

새해를 맞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새날에 드리는 첫 기쁨으로 만수대에술단이 신년연회장에서 공연을 하도록 해주신 장군님께서는 그 공연의 첫 순서로 어버이수령님께 드리는 새해의 헌시를 랑송해 드리도록 해주셨다. 그리하여 우리 시인들은 이 헌시를 창작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도를 받는 무상의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정서촌, 리맥 등 시단의 가장 권위 있는 시인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는데 이 창작과정에 대한 지도는 부위원장 최영화와 당시 시문학분과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된 박호범이 맡아 하였다. 헌시의 랑송은 배우들이 했는데 당시 2.8예술영화촬영소의 배우와 예술영화촬영소 너배우였다. 최영화와 이전에도 적지 않은 시를 작업해 봤지만 이 헌시처럼 힘들게 작업해 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그는 표현 하나하나를 그야말로 심중하게 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들으시겠는데 이 표현보다 더 적중한 말이 없겠는지 어떤 때는 사전까지 들추어 가면서 표현을 고르고 골랐다. 그리고 헌시랑송을 배우들이 연습할 때에는 그 억양과 속도, 발음의 정확성에 대하여 귀를 강구면서 따지고 조언을 주곤 하였다.

우리가 가장 긴장했던 순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헌시랑송의 시연회에 나오실 때였다. 지금 만수대에술극장이 자리 잡은 곳, 당시 기록영화촬영소의 소홀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었는데 배우들이 너무 긴장한탓에 다음 시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문이 막혀 버렸을 때에는 우리도 잔등에서 식은 땀이 흘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웃으시며 너무 덤비지 말고 침착하게 다시 해보라고 마음을 꼭꼭 누착혀 주시며 시어들도 다듬어 주시고 랑송자의 몸가짐과 억양에 대하여서도 일일이 깨우쳐 주시었다. 그이께서는 한번의 시연회가 아니라 몇번의 시연회를 거쳐 지도를 주시고 서야 그들을 어버이수령님앞에 내세우시었다.

새해가 밝아 오자 최영화와 나는 배우들과 함께 울령이는 가슴으로 새해연회가 열리는 만수대의사당으로 갔다. 우리 시인들이 쓴 시가 인민을 대변하여 새해를 맞으시는 어버이수령님께 새날의 첫 인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크나큰 행복과 긍지로 가슴부풀어 올랐고 이런 큰 영광을 우리들에게 안겨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 한없이 고맙기만 하였다.

해가 지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언제나 그제나 또 래일이 나 다름이 없다. 하건만 이 아침이 한해가 저물고 새해가 오는 아침이라고 생각하니 하늘도 뜨는 해도 바라보는 수도의 거리도 밝고 가는 흰 눈 덮인 길도 모두가 새롭게만 보였다. 알수 없

는 흥분이 엷은 안개처럼 뭉뚱하며 환희로이 가슴을 떠올리는 새해의 아침, 못잊을 추억과 래일의 희망이 서로 엇갈리며 생각도 깊어 저 한없이 다감해 지고 승엄해 지고 경건해 지는 새해의 첫 아침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두 랑송자가 엇바꾸어 가며 읊는 헌시의 구절구절을 조용히 듣고 계시었다. 랑송이 시작되면서부터 자리를 함께 한 일군들의 눈시울은 벌겉게 젖어 올랐고 시가 절정에 달했을 때 어버이수령님께서도 하얀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 가시었다. 멀리 흘러 간 송화강가의 그 시절을 그려 보시는가, 아쉽게도 일찌기 결을 떠나간 혁명동지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려와서인가, 어머니의 림종을 지켜 드리지 못한 소사하의 집, 혁명을 위해 동지를 위해 인민을 위해 끝없이 걷고 걸으신 그 많은 길, 아픔도 있었고 고난물도 있었고 기쁨도 행복도 있었던 간고하지만 영광도 있고 승리도 있는 자신의 한평생을 돌이켜 보시며 이제 인민을 이끄시고 혁명을 이끄시고 가야 할 먼 길을 그려 보시는가, 그토록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우리 인민이 울리는 그 인사가 그토록 고마우시었던가... 어버이수령님의 승엄하신 그 모습을 우러르며 최영화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더운 눈물이 두볼을 타고 흘러 내렸다. 나는 지금도 주체61(1972)년 새해 그 아침에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며 기쁨에 소리없이 흐느끼던 최영화의 모습을 잊을수 없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몇천몇백밤도 기꺼이 지새우리라, 그 길이 천리라도 만리라도 가고 가리라, 이 몸이 찢겨 지고 가루가 된다 해도 충신으로 도리를 다해 가리라, 이것이 그가 그 아침에 더욱 새롭게 다진 전사의 맹세였다.

주체61(1972)년 11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작가동맹 부위원장사업을 하고 있던 최영화를 문예총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시면서 그를 집무실에 부르시여 접견해 주시는 영광을 안겨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사를 드리는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 주시면서 앞으로 우리 손을 굳게 잡고 수령님을 위하여 일을 잘해 보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때로부터 그의 사업범위는 훨씬 넓어 졌고 그의 어깨우에는 더 무거운 짐이 지워 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극혁명의 포성을 울리시며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주체적인 우리 식 가극을 구상하시고 그 창조사업을 령도해 가시던 나날 그는 장군님의 천재적인 예지와 비상한 창조력에 매혹되어 그이의 뜻을 따르는 길에 자신의 한몸을 다 바쳐 나갔다.

수백년을 내려 오면서 고정격식화된 유럽식가극은 변화되는 시대의 미감과는 너무나 동떨어

져 있었으며 먼지 낀 고문서실에나 보존되어있어야 할 력사의 유물에 불과했던것이다. 그러나 한때 세계를 뒤흔들었던 그 영향력은 집요한것이어서 굳어 질대로 굳어져 버린 그 외피속에서 땀뭍땀서 이미 낡아져 버린 내용과 형식에 대한 자기의 견해나 파악도 없이 덮어 놓고 그것을 숭상하고 절대화하는것을 자기지성의 높이로, 남과 구별되는 자기우월감으로 치부해 왔던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대담하게 그 외피를 깨여 던지고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고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자극을 창조하는것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가극혁명》이라고 불러 주시였다. 이것은 비상한 통찰력으로 시대와 인민을 향도해 가시는 예술의 천재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이 의도하시고 개척해 나갈수 있는 전혀 새로운것에 대한 위대한 창조였던것이다.

문예총부위원장 최영화는 장군님의 그 깊은 뜻을 누구보다도 먼저 파악한 사람이였으며 그 실현을 위해 제일 많이 뛰여 다닌 일군들중 한사람이였다.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과업을 받아안은 그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기 위하여 가극들의 문학대본창작을 자기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바쳐 방조하였다. 그리하여 혁명가극 《한 자위단원의 운명》, 《금강산의 노래》, 민족가극 《춘향전》, 가극 《은혜로운 해빛아래》,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를 시대의 걸작으로 창작완성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돐, 75돐, 80돐 경축작품들인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 《행복의 노래》, 《축원의 노래》 등의 문학대본을 직접 책임지고 지도완성함으로써 이 작품들의 사상정치적대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최근에 최영화를 추억하시면서 그 동무는 5대혁명가극창작에 열성이 매우 높았고 당의 뜻을 알고 말귀가 밝은 사람들중의 한 사람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최영화는 그 영예롭고도 벅찬 창조의 나날 집에서보다도 극장에서 더 많이 밤을 새웠다. 그 나날에 쓴 일기장을 번지면 이런 시도 적혀 있다.

신념의 시작도 충성
신념의 끝도 충성

또 다른 장에는 이런 심장의 고백도 있다.

누구에게나 있다
피로 뿜는 심장은
하지만 아무에게나 있는것은 아니다
넋으로 뿜는 심장은

그는 자기를 수식할줄 모르고 자기를 자랑할줄 모르는 사람이였다. 그는 혁명적인 연사로 만세만 부르는것을 제일 싫어 했다. 그는 일만 아는 일군이였다. 누가 알아 주는것을 바라지도 않았고 낮을 내기위해 앞에 나서기를 싫어 했다.

일기의 다른 장을 펼치면 이런 글도 있다.

《말은 말을 낳고 일은 일을 낳는다》

이것이였다. 이 고백이야말로 그의 진심이였다. 그 진심을 정말로 알아 주신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그러기에 최영화에게 그이께서는 아낌없는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61(1972)년 10월 외국방문문화대표단성원으로 그를 포함시켜 주시고 그가 대표단의 책임을 지도록 해주시였으며 그가 난치의 병에 걸려 함흥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왜 함흥으로 보냈는가를 알아 보시면서 그 병은 영양을 많이 섭취하는것이 좋은데 병원보다 료양소가 낫지 않는가, 료양소에 보내여 휴식도 하고 병도 고치게 하라는 가슴 뜨거운 은정의 말씀까지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에게 한 없는 믿음과 사랑을 베푸시여 주체69(1980)년 조선로동당 6차대회 대표로 선거 받도록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안겨 주시였다. 그리고 그가 생일 60돐을 맞았을 때에는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고 그후 그를 문예총 제1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주시였으며 《상》을 수여 받도록 해주시였다.

최영화는 은혜도 많이 받아 안았고 그에 보답하기 위하여 일도 많이 한 일군이였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자책속에 살아 왔다. 그는 해놓은 일, 하고 있는 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해와 같은 사랑에 비하면 작은 하나의 물방울에 불과하다고 늘 생각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심정을 시에 담았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그가 올린 시 《모시고 모시렵니다》의 한 구절을 보자.

...

모시는 삶의 날이 더 많았으면
세상에 더는 바랄것이 없으련만
아까운 세월은 빨리도 흘러 갑니다
하지만 전사의 참된 삶의 가치는
인생의 길이로는 켤수 없고
모시는 높이로만 빛나는것이 아닙니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여
모시려는 저의 마음은 하늘에 닿아
그 높이는 끝이 없어도
티가 물을세라
제 마음의 옥을 닦고 닦아서

순간을 변할세라
 제 마음의 금을 닦고 닦아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 하늘에 기어이 닿으렵니다

나는 지금 그가 자필로 쓴 시를 이 원고지우에 올리며 그의 낫 익은 필적을 들여다 보고 있다. 글씨를 보니 지금도 그가 살아 있는것만 같고 장군님을 그리며 높아 지는 그의 숨결소리가 들려 오는것만 같다. 훌륭한 선배시인이며 충신의 본보기라고도 말할수 있는 그가 이제는 영영 우리곁에 없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아프다.

필적을 보니 또 생각나는것이 하나 있다. 좀체로 자기를 자랑할줄 모르는 그가 자기 글씨가 명필에 가깝다고 통당 삼아 말한것이 기억된다. 그 말에 나도 웃으며 수긍했는데 그의 글씨는 씩씩 씩씩하고 일정하게 격이 있고 세련미가 있는것만은 사실이었다. 《정말 보고 또 보니 명필이 분명합니다.》 내가 이렇게 웃으며 말하자 자기에 대한 자랑이 쑥스러웠던지 《무슨 또... 그저 해본말이지.》 하면서 어색하게 웃음 짓던 그 얼굴이 글자우에 떠오르고 그 숨결이 내 불에 스치는것만 같다.

심장의 붉은 피로 쓴 시

인간은 시작도 아름다와야 하지만 마무리도 아름답고 깨끗하여야 한다. 여운이란 시작한 소리의 울림이 아니라 마지막소리의 울림이다. 마지막소리가 아름다와야 여운도 아름다운 법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마무리를 깨끗이 하고 싶어 하지만 욕망대로 그렇게 쉽게 되는것도 아닌것 같다. 한창 일할 나이에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쉬운감을 느끼게 하지만 모든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집요하게 자리지킴을 할 때 그 인간은 이미 생의 여운을 잃어 버린 존재라고 봐야 할것이다. 사람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자기의 가치 있는것을 기여할 때 아름다운것이며 사회라는 차바퀴를 밀어줄 힘이 없어 그 차우에 실리지 않으면 안될 짐이 될 때 그 인간은 가치 없는 무용지물의 처지로밖에 달리는 필수 없는것이다. 인간의 로쇠는 불가피하지만 그 가치를 잃어서는 안된다. 그 가치를 마지막순간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것은 그 인간의 수양과 인격문제이며 그것은 사회에 대한 도덕과 량심에 관한 문제이다.

주제83(1994)년이라고 생각되는 해의 어느 날 함께 퇴근길을 걸으면서 최영화는 나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 《나는 얼마전에 문예총 제1부위원장사업을 줬은 사람에게 맡겨 줄것을 정식으로 당에 제기 했소.》 자못 심중한 어조였다. 《아니, 1부위원장동지야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고 사업할 능력도 얼마든지 있는데 왜 서둘러 그만 두자

고 합니까. 좀 더 일할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한 이 말은 그를 위안하자고만 한 말이 아니였다. 그의 말이 너무도 뜻밖이였고 나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가 일군으로서 결코 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아. 남이 자기를 알기전에 먼저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

최영화가 알고 있다는 자기란 어떤 자기였을것인가. 그도 자기가 아직은 사회와 집단의 짐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을것이다. 그러나 젊고 진취성이 있는 일군이 문예총사업을 맡아 하면 혁명에 더 리롭겠다는 그의 량심이 그런 결단을 내리게 한것이다. 한생을 몸 담고 거기에 습관이 된 그 책임적인 자리를 스스로 내놓는다는 것은 결코 험한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60전에는 60만 넘으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났겠다고 자주 말해 왔지만 정작 60을 넘고 나서는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싶이 그 자리를 버리고 있는 사람이 어찌 한두사람이라.

퇴직을 당에 제기한 최영화의 심중은 착잡했을것이며 생각도 많았을것이다. 퇴근길에서 그것을 나에게 말하는 최영화의 얼굴에는 서글픈 미소가 비껴 있었다.

그의 요구대로 이듬해 9월 넓은 사무실과 사업용승용차를 고스란히 놓고 그는 자택으로 들어왔다. 드물기는 하지만 어떤 일군이 그 자리에서 물러 서거나 다른 곳으로 조동되는 경우 그에 대한 존경심마저 사람들로부터 잃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그 일군의 인간을 존경한것이 아니라 그의 권한과 직위를 《존경》 했기때문일것이다. 그러나 최영화는 그런 직위에서 물러난 그야말로 우리와 다른없는 《평민》이 되였지만 그에 대한 사람들의 존경은 여전히 변함 없었다. 아니 그때보다 그에 대한 존경심은 더 높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가 우리곁을 떠나는 날까지 그를 동지나 선생으로 부른것이 아니라 1부위원장동지로 불러 주었다.

그는 한때 자기가 지도하는 단위의 아래일군이였던 동맹과 분과의 창작지도일군들에게 각듯이 존경어를 쓰며 그들이 주는 과업을 무겁게 받아안고 열심히 집행했으며 세포비서로서도 젊은 당일군들앞에 자기의 분공수행정형을 성실하게 보고하곤 하였다.

그의 창작을 두고 말한다면 그가 한생토록 쓰고 발표한 시들은 약 150여편 정도이다. 주제37(1948)년에 서정시 《휴양의 밤》, 《가을》 등의 처녀작을 발표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내쳐 시를 썼다면 아마도 1,000여편의 시를 쓰기도 남았을것이다. 그는 한생의 대부분을 창작행정사업과 창작지도사업에 바쳐 왔기때문에 자기의 글을 쓸 시간을 내지 못했고 다른 작가들의 글을 도와주는 일만 하였다. 그가 모든 짐을 다 벗어 버

리고 전문적으로 창작에만 시간을 낼수 있는 기간은 주체84(1995)년 퇴직한 다음부터 그의 생이 끝난 주체91(2002)년까지였다.

그러나 편수가 많아야 대가가 되는것은 아니다. 그는 비록 많은 량의 시는 쓰지 못했지만 행정 사업을 하는 그 나날 짬짬이 쓴 시들중 우리 문학사에 남고 독자들의 기억속에 남는 좋은 시들이 많다.

글은 곧 사람이라고 한다. 창작품은 곧 그 인간의 반영이며 복사이다. 파장기가 있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진정이 넘치는 그런 글을 써낼수 없고 그런 경우 그의 글은 언제나 파장이 많았고 공감될수 없었다. 또한 집단과 동지들에 대하여 뻔뻔한 시인, 집단을 위하여 자기를 바칠줄 모르는 리기적인 인간에게서는 그의 글도 언제나 령기가 풍겼다.

최영화의 시들은 그 인간처럼 진실하고 뜨거운 것으로 특징지어 진다.

당은 어머니에게도 비길수 없는 크나큰 사랑으로
그 가슴에서 샘치듯 솟는 젖모금으로
나에게 어떤 힘으로도 꺾을수 없는 삶의 노래를
길러 주었거니

...
내 만일 잠시나마 당의 이 젖줄기를 놓친다면...
깊은 밤, 끓아 떨어 진 잠결에서조차
내 만일 이 붉은 젖줄기를 빨지 않는다면
순간 나의 생의 노래는 끊어 지고 심장은 멎으리니...

아, 나는 살수 없어라, 한평생을~
아기는 돌전에도 엄마의 젖줄기를 떨어 저 살수있어도
나는 정녕 살수 없어라, 수령님의 당의 이 붉은 젖줄기가 없이는!
-시 《젖줄기》〔주체52(1963)년〕 중에서-

이 시는 시인이 시를 썼다기보다 인간이며 당원인 최영화의 어머니당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며 심장의 토로이다. 여기에는 망국노의 설음속에 이역땅에서 울던 최영화가 있고 당의 품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 안고 사람다운 삶을 누려 온 생의 총화가 있다. 그러기때문에 그의 성공작들의 거의나가 당을 노래하고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노래한 시들이다.

주체47(1958)년 8월 그가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면서 쓴 시 《당의 숨결》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
조국의 오늘과 먼먼 앞날까지를
우리에게 영영 맡겨 준 당이여

...
나는 행복하구나 언제나 나의 심장엔
온 땅우의 힘- 당의 숨결이 고동치고 있기에!
나는 살수 없구나 언제나 그것 없이는
나의 삶의 영원한 봄-동지의 당이 없이는

떨어 저서는 살수 없고 그것 없이는 살수 없다는 당에 대한 시와 노래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시인들에 의하여 씌여 지고 있는가. 나는 50년대에 최영화에 의하여 이미 씌워 진 표현들을 답습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시인들을 시비할 생각은 없고 다만 그만큼 그의 표현력이 사람들의 공통된 심정을 오래전에 아주 적중하게 대변하고 있었음을 말할뿐이다.

그밖에도 그의 대표작으로는 《크나큰 사랑》(1959년), 《태양이 누리에 빛나는 이 봄에》(1972년), 《조선의 세월》(1997년), 《심장》(1961년), 《나의 그리움》(1997년), 《2월》(1974년), 《위대한 날에》(1980년), 《소중한 하루》(1987년) 등이 있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노래한 《뿌리》(1964년), 《가림천기슭에서》(1964년), 《거울같이 산 이름들》(1998년), 전후 사회주의건설의 벽찬 현실을 구가한 《사회주의가수》(1958년), 《천리마로!》(1958년) 등을 추억에 남는 시들로 간직할수 있다.

많지 않은 시를 썼지만 인상 깊은 시들을 남긴 그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시인으로서의 그의 심증을 고백한 비망록의 몇대목을 여기에 적어 본다.

종이우에는 시가 없다
책상우에도 시가 없다
남의 시집에도 자기의 시가 없다
오로지 시는
시의 어머니
현실생활에서만 고고성을 터친다
이 고고성이 인민의 심장을 울릴 때
비로소 기억속에 남는 시가 태어나리
비로소 인민의 시인, 당의 시인이 되리

×

시란 생활에서 우러나오는것이
빈 머리에서 교안해 내는것이 아니다

×

시는 언제 태어나는가
마음이 순결할 때, 감흥에 사로잡힐 때-
시는 어디서 태어나는가
량심에서, 사색에서

×

시를 말할 때 근본은 넓이다
넓이 혁명적인가, 진보적인가, 보수적인가
이 넓이 그대 놓은것이 시이다

×

시인은 시대를 안고 몸부림치는 그런 시인이
되어야 한다. 시대를 안고 시대를 꽃 피우기 위
해 땀을 흘리고 삶의 피를 끓이는 사람들, 이들
의 정신세계가 시이다. 시대를 정면으로 뚫고 들
어가 노래하라. 여기서 시인이 비켜 설 곳이 없
다.

작가동맹의 공로보장작가로 있는 6년동안은 그
가 처음으로 모든 사업부담에서 벗어 나 마음껏
창작에만 몰두할수 있었던 최상의 기회였다. 그
에게는 나이에 비해 너무도 건강한 체력이 있었
고 열정이 있었다.

그무렵 우리 시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칠보
산을 현지도하신 감동적인 사실에 접하였고 그
이께서 하신 말씀을 전달 받았다. 아버지장군님
께서는 칠보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여러 말씀을
주신 끝에 겨울에 칠보산을 보는 그 경치가 또
한 류다를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 시인
들은 눈 덮인 겨울에 칠보산을 답사할 결의들을
다지고 칠보산창작조를 편성했는데 최영화가 거
기에 자원해 나섰다.

교통도 불편한 조건에서 특히 겨울에 등산하게
되는데 어떻게 년로한 몸으로 갈수 있겠느냐 하
면서 만류도 해봤지만 그의 결심을 굽힐수 없었
다. 일행은 떠나면서부터 추위에 시달렸고 숙식
조건이 잘 마련되지 않아 끼니를 번질 때도 있었
다. 바람도 맵쌀 화물차우에서 가드러 드는 몸을
뒤척이다가 박호병동무는 허리에 타박까지 받았
다. 젊은 사람들도 힘에 겨운 출장길인데 하물며
최영화가말로 얼마나 어려운 길이었으랴. 그러
나 일행중에서도 제일 곳곳이 견디여 낸것은 최
영화였다. 그들은 돌아 와 위대한 장군님께 11편
의 시를 보고 드러 장군님으로부터 작품이 잘되
었다는 친필을 받아 안는 영광을 지니었다.

그 산수련시속에 최영화가 쓴 《정이월 눈칠보》
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겨울의 칠보산의 경치
또한 류다를것이라는 그 말씀에서 종자를 쥐고
눈 덮인 칠보산을 보면서 자기의 걱정을 터뜨린
것이다.

꽃도 지고 단풍도 지고
눈이 내렸네

이렇게 시작한 시는 기암절벽에 흰 돌꽃 피우
고 락락장송에 흰 솔꽃을 피운 칠보산의 아름다
운 경치를 그림처럼 그려 나가고 있다. 그 황홀
한 경치가 너무도 신기해 바람아 부디 불지 말라
고 다감하게 속삭이고 있다. 기암절벽의 눈꽃단
장이 형클어 지고 칠보눈가루에 티를 엮을것 같
아서... 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설경의 명산아 백설의 명산아
꽃칠보도 좋고
단풍칠보도 좋지만
정이월 하늘가에
눈칠보가 제일경이로다

아, 칠보 눈경치에 반해
내 늙음을 잃노라
오늘의 이 설경을 못 보았다면
내 인생의 한이 되었으리

최영화의 시계열에서는 이채로운 시이다. 너성
적인 섬세성도 보이고 동심도 깃든것 같은 다감
하고도 감흥이 새로운 이런 시를 현실을 체험하
지 않고 어떻게 책상머리에 앉아서 쓸수 있으랴.

행정직무에서 풀려 난 6년동안 그는 작가동맹
기관지들을 비롯한 여러 출판물들에 많은 시를
써서 발표했고 걸음도 제일 많이 걸었다. 주체89
(2000)년 정초에는 새 천년대를 맞는 2월의 봄명
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 드릴 시를 쓰기 위하여
백두산에 올라 밀영의 고향집을 찾았다. 거기서
써가지고 온 시가 시인의 말년을 빛나게 장식한
시 《가노라》이다. 《우리의 고향집은 백두산에
있다》라는 제목의 련시중 첫번째로 놓인 이 시를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 련시에 대하여
《잘 썼음》이라는 평가의 친필을 주시면서 최영화
동무의 시가 좋다고, 역시 로시인의 시가 다르다
고, 그가 지금 일흔네살인데 건강과 생활을 잘
돌보아 주라는 은정어린 사랑의 말씀까지 주시였
다.

시 《가노라》는 다음과 같다.

가노라
이 세상에 짐들은 많고 많아도
그리워 못 잊는 소백수가 작은 귀틀집
눈 내리는 정이월이면
더더욱 그리워
내 오늘 이 길을 가노라

마음으로도 걷고

꿈속에서도 걷던
낮 익은 길
백두밀영의 고향길
백설은 차겨워도
넋은 뜨겨워...

이 세기에 탄생하시어
이 세기를 백두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분
혁명의 장장 만리길우에
조국의 큰 집을 빛내이시는분

가노라 백두산을 찾아
가는 세기 오는 세기 다 안고 솟아 있는
장군님의 고향집
인민의 고향집
아, 우리의 고향집은 백두산에 있어라

이것이 시의 전문이다. 짧은 시속에 많은 뜻과 이야기들을 함축하고 있는 세련된 기교를 엿볼 수 있는것이 기쁘다. 시에 쓴것처럼 고향집을 찾아 가는 길은 마음으로도 걷고 꿈속에서도 걷던 길이다. 그러기에 백설은 차겨워도 그의 넋은 뜨거운것이다. 세기가 교체되는 시각에서 그가 고향집을 보는 감정은 류다르다. 집은 가는 세기, 오는 세기를 다 안고 솟아 있는 혁명의 집이며 때문에 우리 인민모두에게는 하나의 고향만이 있는바 그 집은 백두산에 있는 장군님의 고향집이라는 전 인민적감정을 감명 깊게 노래하고 있다.

생의 말년에 이를수록 그의 시는 보다 세련되어 갔으며 그의 창작은 원숙기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아마 그가 불치의 병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시, 더 많은 시를 썼을것이다. 이 글의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그의 건강이 그렇게도 급격히 파괴될줄이야. 자신도 몰랐고 우리도 몰랐었다. 불치의 병 진단을 받고 집에 누워 있던 어느 하루 그는 시분과위원장을 불렀다. 그를 찾아 갔을 때 병상에서 겨우 몸을 일으킨 그는 3편의 시를 주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는 2월의 봄명절을 계기로 보고 드려 달라는 요청을 했다. 그무렵 그의 육체적조건은 창작이라는 파중한 정신적로동을 도저히 허용할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7월 백두의 고향집을 찾았을 때 써가지고 온 초고를 몇번 개작했고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병상에서 완성한것인데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남 다르게 강의한 정신력의 산물이였다. 그무렵 시창작실에서는 2월의 명절을 계기로 보고 드릴 시창작전투를 진행하고 있었다. 분과위원장은 그 시들을 합평하는 자리에서 최영화의 시들을 내놓으면서 말했다.

《동무들이 쓴 시들과 이 시를 대비해 볼 때 얼마나 대조적인가. 동무들이 쓴 시들은 책상머리에서 고안해 낸것이라면 최영화선생의 이 시들은

시인이 온 육신을 다 바쳐 넋으로 쓴 시요.》
짧은 시인들은 그 시들을 보면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봄노을이 피는 제절》이라는 큰 제목밑에 《고향집을 다시 찾아》, 《하늘땅이 새긴 이름》, 《2월의 축원》이라는 분제목으로 된 그의 시묶음이였다. 시 《고향집을 다시 찾아》에서 시인은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길로 마음이 나를 이끌었다고 하면서 몇번이고 다녀 본 정든 집이지만/ 그리움은 언제나 봄노을처럼 피어/ 내 나이 일흔다섯에 푸른 배낭을 메었노라/ 라고 노래하면서 그 품에 흰 머리를 묻는다, 그러면서 소백수의 구슬물소리, 밀림의 푸른 설레임소리, 고향집 정든 바람소리를 평양으로 안고 가고 싶다고 절절한 homesickness의 감정을 토로하고 있다.

그리하여 2월의 대명절 새벽이 밝으면
내 오늘 심장에 새겨 안은 이 모든 음향을
멀리 백두의 고향하늘에서 울려 오는
2월의 경축교향악의 울림으로 들으며
우리 장군님의 백두산집에 안기리라

시는 이렇게 끝나고 있다.

다음의 시 《하늘땅이 새긴 이름》에서는 정일봉을 바라보며 거대한 천연절벽봉우리 그 모습은 마치 빨찌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의 존함을 새겨 안은 고향집의 문패 같고 백두산의 문패 같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최영화의 머리속에서 섬광처럼 번뜩인 매우 훌륭하고 빛나는 시적발견이 아닐수 없다. 백두산고향집과 정일봉을 많은 시인들이 노래했는데 정일봉에 새겨진 위대한 장군님의 존함을 우리르면서 그것을 백두산주인의 문패 같다고 왜 이날까지 느끼지 못했던가. 그렇다. 백두산은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을 한품에 안아 주고 있는 거대한 하나의 집이며 그 집의 주인은 우리 장군님이신것이다. 아마 지구우에 솟아 있는 높고낮은 산봉우리들을 모두 합치면 하늘에 널린 별들보다 그 수자가 많으려면 제 이름을 거창히 새겨 안고 세상에 도고히 솟아 하들도 알고 땅도 아는 봉우리는 단 하나 백두산의 우리 정일봉뿐인것이다.

시 《2월의 축원》은 자신이 한생토록 믿고 의지해 온 마음의 기둥이시며 자기의 삶을 그토록 빛내주시며 온갖 사랑과 신임을 안겨 주신 위대한 스승이시며 은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더 오래 받들지 못하고 떠나가야 하는 전사의 죄스러움을 안고 아버지장군님께 마지막으로 허리 굽혀 깊이 드리는 눈물의 인사이다.

장군님, 아버지장군님!
로동당세월을 청춘세월로 수 놓아 오신
그 청청한 모습으로

길이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길이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이 시들을 시문학분과에 제출한후 그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귀중한 그의 생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 보려고 당이 취한 조치였다. 그가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은 며칠후 나는 그의 입원실을 찾아 갔었다. 입원실문을 열려던 순간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제 더는 그 무엇으로써도 구원할 길 없는 환자를 방문할 때마다 언제나 느끼는 감정이지만 이제 그를 만나 무슨 말로 위안할 것인가.

나를 보자 언제나 웃어 보이던 그런 표정은 이제는 사라져 버렸고 나의 손만을 꼭 쥐었는데 여느 때보다 어쩐지 차보였다. 나는 선생의 그 시가 참 좋아서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 드리게 되었다는것을 알렸다. 그는 시가 좋기야 뭘 좋겠는가, 늙은 사람이 썼고 또 내가 요구했기때문이겠지 하며 그때야 비로소 약간 웃어 보였다. 그는 너무도 자기의 병을 잘 알고 있었고 생명을 더 오래 지탱해 낼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보고 건강해서 글을 더 많이 쓰라고 고무했다.

그와 나는 대화를 생각나는대로 적어 본다.

《내 병은 오래 가는 병이야. 좋아 질수도 있어. 지금 다만 술을 못 마시니... 비정상이지.》

《몸이 회복되어 퇴원해 나오면 우리 집에서 한잔 합시다.》

《그래, 그러면 제일 가까운 오동무네 집을 찾아가야지.》

그는 한동안 생각에 잠긴듯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내가 한생을 살아 보니 잘한 일보다 하지 못한 일이 더 많아... 우리 장군님을 생각하면 더 오래 살고 싶어... 전사가 의리를 다한다는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 오동무! 장군님께 기쁨이 될 좋은 시들을 많이 쓰라구. 나는 그러지 못했어. 그리고 우리 장군님앞에 성실하고 문학앞에 진실하라구. 시는 그 인간의 진심이고 그러기에 시인은 당앞에, 인민앞에 자기의 진심을 바치는 사람이 아닌가!》

잠언과도 같은 이 말은 그가 한생을 살아 오면서 마음 정한 좌우명이며 그렇게 살기 위해 그는 자기를 채찍질해 왔던것이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 설 때 그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입원실 복도에까지 나왔다. 내 손을 꼭 잡으며 그는 말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영원히 잊지 않겠소.》

이 말이 그에게서 들은 마지막말이였고 내가 굽이돌아 계단을 내려 올 때까지 서 있던 그 모습이 그가 살아 있을 때 본 마지막모습이었다. 나는 울컥 쏟아 지는 눈물을 감추느라고 그가 보이지 않는 2층계단에 한동안 서서 마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그로부터 얼마후 그는 다시 퇴원했다. 집에서 안정치료를 받고 있던 2월 8일이였다. 아침 10시경에 작가동맹 초급당으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영화가 올린 시를 보아 주시고 친히 낱자와 존함을 새겨 주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본인에게 빨리 알려 주고 싶었던것이다. 그 소식을 받은 그는 몹시 흥분해 있었고 간호하는 아들 최훈과 딸 최윤에게 오늘 신문이 왔는가고 초조하게 물어 보았다. 그 날 따라 신문배포가 늦어서 그는 《로동신문》 2월 8일부 4면에 실린 그의 시를 보지 못한채 세상을 떠났다.

시인 최영화가 세상을 떠나간것을 못내 가슴 아파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그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며 최영화시선집을 출판하도록 크나큰 은정과 배려를 돌려 주시였다.

그는 한생을 안겨 산 아버지장군님의 품속에서 오늘도 영생하고 있으며 언제나 성실하고 겸손하고 소탈한 그의 모습은 우리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 있으며 그가 남긴 시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의 길로 힘차게 내닫고 있는 우리 인민들을 오늘도 뜨겁게 고무하고 있다.

한생을 성실하게 살았으며 깨끗이 마무리한 귀중한 문학선배 최영화!

그가 남긴 생의 여운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속에 울리고 있다.

음악에 대한 이야기

강귀미

나는 음악을 잘 모른다. 그러나 오늘은 음악에 대하여 써보려고 한다. 나의 음악에 대한 생각이란 오빠들에 대한 생각이다.

나에게는 두 오빠가 있다. 한 오빠는 이름 있는 중앙예술단의 트럼베트수로 활약하고 있고 다른 오빠는 화강석광산에서 일하고 있다.

이쯤하면 사람들은 내가 트럼베트수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오빠에 대하여 쓰려는것이라고 생각할것이다.

그러나 나는 음악세계에서 사는 큰오빠가 아니라 화강석광산에서 돌을 캐고 있는 오빠에 대하여 쓰려는것이다.

뭐라구? 돌 캐는 오빠에 대하여? 그것 참, 음악에 대하여 쓰겠다면서 돌 캐는 오빠에 대하여 쓰겠다는건 도대체 무슨 소린가. 돌과 음악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고 사람들은 말할것이 분명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 말이다....

...

아마도 이야기는 머나먼 옛 시절 우리 일가가 일본땅에서 살던 비참한 시절로부터 시작해야 할것 같다.

...

1

나의 유년시절은 일본땅 교토의 가쓰라가와철 다리옆에 있는 자그마한 집에서 흘러 갔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흘러 가는 강물소리, 굴러 가는 차바퀴소리며 가슴을 까닭없이 애수로 가득 채우던 기적소리와 함께 가난에 짓눌리워 나날이 작아지는듯 하던 옛집이 가슴 아프게 추억된다.

아버지는 텅마달구지를 끌고 다니는 일을 했고 어머니는 물고기가공공장에서 정어리에 사탕가루와 식초, 참깨를 뿌려 말리우는 일을 하다가 그 일마저도 조선사람이라고 내쫓기워 아라시야마의 직물공장에서 물들인 천을 강바닥에 널어 말리우는 일을 하였다.

생활은 이루 말할수없이 어려웠다.

부모들은 우리 형제들을 조선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지만 그 학교까지 다닐 차비를 대줄수 없어 가까운 일본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작은오빠가 소학교 3학년에 다닐 때 있었던 일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 있다.

어느 날 밤 옷방에서 들려 오는 말소리에 낯아빠진 인형을 안고 장난질하던 나는 귀 기울이었

다.

《어머니, 아직 식비를 못 벌었나요?》

둘째오빠의 말소리였다.(일본학교에서는 달마다 월사금과 함께 식비도 내야 했다. 그래야 점심 시간에 빵과 우유, 국 같은것을 내준다.)

《머칠 더 기다려라. 그래서 대신 매일 낮밥을 싸주지 않았니?》

《일본아이들앞에서 보리밥에 무우짬아찌를 꺼내 먹으랴요?》

《그럼 그동안 점심밥을 안 먹었던 말이나?》

《...》

《왜 대답이 없노?》

안타까와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급식시간이면 운동장 한구석에 나가 있다가 시간이 되면...》

《그래서?》

한참후에야 기여 들어 가는듯 한 오빠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려 왔다.

《수도에 가서 물을 마시고 입을 적신 다음 교실에 들어 가군 했어요. 아이들이 물어 보면 빵먹기 싫어서 식당에 갔었다고 거짓말을...》

오빠는 채 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거렸다.

평시에 말수더구가 적은 둘째 오빠였다. 오죽하면 어머니앞에서 그런 하소연을 하였을가.

《이것아...》

어머니는 우시는듯 했다.

(불쌍한 둘째 오빠!)

나도 눈물이 나왔다. 하여 가지고 놀던 낯은 인형으로 얼굴을 싸쥐고 혼자서 울었다.

그때 내 나이 일곱살이었다.

그 나이적에 여러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그 기억만은 오늘까지도 생생히 남아 있다.

우리 집은 그렇듯 가난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가난한 우리 집에서 음악적재능이 싹 터 자라기 시작한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흔히 사람들은 음악적재능이란 유전이라고들 한다.

베토벤이나 모짜르트는 부모들이 다 음악가였고 쇼펜, 슈베르트, 차이콥스키들도 부모들이 음악가는 아니었지만 대단한 음악애호가들이었다.

그러나 우리 집은 음악세계와는 한조각의 인연도 없었다. 있을수 없었다.

피리 같은 대중적인 악기조차 없는 우리 집이었으니까. 그러나 큰오빠는 어떻게 되었는지 라꾸난중학교 취주악대에서 1번 트럼베트수로 되었

고 음악수재라고 알려 졌다.

라꾸난중학교의 취주악대는 당시 교포에서는 물론이고 일본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나 있었다. 그 취주악대에서 큰오빠는 단연 제1트럼베트수였다.

그때 당시 갓쇼인소학교 6학년생이었던 둘째 오빠도 트럼베트에 대하여 취미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큰오빠는 집에서 멀지 않은 폭포수 내리는 바위터에서 트럼베트를 연습하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그옆에는 언제나 한 소년(둘째 오빠)이 악보를 들고 서있었다. 마치 보면대처럼...

곡선을 이룬 트럼베트는 번쩍번쩍한 금빛이었다.

나팔은 입술의 움직임과 손가락의 누름에 따라 도, 레, 미, 화, 솔, 라, 씨, 도의 음계들이 조화를 이루며 류창한 선율을 울려 주곤 하였다.

그럴 때면 둘째 오빠는 흥분으로 저도 모르게 몸을 떨곤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베트의 연주법을 하나하나 눈으로 익혀 나갔다.

그러나 둘째 오빠는 한번도 트럼베트를 손에 쥐어 보지를 못했다. 큰오빠가 트럼베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였기때문이었다.

어느 날 큰 오빠가 철공소에 나간 사이 둘째 오빠는 더는 참을수 없어 감추어 둔 트럼베트를 꺼내 찾아서 꺼내고야 말았다.

눈에 익혔던대로 해보니 예상외로 소리가 잘 나왔다. 한시간쯤 불다가는 첫째 오빠가 울 시간이 되면 도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곤 했다.

그때 나는 제방쪽에 올라 가서 둘째 오빠의 《보초병》이 되어 망을 보아 주었었다.

하여 둘째 오빠는 그 동안 이런 《도적연습》으로 트럼베트를 꽤 다루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였다. 한달남짓이 지난 어느 날 그만에야 큰오빠한테 들키고 말았던것이다.

내가 망을 보아 주다가 헛눈을 판 사이에 불쑥 큰오빠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런줄도 모르고 집에서는 트럼베트소리가 여전히 요란스레 울려 나오고 있었다.

큰오빠는 한번에 얼굴이 무섭게 험상궂어 지더니 썩-하고 집으로 달려 갔다.

가슴이 덜컥해 진 나도 뒤따라 달려 갔다.

집으로 들어 가자마자 큰오빠는 둘째 오빠에게서 트럼베트를 뺏 빼앗아 내며 《이건 뭐야?》하고 소리쳤다.

갑자기 일어 난 일이라 둘째 오빠는 어리벙벙해 있었다.

큰오빠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 졌다.

《이게 어떤 트럼베트인줄 몰라? 채 빛도 못 짙은 트럼베트이라는걸 모르는가 말이다. 그 빛때

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가 연장작업을 하고 있어! 장난감인줄 알아?》

그런데 기가 꺾이울줄 알았던 둘째 오빠의 입에서는 뜻밖에도 포랑포랑한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난 장난한게 아니야. 형, 나도 트럼베트를 배우고 싶어!》

《뭐?》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큰오빠의 목 가라앉은듯 한 목소리가 울렸다.

《트럼베트는 배워서 뭘 하겠다는거냐? 나를 보렴. 트럼베트를 잘 분다고 소문났지만 조선사람이라고 어느 회사에서도 받아 주지 않아 철공소에 겨우 들어 간걸. 철공소에서는 손가락병신이 되어 버리구. 오죽하면 내가 철다리밑으로 떨어져 죽을 생각을 했겠니. 너만은 제발...》

《...》

그것은 모두 사실이었다. 큰오빠는 철공소에서 손을 다쳐 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일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런 손으로는 트럼베트를 볼수 없었다. 절망한 큰오빠는 철다리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다가 지나가던 동포에 의하여 저지 당했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둘째 오빠가 무슨 대답을 할수 있었으랴.

그후 큰오빠는 둘째 오빠에게 《트럼베트사용금지령》을 내렸고 어덴지 찾을수 없는 곳에 트럼베트를 감추어 버렸다....

그러나 둘째 오빠의 《트럼베트열》은 식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광적으로 타올랐다.

어느 날 음악시간이었다. 음악실에서 수업을 끝내고 학급학생들이 다 나갔지만 둘째 오빠만은 따라 나가지 않고 서 있었다.

장안에서 트럼베트가 반짝거리고 있었던것이 다.

저도 모르게 트럼베트에 손이 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음악교원의 표독스런 얼굴이 떠올랐다.

트럼베트에 갔던 손이 저절로 움츠러 들었다.

그러나 유혹은 너무도 컸다.

다시 손은 트럼베트로, 그러다가 손이 도로 내리워 지고...

이러기를 몇번!

끝내는 트럼베트를 꺼내고야 말았다. 손에 쥐자 갈증에 시달린 사람이 물병을 덜쳐 쥐고 병아 구리를 입에 가져 가듯 나팔꼭지를 입에 가져 갔다. 붕- 소리가 울렸다.

트럼베트소리가 울리기 시작하자 가슴을 두드리던 방망이는 어디로 사라지고 온 마음이 트럼베트소리속에 빠져 들어 가고 말았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이건 뭐야?》

라고 하면서 어깨를 치는 바람에 뒤를 돌아 본 둘째 오빠는 그만 그 자리에 굳어 저 버렸다.

교장과 담임선생이었다.

《조센징 학생이 아닌가. 누가 마음대로 악기를 만지라고 했는가.》

교장은 오빠의 손에서 트럼페트를 뺀 채 빼앗았다.

이날 트럼페트에 마음대로 손을 댄 조센징 학생에게 담임교원은 다음 수업시간 칠판옆에 내다 세워 놓고 물이 가득찬 바께쓰 두개를 량손에 들고 한시간동안 서 있게 하는 벌을 주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바께쓰의 물무게와 함께 수치가감까지 덧실려 오빠의 두팔은 빠지는듯 했다...

그러나 이 일도 둘째 오빠의 트럼페트열을 식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트럼페트를 배우려는 욕망은 민족적반항심까지 합쳐 더욱 불 타올랐다.

그로부터 얼마후 둘째 오빠는 소학교를 졸업하고 라꾸난중학교에 입학하였다.

라꾸난중학교는 앞에서 말했지만 교토시에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취주악대가 이름난 학교였다. 학교취주악대의 학생들이 하얀 해군복 비슷한 취주악대 제복을 입고 펼쳐 나서면 못학생들의 부러워 하는 눈길들이 집중되곤 하였다.

그만큼 그 악대에 뽑히는것도 조련치 않았다.

입학 첫날, 학교당국은 취주악대의 후비양성을 목적으로 음악적소질이 있다는 학생들에게 악기를 다루어 보게 하였다.

학생들의 결에서는 그들의 부모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어 학생이 시험을 치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이 학교에서 취주악대에 뽑힌다는것은 이만저만 큰 영광이 아니었던것이다.

《선생님, 우리 애는 여덟살때부터 개별교수를 받았어요.》

《선생님, 나는 ××경찰서 서장입니다. 이 애가 아들이구요.》

《선생님, 이것이 제 명함장울시다. 우리 건축회사에 신세질 일이 있으면 기꺼이 찾아 오시오.》

이 학부형들의 힘겨름 같은 광경을 한쪽 구석에 외롭게 홀로 서서 말없이 지켜 보는 한 소년이 있었다. 그는 나의 둘째 오빠였다.

아양과 수선스럽던 분위기가 비교적 조용해 졌을 때 교원의 앞으로 다가갔다.

《선생님, 저를 취주악대에 받아 주십시오.》

학부형들의 시달림에 녹초가 되어 버린 교원은 후견인도 없이 자기앞에 다가온 당돌한 학생을 행동만 바라보기만 하다가 물었다.

《너는 부모가 없는가?!》

《있습니다. 다 일 나가서 오지 못했습니다.》

《흥...》

그러나 학생은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다.

《선생님, 시험에 부모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제 실력으로 붙고 싶습니다.》

둘째 오빠의 대답을 들은 교원은 유심히 지켜보더니 《무슨 악기를 다룰줄 아는가?》하고 물었다.

《트럼페트... 트럼페트를 붙어 보겠습니다.》

보기에다 가난이 다닥다닥한 학생이었다.

교원은 (네까짓게 붙면 얼마나 붙겠는가.)하는 태도로 트럼페트를 내주었다.

그러나 둘째 오빠의 트럼페트소리를 들어 본 교원은 눈이 커져서 한번 더 붙어 보게 하고는 합격을 주었다.

부모의 명함장이나 그 누구의 후원도 소개도 없이 합격한 유일한 학생이었다.

분명 그때 둘째 오빠의 트럼페트소리는 그닥 류창하지는 못했을것이다.

그러나 음악광신자라고 소문난 그 음악교원은 둘째 오빠에게서 그 어떤 천성적인 음악적재능을 알아본것이였으리라.

그런데 다음날 공부가 끝나기 바쁘게 취주악대로 달려 간 둘째 오빠에게 차례진것은 트럼페트가 아니라 코르네트였다.

코르네트란 트럼페트보다 좀 짧은 악기인데 고음인데다 힘들고 부싯물을 보장하는 악기이기때문에 누구나 선뜻 말하려 하지 않는 악기였다.

코르네트를 받아 쥔 둘째 오빠는 교원에게 애원하듯이 말했다.

《선생님, 전 트럼페트를 붙고 싶습니다.》

교원은 화를 냈다.

《무슨 의견이야? 트럼페트수들은 벌써 다 정해져 있던 말이다.》

취주악에서는 트럼페트가 기본이다. 그 자리를 얻는다는것은 힘 없는 학생으로는 감히 바랄수 없는것이였다.

그때부터 학교육상에서 방과후면 코르네트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마치 (이 코르네트를 가지고서도 내 기어이 본때를 보일테다.)라고 마음 먹은 오빠의 웨칭과도 같이...

이렇게 열흘이란 나날이 지나간 어느 날, 그날도 학교육상에서 홀로 코르네트로 1분간 지속음 내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음악교원이 올라 왔다.

오빠의 코르네트소리에 끌리워 올라 왔던것이였다.

《이제까지 코르네트를 네가 붙었는가?》

《코르네트를 부는게 취주악대에서 저밖에 더 있습니까?》

《음... 신통히 연주기법이 1번트럼페트수였던 졸업한 복(박)군 비슷하거든... 그 학생은 음악수재였지. 지금껏 그만한 학생이 나타나질 않는단 말이야.》

교원이 저도 모르게 탄식조로 하는 말에 둘째

오빠는 궁지가 섞인 어조로 대답했다.

《1번트럼베트수는 저의 형님입니다.》

《뭐 라구?! 그게 정말인가?》

교원은 그 길로 무대뒤 악기창고에 가서 번쩍 번쩍 빛나는 트럼베트를 둘째 오빠의 손에 쥐어 주었다.

《한번 불어 보라!》

트럼베트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그는 말했다.

《이제야 진짜 1번트럼베트수가 나타났구나!》

트럼베트를 불게 된 오빠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불현듯 눈앞에 물바게즈 두개를 들고 벌을 섰던 소학교때 일이 교장과 담임교원의 얼굴과 함께 떠올랐다.

마치 그네들에게 《보복》이라도 한듯한 느낌이였다.

그때로부터 둘째 오빠의 몸에서 트럼베트는 식사시간과 수업시간을 내놓고는 언제나 불어 다녔다. 잘 때도 나는 인형아기를, 오빠는 트럼베트를 꼭 안고 잤다.

고요한 가즈라가와 강변에서는 매일과 같이 삼태성이 기울도록 트럼베트소리가 밤공기를 헤가리며 울려 퍼졌다.

밤시간에 그곳을 지나는 신간선열차 《고다마》호에 탄 손님들은 달리는 열차의 기적소리속에서 둘째 오빠의 트럼베트소리도 들었으리라...

그러나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에 급급한 부모들에게는 그런 아들이 대견하게 비껴 오지 않았다.

첫째 오빠 또한 자기의 전철을 밟고 있는 둘째 오빠를 측은한 눈길로 말없이 바라보곤 하였다.

오직 나만이 둘째 오빠의 성공을 바랐다.

그때 소학교에 다니던 나는 토방에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별찌가 떨어 질 때면 《나에게 고운 새 인형이 생기게 해주세요.》하고 빌곤 하였다. 그러나 둘째 오빠가 트럼베트를 불게 된 때로부터는 별찌를 향하여 《우리 둘째 오빠를 꼭 성공시켜 주세요!》하고 빌곤 하였다.

그리고 일요일이면 나는 자진하여 폭포수앞에서 트럼베트런습을 하는 둘째 오빠의 《악보대》가 되어 주었다.

둘째 오빠는 두달후에는 별찌 취주악대 1번트럼베트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 오빠는 물론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질투가 난 신다를 비롯한 일본학생들이 몰래 둘째 오빠의 트럼베트 피스톤과 용수를 꺾어 놓는가 하면 권결관에 구멍을 내거나 코크를 뽑아 놓곤 하였으나 오빠의 1번트럼베트수자리는 확고하였다.

그만큼 둘째 오빠의 음악적재능은 남 다른것이였으니 재능은 누구도 대신할수 없었던것이다.

둘째 오빠가 트럼베트를 배운지 석달째 되는 1961년 7월, 전국취주악대 단체 및 독주경연이 열

렸다.

이날 경연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가진 집들에서는 맛 있는 점심밥이며 간식을 싸준다, 취주악대 제복을 손질해 준다 하면서 얼마나 분주탕을 피웠으랴마는 우리 집에서는 평시와 다를 없는 아침시간이 지나갔다. 알지조차 못했다.

동네사람들이 병어리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말이 없는 둘째 오빠여서 경연날에도 일언반구도 없이 집을 나섰던것이다.

그런데 저녁때쯤 동네 아이들이 나에게 《너희 둘째 오빠 나팔 불어서 1등 했대.》, 《상도 탔대.》하고 대주는것이였다.

그때에야 나는 오빠가 아침에 취주악대제복을 가방안에 슬그머니 집어 넣던 생각이 떠올랐다.

나의 가슴은 기쁨으로 설레였다. 나는 손살갈이 집으로 달려 갔다. 달리는 나의 머리속에는 문득 별찌생각이 났다. 별찌가 내 소원을 풀어 주었구나.

숨을 할딱거리며 집으로 들어 서니 둘째 오빠가 방에 앉아 있었다.

《오빠... 나팔... 1등했지?》

숨 돌릴새 없이 물어 보는 나에게 조만해서 잘 웃지 않는 둘째 오빠가 싱긋 웃으며 《응, 그래》하고 대답하는것이였다.

나는 너무도 기뻐 방안에서 짹짹뛰었다.

《우리 오빠 1등했다!-》

오빠는 다시 싱긋 웃더니 가방안에서 무언가 꺼내기 시작하였다.

상장에 뒤이어 하모니카, 오르고루(뚜껑을 열면 음악이 나오는 자그마한 함), 인형들이 나왔다.

오빠는 희한해 하는 나에게 인형을 안겨 주면서 말했다.

《낫아 빠진 인형은 버려.》

그때 나는 꿈이 아닌가 해서 내 다리를 꼬집어 보기까지 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내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란 말이 인형이지 내가 여섯살때 아버지가 텅마더미에서 하나 주어다 준것이어서 이제는 눈도 코도 입도 없고 결친 치마는 원색갈을 알수 없이 퇴색해 버렸다.

그래서 언제부터 새 인형이 있었으면 하고 별찌에게 빌기까지 했던 나였다.

그후 나는 그 낫은 인형을 버리지 않았다. 새 인형이 너무나 아까와 농작우에 올려 놓고 보기만 하며 여전히 낫은 인형을 가지고 놀았다...

그날 밤, 둘째 오빠가 타온 상장과 상품들을 놓고 오래간만에 우리 집에는 웃음꽃이 피어 났다. 언제나 머리를 수긋하고 말이 없던 아버지가 얼굴을 번듯 들고 대견해 하며 말하였다.

《니가 이 일본땅에서 제일 나팔을 잘 분단 말이지. 용타! 일본아이들을 이겼으니 가슴이 다 후련하구나.》

뒤이어 어머니의 목 메인듯 한 말소리가 뒤따랐다.

《오늘 아침에 경연을 떠난다고 왜 말을 안했노. 닭알반찬이라도 지저 주었을걸…》

또 따로 혼자 점심을 먹었노? 잘 먹어야 배에 힘이 생겨 나팔을 잘 불겠는데… 그래도 1등을 했다니…》

첫째 오빠만은 아무 말도 없었다. 다만 오루고루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뿐이었다.

《처녀의 기도》가 들어 가 있는 함에서는 뚜껑을 열 때마다 처녀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듯 한 선율이 흘러 나오다가는 딱 끊어 지고 끊어 졌다가는 또 애절한 소리가 나오곤 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궁극에 가서는 자기 신세가 되고 말 동생의 앞날에 대한 슬픔에서 나온 행동이었던것 같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누군가가 요란스레 우리 집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뜻밖에도 총련분회장이었다.

허우대가 큰데다가 눈과 코, 입까지 큼직큼직하여 씨원하게 생긴 그는 방에 들어 서자바람으로 손에 쥔 신문을 흔들면서 《이것 보소, 이 집 둘째가 큰 일을 쳤거든.》라고 밀도 끝도 없이 큰 소리로 말하더니 호탕하게 웃었다. 그는 웬 영문인지 몰라 눈이 둥그레진 아버지, 어머니에게 《교토신봉》조간에 실린 둘째 오빠의 사진을 보여준 다음 큰소리로 읽어 내려 갔다.

《<음악수재-소년트럼페트수>, 7월 7일 교토회관에서 열린 전국취주악경연에서 라꾸난중학교 1학년생 복세이젠(박성원)이 트럼페트독주에서 단연 1등을 하였다. …트럼페트를 배운지 넉달밖에 안되는 열세살난 소년, 그의 세련된 연주에 심사위원들도 경악, 교토의 자랑, 그의 앞길이 촉망된다.…)》

여기까지 읽어 내려 간 분회장은 어머니에게 물 한사발을 청하더니 단숨에 들이마셨다.

《에- 시원하다! 어땠소? 이게 어디 교토만의 자랑이요? 우리 조선의 자랑이지. 안 그렇소? 이 집 자식들이 재간 있거든! 하긴 그 재간때문에 큰 놈은 철다리밀의 귀신이 될번 했지만. 내가 그때 발견 안했으면 그놈은 영낙없이 죽은 놈이지.》

이 아까운 재간둥이들을 조국에 데려 가서 키웠으면 얼마나 좋겠소.

내 생각엔 이 집도 아들들을 데리고 귀국하는 게 상책일것 같소.》

온집이 들썩하도록 이렇게 내리쪼더니 분회장은 신문을 아버지손에 쥐여 주고 분회사무실로 돌아 갔다.

분회장이 왔단 방안에는 무엇인가 생긴한 바람이 일은듯 했고 아버지는 그 신문을 들여다 보며 하루종일 무슨 생각엔지 깊이 잠겨 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둘째 오빠는 하마트면 경연에 참가 못할번 했다고 한다.

경연이 있기 며칠전에 취주악대 80명 학생들속에서 누구를 독주에 내보내겠는가 하는 문제가 심중히 논의되었다고 한다.

취주악대의 모든 학생들이 다 교장과 음악교원 앞에서 악기를 연주해 보기로 했다.

그런데 그들속에는 둘째 오빠의 트럼페트를 당할만 한 연주가가 없었다고 한다.

교장과 교원들의 입에서는 둘째 오빠의 이름이 오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장의 입에서 《그 학생이야 조센징이 아닌가.》하는 말이 나오자 오빠의 이름은 쑥- 들어가 버렸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는데 취주악대를 맡은 음악교원이 《력도산이도 조센징이지요.》하는 통에 다시 둘째 오빠의 이름은 이 입에서 저 입으로 분주히 왔다갔다 했다.

《복군도 조센징이지만 조선중학교의 학생이 아니라 일본중학교의 학생이니 명예야 라꾸난의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는 둘째 오빠가 독주경연에 나가기로 낙착이 되었다.

경연당일은 굉장했다고 한다. 일본전국에서 온 수십의 취주악대들과 300여명의 독주자들이 참가한 교토회관의 객석에는 학부형들과 관람자들로 초만원이 이루어졌다.

먼저 단체경연이 있었다. 둘째 오빠가 속한 취주악대가 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단연 제1위를 하였다.

다음은 독주경연이 시작되었다. 무대에서는 색스폰, 호른, 플루트, 클라리넷독주소리가 차례로 울리였고 드디어 트럼페트의 독주차례가 되었다.

오빠는 이탈리아민요 《오, 나의 태양이여》를 독주하였다.

독주가 끝나자 장내가 잠시 쥐 죽은듯 조용하더니 열렬한 박수갈채가 터져 올랐다. 그때 둘째 오빠의 연주숨씨는 신문에 소개된 그대로였다.

둘째 오빠가 1등상을 탔을 때 음악교원은 너무도 기뻐 얼싸안고 돌아 갔고 교장은 언제 《조센징》이라고 저울질했던가싶이 입이 귀밑까지 찢어서 오빠의 뒤통수를 정신없이 두드려 댔다.

얼마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한 외국인가수가 《오, 나의 태양이여》를 부르는것을 텔레비존으로 보던 둘째 오빠는 말했었다.

《저 노래는 원래 애인을 태양으로 비유해서 부른 이탈리아민요이지만… 나는 독주경연에서 저 노래를 전혀 다른 감정으로 연주했다.… 가난한 우리 집을 환히 비쳐 주는 그런 《태양》이 있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트럼페트소리가 더 절절하게 들렸던지도 모르지?》

경연후 그 소식은 《마이니찌신봉》에도 소개되어 라꾸난중학교 취주악대와 둘째 오빠의 명성은 더 높아 졌다.

하여 프로레스링의 세계강자인 력도산이 경기차로 교포에 왔을 때 라꾸난중학교 취주악대가 교포시청의 초청에 의하여 환영곡을 울리며 온 시내바닥을 돌았다.

그날 둘째 오빠는 《력도산을 위해 나팔을 불러간다.》고 여느때보다 더 사기가 나서 집을 나섰다.

둘째 오빠는 그날 같은 조선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력도산이 나타났을 때 허기증이 나도록 나팔을 불고 그를 직접 보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둘째 오빠는 저녁에 왜서인지 맥이 쑥 빠져서 집으로 돌아 왔다.

《오빠, 력도산 봤니?》라는 나의 물음에 오빠는 시답지 않게 대답했다.

《력도산이 조선사람인줄 알았더니 <일본사람>이었어.》

오빠는 더 말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일본인 환영군중속에 있는 력도산을 보니 그가 조선사람이 아니라 《일본사람》 력도산이로구나, 그리고 환영곡을 부는 나도... 하는 생각을 했던것이리라.

다음날부터 둘째 오빠는 그전과는 좀 달라 저갔다. 둘째 오빠의 트럼베트열은 점차 식어 가는 듯 했다.

강변에서 매일밤 연습하는 회수도 떠지고 폭포수앞으로 연습하려고 가지 않아 나는 더는 《악보대》가 될 기회가 없어 졌다...

그해 가을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결심에 따라 귀국의 길에 올랐다.

이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 온것은 음악교원이었다.

그는 아버지, 어머니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도님네들, 아들을 나에게 맡기고 떠나셨으면 합니다. 당신네 아들은 음악에서 보기 드문 수재이지요.

나에게는 아버지에게 갓 넘겨 받은 막대한 유산이 있는데 아들을 도표 무사시노음악대학까지 책임지고 보낼텐니다.

동양인이 세계적인 트럼베트수로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도표 무사시노음악대학소리를 하면 눈이 휘둥그레 질줄 알았던 아버지의 입에서는 뜻밖의 대답이 흘러 나와 음악교원을 뺄해 지게 하였다.

《세계의 1등가는 나팔수가 된다 하여도 일본병거지를 써야겠지. 그게 어데 조선사람이겠소?》

음악교원은 더는 대답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귀국선이 떠나는 니이가다까지 따라 왔다.

귀국선에 오르는 날, 일본적십자사 관계일군이 매 사람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까지 《북조선에 정말 갈 의향이 있는가. 지금이라도 결심을 달리 하면 일본에 남아도 된다.》고 물어 보곤 했는데 둘째 오빠에게는 특별히 몇번이나 되물어 보았다. 음악교원의 《막후공작》이 있었던것이리라.

그렇지만 오빠의 대답은 한가지였다.

《나는 귀국하겠어요.》

그때 오빠는 일본학교에만 다녔기때문에 조국이란 개념이 거의 없었지만 인생의 길지 않은 이국살이를 통해서 가슴속에 싹튼 자신은 조선사람이라는 자각이 음악교원의 검질긴 유혹을 물리치게 하였으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환송하러 나온 사람들로 붐비는 니이가다의 부두.

바래우러 나온 사람들속에 음악교원이 서 있었다.

그는 배에 오르는 둘째 오빠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실 나는 너를 세계적인 트럼베트수로 키우고 싶었다. 이를테면 유명한 독주가의 스승으로서 이름을 떨치고 싶어서였지...

나는 이번에 음악과 민족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고국에 가서 꼭 성공하라. 너에게는 특출한 재능이 있다.》

나는 그 자리에 오빠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오빠를 빼앗길것만 같아 두려웠다.

드디어 배는 니이가다항을 떠났다.

멀어 저 가는 일본땅.

부두가에 서 있는 음악교원의 모습도 점점 멀어지더니 마지막에는 하나의 점으로 남았다. 그것마저도 사라졌다.

이윽하여 일본땅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2

조국에서의 생활이 흘러 갔다.

첫째 오빠는 음악대학에 다니면서 여러차례의 수술을 거쳐 병신되었던 손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했고 트럼베트를 자유롭게 연주할수 있게 되었다. 그 여러차례의 수술을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두번만 아니게 말했다.

《그 어려운 수술들을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하다니... 조국이 아니면 꿈도 꿀수 없는 일이지.》

둘째 오빠는 중학교에 다니며 저녁이면 늘쌍 보통강변에 나가서 트럼베트를 불었다. 그때 우리 집은 보통강기슭의 5층살림집에 있었다.

둘째 오빠는 음악대학에 갈것을 희망했다. 그 희망이 현실로 되리라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 없었다.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으로 인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도 우리 집안의 안정은 깨뜨려 지지 않았다. 사회주의조국은 미제의 그 어떤 위협에도 끄떡하지 않았다.

1969년 둘째 오빠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음악대학에 추천을 받았다. 얼마후 우리 집으로는 둘째 오빠의 음악대학 입학통지서가 날아 들었다. 경사였다.

그러나 그날 저녁 우리 집은 여느때 없는 침묵에 잠겨 있었다.

조국에 와서부터는 보기 드문 저녁이었다. 방 안에는 온 식구가 모여 있었다.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일류급예술단의 트럼베트 연주가로 있는 첫째 오빠는 둘째 오빠의 대학입학통지서를 손에 들고 있었다.

《네가 그렇게도 바라던 음악대학이 아니냐? 그런데 입학통지서까지 받고 갑자기 인민군대에 입대하겠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거냐?》

《...》

원래 통 말이라곤 없던 둘째 오빠였다.

한동안 침묵이 흘러 간 뒤 첫째 오빠의 말소리가 울렸다.

《네가 트럼베트때문에 일본땅에서 받았던 모욕들이 지금도 내 가슴에 웅이로 박혀 있다. 나는 네가 보란듯이 한다 하는 음악가가 되었으면 한다. 지금 그 길이 활짝 열렸는데 왜 마다하느냐?》

물론 나도 한마디 하였다.

《야 참! 오빠는 대학입학통지서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왜 그래요? 우리가 귀국할 때 마지막까지 따라 와서 오빠를 데려 가자던 음악교원에게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이 오고 가는데도 화제의 주인공인 둘째 오빠는 그냥 침묵을 지키며 한동안이 지나서야 불쑥 입을 열었다.

《난 결심을 바꾸지 않겠어요... 우리 학급이 모두 인민군대에 집단단원하였어요. <푸에블로>호때에 이미 그렇게 약속했었어요.》

그때 문득 둘째 오빠의 말을 잇기라도 하듯 방송에서 미군대형정찰기 《EC-121》의 우리 나라령공침입과 격추에 대하여 보도를 시작하였다.

순간 온 집안은 일시에 입을 다물고 방송을 지켜 보았다.

보도는 끝났으나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윽고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둘째야, 네가 강한 생각을 한것 같다. 나라가 없이야 음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 생각이 옳다. 조국에 와서 은혜만 입은 우리 집안에서 웅당 인민군대가 나와야지!》

옆에 앉아 있던 어머니도 《군대에 나가야지. 나라가 첫째이니라.》라고 하면서 찬동하였다.

역시 나라 잃었던 지난 날을 겪은 1세들이 달

랐다. 이리하여 둘째 오빠는 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자기 학급동무들과 함께 인민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입대후 오빠는 편지를 드물게 보내왔다. 그나마 몸성히 군사복무를 잘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는 짝막한 편지들이었다.

편지에서조차 무뚝뚝한 둘째 오빠를 두고 나는 어찌면 그리도 똑박새일까. 그 똑박새가 나팔을 어떻게 불었담! 하고 속으로 종알거리곤 하였다. 하면서도 오빠의 트럼베트만은 언제나 윤기나게 닦아 놓곤 하였다.

제대되어 오면 둘째 오빠가 다시 트럼베트를 불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나는 그때 둘째 오빠가 앞으로 병사생활의 체험을 무대에서 트럼베트로 연주하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다.

1972년 5월의 어느 날, 그렇게도 기다리던 오빠의 편지가 날아 왔다.

그때의 둘째 오빠의 편지는 친정집에 지금도 고스란히 간수되어 있다.

《...저는 얼마전 광장에서 진행된 위대한 수령님 탄생 60돛기념 열병식에 군악대로 참가했었습니다.

광장대렬의 제일 앞에 서서 태양의 모습으로 서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트럼베트를 불었습니다.

이국의 무대우에서 그토록 눈물겹게 찾던 태양을 오늘에야 저는 직접 뵈었습니다. 바로 이날을 위해서 제가 어릴적부터 갖은 수모를 받으면서도 트럼베트를 배웠던것 같습니다.

저는 열병식시작부터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트럼베트를 불고 또 불었습니다.

부모님들, 저는 한생을 위대한 태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립니다. 태양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지척에 계시는 부모님들을 찾아 뵈지 않고 갔다고 책망 말아 주십시오. 저는 군복을 입은 군인입니다. 초소가 저를 기다리고 있고 <삼천리행군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 편지를 받은 때부터 트럼베트를 더욱 열심히 닦았다.

태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다던 편지의 글줄이 한시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드디어 오빠가 제대되었다.

집에 들어 선 오빠는 빨간 령장을 달았던 입대때 흥안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이, 정말 훌륭해요! 몰라 보겠어요. 처녀들이 훌쩍 반하겠네.》

나는 너무 기뻐 어린애처럼 웃고 떠들었다.

아버지, 어머니도 무척 대견해 하였다.

첫째 오빠는 그때 외국공연중이어서 집에 없었

다.

온 가정이 그동안 쌓이고 쌓인 회포를 나눌 때 내가 문득 말했다.

《오빠, 이제는 다시 트럼베트를 불어야지요?》

그리고는 둘째 오빠에게 그동안 반짝반짝 윤기 나게 닦고 또 닦은 트럼베트를 안겨 주었다. 거기에는 비록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둘째 오빠는 위대한 태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지 않았나요.》라는 속대사가 깔려 있었다. 그런데 트럼베트를 받아 안고 한동안 쓸어 보던 둘째 오빠는 입에 대보지도 않고 방바닥에 슬며시 내려 놓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했다.

《전 돌생산부문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뭐라구?!》

경악한 부모들의 앞에 오빠는 이미 받아 가지고 온 파견장을 내놓았다.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오빠가 어떻게 되어 돌부문에 배치 받게 되었나요? 이젠 너무해요!》

나는 분개하여 부르짖었다. 하지만 오빠는 도리어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이건 내가 자원한 거다.》

《...》

나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나의 의혹에는 관계없이 오빠는 ××충국 돌생산처의 부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광산대학을 다녀 기사가 되었다.

재능 있는 연주가가 되리라고 믿었던 둘째 오빠에 대한 나의 기대는 이렇게 여지없이 허물어졌다.

(태양을 노래하겠다고 둘째 오빠가 왜 음악을 그만 두고 돌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다.

그후 오빠는 장가를 가고 나는 뒤따라 시집을 갔다.

시집생활의 분명한 속에서도 둘째 오빠와 트럼베트에 대한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더구나 내가 예술부문에서 일하면서 연주가들을 볼 때면 둘째 오빠의 재능이 돌무지속에 파묻혀 버렸구나 하는 아쉬움과 허전함을 털어 버릴 수 없었다.

오빠는 원래부터 말하기 싫어 하는 성미였는데 돌을 다루게 되면서부터는 진짜로 돌 같은 사람이 되어 버린 듯 말이 더 적어 졌다.

명절날 기자인 남편과 아이들을 앞세우고 친정집으로 가곤 하면 첫째 오빠와 남편 사이에는 고상한 음악세계, 다감한 기자생활이야기로 화기에 애한 분위기가 펼쳐 졌다.

그러나 둘째 오빠가 나타나면 광산, 돌이야기로 그 분위기는 순간에 어성버성해 지곤 했다.

그런 오빠를 보면서 나는 생각하곤 하였다.

평시에는 물어 보는 말에 대답도 잘 안하던 오빠가 돌이야기에는 어쩌면 저다지도 성수나 할가.

과연 저 오빠가 어린 시절 피눈물나게 음악을 시작하여 음악수재로 소문났던 그 오빠가 옳단 말인가.

그러나 이제 와서 둘째 오빠의 그 재능을 아무리 아까와 해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사이 오빠는 나이가 50고개를 바라보는 중년이 되고 말았으니 음악수재였던 것은 한낱 서글픈 추억으로밖에 남지 않았다.

명절날마다 오래간만에 만나 반가우면서도 서운한감을 주던 이런 상봉도 얼마 지나서는 없어져 버렸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집에서는 오빠의 그림자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돌을 캐는 광산에 들어 박혀 집으로 오는 날이 거의 없었다.

얼마후 둘째 오빠의 만이가 인민군대에 입대할 때였다.

나는 평양역으로 조카를 배웅하러 나갔다.

빨간령장을 단 조카를 보니 30여년전 빨간령장을 달고 초소로 떠나던 둘째 오빠에 대한 추억이 되살아 났다.

(세월은 퍼그나 흘렀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본지도 퍼그나 오래된 둘째 오빠가 새삼스레 보고 싶어졌다.

그런데 역전에는 형님만 보이고 둘째 오빠는 보이지 않았다.

《형님, 오빠는?》

《이제 옮겨예요. 광산에 전화를 했으니까요.》

조카는 초조하게 평양역시계와 주위를 살피고 있었다.

나역시 조카처럼 시계와 주위를 번갈아 보았다.

그날 둘째 오빠는 종시 나타나지 않았다.

섬섬해 하며 떠나가는 조카를 배웅하고 나오면서 나는 둘째 오빠에 대하여 야속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그날 아버지를 끝내 만나지 못하고 간 조카의 모습이 오래도록 눈앞에 밟혀 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릴적부터 말 없는 속에서도 속이 깊어 인정이 많았던 둘째 오빠, 어린 시절 나에게 새 인형을 안겨 주며 나보다 더 기뻐 하던 그 오빠는 어디로 가고...

돌을 다루더니 인정마저 돌처럼 굳어져 버린 것일까...

바로 그러한 때 나는 《로동신문》에서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을 세우는데 위훈을

세운 공로자들에게 국가표창을 수여하였는데 그 공로자들의 이름속에 둘째 오빠의 이름이 있었다. 박성원... 틀림 없는 둘째 오빠였다. 신문에는 오빠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고 써여 저 있었다.

나의 놀라움은 얼마나 컸던지 모른다.

가장 높은 표창을 수여 받은 둘째 오빠.

나는 한달음으로 둘째 오빠집에 찾아 갔다. 둘째 오빠를 만나 축하도 해주고 아무 이야기든 듣고 싶었다.

《누이가 오래간만에 왔구만요. 어서 들어 와요.》

《오빠는 집에 있겠지요? 어제 표창수여식에 참가했을테니까... 신문을 보고 소식을 알았어요.》

《오빠가 있을게 뭐예요. 어제밤중으로 화강석 광산에 떠났어요. 아마 집이 <려관>이 되어 버렸나봐요. 호호호...》

형님은 습관이 되어 버린듯 레사롭게 말하며 웃기까지 했다.

《오빠를 만나봐야 무슨 말을 얻어 들겠어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앉아서 쉬기나 하세요. 내 뭇 좀 들어 올테니...》

형님은 내가 만류할 사이도 없이 부엌으로 나갔다.

방에 혼자 남은 나는 여기저기 둘러 보다가 오빠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우에는 돌생산과 돌가공에 대한 책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책들을 한동안 내려다 보았다. 돌, 돌, 돌에 어떤 매력이 있기에 음악에 미쳤던 오빠를 다른 인생길로 이끌어 간것일까...

책꽂이에서 색 날고 보풀이 일은 두툼한 수첩이 눈에 띄었다. 뚜껑에는 《창작수첩》이라고 써여 있었다. 창작수첩? 나는 놀랐다.

그러면 오빠는 음악을 완전히 단념한것은 아니었던 말인가. 뚜껑을 펼치자 누렇게 퇴색한 신문 조각이 떨어 졌다. 《음악수재-소년트럼베트수》, 아득한 옛 시절 《교포신봉》에 실렸던 잊을수 없는 그 기사였다.

나는 그 기사를 한동안 내려다 보았다.

오빠는 그럼 지금도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있으며 포기해버린 음악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왜 그는 트럼베트가 아니라 돌을 다루는 인생길을 택하였을까.

신문기사조각을 번지자 수첩장들에는 병사시절의 나날들에 대한 인상들이 적혀있었다. 그 아래에는 그 감동을 짙막한 선물로 옮긴 악보들이 그려져있었다. 나는 그 수첩을 한페이지 또 한페이지 번져나갔다.

《1973년 X월 X일 증산군 이압리에서.

눈물 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다.

전후의 어느 날, 해 저무는 집, 그앞에 온 가족을 미국놈들에게 잃고 홀로 서 있는 리당위원장, 그를 두고 차마 발길을 떼지 못하시는 어버이수령님!

그이께서는 다시 그 집으로 들어 가 한밤을 같이 지내시었다. 그날 밤 어둠던 그 집에 온밤 해빛이 차넘쳤다.》

그밑에는 여러개의 악보들이 그려 저 있었다.

그어버리고는 다시 그리고, 그리고는 또 지워 버리고...

두장, 석장 그런것이 반복되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여 있었다.

《안되겠다. 나는 이제까지 음악을 가장 힘 있는것으로, 그 무엇이든 모두 표현할수 있는 감정의 언어로 알고 있었다. 그리나 아니였다. 이 위대한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는 표현할수 있는 선물이 없었다.

어떤 미술가도 태양을 그릴수는 없듯이...

내가 아무리 장엄한 선물을 표현했다 하여도 그것은 갈대로 바다가 모래불에 쓴 글씨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런 시가 적혀 있었다.

《...

연약한 갈대여, 쉬이 무너지는 모래여

산산이 부서지는 글밭이여

내 다시는 너희들을 믿지 않으리라》

...

하이네 시의 한 구절이었다.

이 시가 어떻게 되어 여기에 써여 지게 되었을가.

나는 둘째 오빠가 오늘까지 걸어 온 심정의 력사가 깨달아 지는듯 했다.

수첩의 다음장, 《삼천리행군》의 기록은 이 나라 방방곡곡 가는 곳마다에서 알게 된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길에 대한 기록이었다.

《오늘 우리의 행군길은 간고했다. 심심산골로 가고 또 가는 행군이였다.

과연 이곳으로 걸어 본 사람이 있을까. 마치 우리가 전인미답의 길을 걷고 있는듯 했다. 그렇게 걸었다. 때문에 우리는 그 깊은 산속에서 사람 사는 마을을 만났을 때는 신비한 생각까지 들었다. 세채의 집으로 이루어 진 옛밭에서 나오는듯 한 작은 마을이였다. 수십리 무인지경속의 작은 마을...

그 마을에 들어 섰을 때 우리는 다시한번 놀랐다.

깨끗한 나무표말이 서 있고 그곳에는 <위대한 수령 동지께서 1949년 10월 X일 찾으셨던 곳>이라는 글자가 써여있을때문이었다.

아, 이 심심산골에까지 어버이수령님께서 오시였었던말인가. 건당, 건국, 건군의 그 바쁘신 나날에.

이제껏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수많은 들어 온 나였으나 이때 나의 충격은 너무도 컸다.

아, 어버이수령님!

그뒤에는 술한 악보들이 그려 져 있었다. 그랬다가는 지워 버리고 다시 그리고...

그러나 그뒤로는 이렇게 씌여 있었다.

《위대한 태양,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나의 머리속에는 적중한 트럼베트의 선율이 더는 떠오르지 않는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트럼베트의 세계, 음악의 세계. 그러나 그것은 위대한 태양의 자애를 노래하기에는 너무도 연약했다. 무력했다.

과연 이 세상에 그 위대한 사랑을 세상사람들에게 전할 음악선율이 있을수 있을까?》

여기까지 읽은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나는 내가 지금 오빠의 인생의 갈림길목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이제껏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대한것이 심장을 쿵쿵 울리는듯 했다.

나는 다음장을 번졌다.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숨결이 느껴 지는 이 나라 북변의 혁명전적지. 우리의 행군대오는 하늘높이 솟아 오른 삼지연 대기념비밑에 서 있었다.

항일혈전의 포연과 탄우에 그을린 항일복차림의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선 항일투사들의 모습이 부각되어 있는 대기념비...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라고 세우신 대기념비였다.

나는 그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바라볼수록 장엄하고 비상한 선율이 높이 더 우렁차게 울려나오는듯 했다.

나는 화강석기단을 쓸어 보았고 귀를 대보았다.

그 순간 나는 장엄한 음악을 들었다. 돌이 부르고 있는 천출위인에 대한 찬가를... 백두산에서 불어 온 바람이 기념비의 화강석을 휘감고 있었다. 나는 다시한번 화강석에 귀를 가져 갔다. 그 장엄한 음악을 다시금 푹푹히 들었다.

그것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돌의 세계에 부여 넣어주신 위인칭송의 노래, 수령영생위업의 장엄한 노래였다.

이것이 음악이다.

내가 그리도 듣고 싶었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돌의 세계에 심어주신 장엄한 음악이다. 나도 이 음악의 세계에서 살리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조하신 영원히 전해 갈음악의 세계에서!》

그뒤에는 앞에서 읽었던 하이네의 시 《선언》이 다시 씌여 져 있었다.

...

내 억센 손길로 노르웨이수림속에서

가장 높고 큰 전나무를 뿌리채 뽑아 내어
아트나의 타오르는 분화구에 잠갔다가
그 불길 머금은 큰 붓으로
내 어두운 저 하늘에다 쓰리라
《아그네스여 나는 그대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밤마다

저 하늘높이 영원한 불길로 그 글자들은 타버
지여

태어나고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모두는
환성을 울리며 그 하늘의 말을 읽으리라

...

내가 이제껏 알지 못하고 있었던 오빠의 심중에서 울리었을 장엄한 선율이 귀가로 들려 오는 듯 했다.

《아!》 나는 수첩을 두손으로 가슴에 꼭 껴안았다.

내가 둘째 오빠를 너무도 몰랐구나. 둘째 오빠는 결코 음악을 버린것이 아니었다!

어버이수령님을 모신 열병식장에서 태양의 노래를 영원히 부르셨다던 둘째 오빠. 오빠는 지금도 그 노래를 변함없이 연주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오빠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돌의 세계에 안겨 주신 음악속에서 사는 사람이였다.

조국의 방방곡곡에 일어 서는 수령영생위업의 기념비들이 연주하고 있는 장엄한 음악세계에서 살고 있었다.

창밖에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과 당창건기념탑이 안겨 왔다. 거대한 몸체와 기단을 형성한 화강석들. 나에게도 그 돌들이 연주하고 있는 장엄한 음악이 들려 오는듯 하였다. 영생의 음악이.

옛 사람들은 돌을 심장생중의 하나로 일러 왔다. 먼 옛날 인가족과 마야족들도 돌로 만든 건축물들과 큰 비석, 피라미트로 돌문화를 창조하여 오늘까지 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화석이었을뿐이였다.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민족도 돌에 장엄한 음악을 심어 줄수는 없었다.

허나 우리 나라의 돌들은 장엄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 인민에 대한 전설 같은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의 노래를! 그 노래는 지구와 더불어 영원히 전해 질것이다.

그 노래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주체사상탑, 개신문, 당창건기념탑 그리고 온 나라 사적비들에서 울리고 있지 않는가! 통일거리의 입구, 평양의 관문에서는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7천만겨레에게 통일의 노래를 불러 주고 있고...

둘째 오빠는 바로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였다.

그는 진정한 음악가였다!

×

나는 이 이야기를 들쎌 오빠가 왜 아들이 인민군대에 나가는 날 오지 못했는가 하는 이야기로 끝내려고 한다.

그날 들쎌 오빠는 아들이 인민군대에 입대한다는 소식을 받고 금수산기념궁전 돌올타리가공에 쓸 화강석을 실은 화물차에 올라 평양으로 향했다고 한다.

광산에서 고개 하나를 넘어 큰 길에 들어 섰을 때 차가 멎어 섰다.

내려다 보니 애기를 업은 한 녀인과 여러명의 늙은이, 아이들이 차를 태워 달라고 길 한가운데서 있었다.

《강서까지만 태워 주세요. 친정집에 갔다 오는 길인데 애기까자 있어서 그래요.》

서산에 지는 해와 질어 가는 황혼은 녀인의 청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운전사의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 들인 녀인은 차앞으로 다가왔다.

《운전사아저씨, 정말 고마와요. 정말.》

하며 차에 다가오던 녀인은 차의 시창에서 눈길이 몇더니 우뚝 서버렸다.

시창에는 《금수산기념궁전전설》이라는 표족이 붙어 있었다.

녀인은 천천히 뚫어 앉아 차를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그의 뒤에 서 있던 늙은이와 아이들도 모두 뚫어 앉아 차를 향하여 절을 하였다.

운전사가 당황하여 차에서 내리는데 녀인이 말하였다.

《어서 … 가십시오…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가는 차를… 세웠던 걸… 용서하세요.》

녀인의 잔등에서 자던 아이가 깨어 나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녀인은 그것도 느끼지 못한듯 차가 사라질 때까지 길에서 일어 나지 않았다.

늙은이들도 아이들도 모두 차를 향하여 절을 하고 있었다.

얼마간 차가 달렸을 때 들쎌 오빠는 운전대를 잡은 운전사의 팔을 잡았다.

《차를 세워 주오.》

《?!》

《난 광산에 돌아 가겠소.》

《예?》

운전사는 어리둥절했다.

《입대하는 아들을 만나보지 않구요?》 .

《…》

그날 들쎌 오빠는 차에서 내려 광산에 되돌아갔다고 한다.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가는 차를 단 몇분동안 지체시켰다고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속죄했다는 한 녀인과 늙은이, 아이들.

그들은 차에 실려 있는 돌에서 울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어 주신 영생불멸의 장중한 음악을 심장으로 들었던것이라…

명언해설

《작가는 시대의 앞장에서 나가면서 생활을 선도하고 이끄는 기수가 되여야 한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에는 작가가 인간생활을 선도하는 시대의 기수, 선각자가 되여야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작가가 인간과 생활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하며 인간에게 참답게 복무하기 위하여서는 시대와 함께 전진하여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 나가면서 인민들을 교양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선도자, 기수가 되여야 한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을 모르는 작가는 시대정신을 구현하고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한 좋은 작품을 써낼수 없다. 작가가 시대의 앞장에서 생활을 선도하는 기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현실침투와 생활체험이다. 작가는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인간생활을 체험하고 인간수업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대의 앞장에 서서 생활을 선도하는 기수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추구한것과 발견한것

정기종

여러해전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 소설 《력사의 대하》를 출판에 넘기면서 한 창작지도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수고했소. 대작이 됐어. 이제 동문 이 <력사의 대하> 보다 더 나은 작품을 쓰지 못할거요.》

내가 아연해 하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아, 내 말은 작가의 능력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아니요. <핵문제>를 취급한 이 작품 소재보다 더 첨예한것이 없을거라는 말이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물론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는 우리의 잊지도 않은 《핵문제》를 구실로 미제가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 오고 있던 주체 82(1993)년의 봄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있다.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조선을 지켜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첨예한》 정황이 작품의 성과를 담보했던 말인가?

한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나에게 《핵문제》를 취급하는 소설이 생각과는 다를것이라고,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신념과 의지의 대결을 생활로 펼쳐 보이기에는 매우 어려울것이라고 충고했었다. 말하자면 우뢰소리는 커도 떨어 지는 비방울은 적다는 말처럼 될수도 있다는것이였다. 그러나 작품이 완성되자 《첨예한 극적정합》을 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그 창작지도일군도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이 보다 더 나은...》하고 단언했던것이다.

나는 물론 특기할 력사적사변을 취급한것으로 하여 작품의 격조가 높아 졌다는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작가들은 매일과 같이 특기할 《사변》들을 목격하고 있지 않는가.

《고난의 행군》, 강행군, 《광명성1》호의 발사,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 그리고 피어린 항일혁명투쟁과 준엄하였던 지난 조국해방전쟁, 전후 복구건설 등... 그 모든 소재들이 《첨예한 극적정합》으로는 뒤진다는 말인가?...

문학은 인간학이다. 소여작품의 극성은 사건이 아니라 주인공을 비롯한 작중인물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첨예성과 그 성격에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에서 인간을 그린다것은 그의 성격을 그린다것이다. 문학에서 인간을 화폭의 중심에 세운다는것은 결국 그의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는것을 말한다. 문학은 사건이 아니라 성격을 위주로 하여 형상을 창조하여야 한

다.》

나는 《력사의 대하》를 출판에 넘긴 후 곧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을 진두지휘하시는 불멸의 업적을 형상한 장편소설 《최전선》의 창작에 달라붙었다. 취재와 현지답사, 구성을 준비하면서 1년이 걸렸다. 그러던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장편소설 《열병광장》의 창작에 돌아앉지 않을수 없었다.

장편소설 《열병광장》은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님의 군건설령도업적을 담은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작품이다.

사적자료는 방대했다. 포괄하는 범위도 광대했고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하여 새 정규무력의 룡해공군을 대표할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중인물들이 요구되였다. 오죽했으면 한때 이 작품창작을 준비하던 작가가 3부작으로까지 구상했겠는가.

작품을 구성하면서 내가 주되는 힘을 기울여 추구한것은 성격이였다. 《력사의 대하》에서 오영범을 비롯한 작중인물들의 성격창조에 모를 박은것처럼 항일혁명투사들중 안길, 박락권, 목사홍근수, 이전 소련군관이였던 고운, 중국인련락병왕진, 처녀무선수 정희 등의 인물들이 작품을 기관차처럼 이끌어가기로 기대하였다.

사실 중요인물들의 성격창조가 없이는 구성도 바로 세울수 없다. 뚜렷한 개성을 가진 인물들만 등장하면 작품의 구성은 거의나 그들자신이 엮어 가는 경우가 많다. 레브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의 철도투신자살을 두고 한 말을 상기해보시라. 개성적인 성격을 가진 주인공들은 작가가 의도하는대로만 아니라 왕왕 그들자신의 내적충동에 따라, 실지 생활에서는 그렇게밖엔 달리 할수 없는 자기의 성격적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하여 작가는 자주 그들에게 끌려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곤 한다.

장편소설 《열병광장》이 나가자 제일 먼저 축하의 인사를 보내온 사람들중엔 작가 한웅빈도 있다.

《작가가 커진것이 알리네.》하고 그는 전화로 흥분하여 말했다. 《우리모두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안길동지를 새롭게 보았지. 그 다음 홍목사, 박락권, 정희의 성격들이 새롭구 인상 깊더군. 호흡이 크구... 정말 기쁘게 읽었네.》

나는 동료들의 작품을 아무런 사심없이 진정으로 치하하며 《기쁘게》 여기는 작가들의 도량과 의지를 찬양한다. 그리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수 없다. 그들의 사심 없는 치하는 고무적이다. 신심

을 가지고 새롭게 분발하게 한다. 하기에 《력사의 대하》가 나왔을 때 우리 4.15문학창작단 작가들은 물론 작가 김덕철 등 여러 작가들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고무를 주던 것처럼 한웅빈의 그 말은 많은 독자들이 편지로, 전화로 또 직접 찾아 와 고무하고 격려하던것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 졌다. 왜냐하면 그는 결코 남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자존심을 쓸어 주는 《귀맛 좋은 말》을 모르는 작가이기때문이다.

그때 나는 《이보다 더 나은 작품은 쓰지 못할 것》이라고 한 그 창작지도일군의 말을 상기했다.

지금 그가 이 작품을 읽으면 뭐라고 할까?... 그는 달리 평가할수도 있다. 《그래도 <력사의 대하>보다는 못해!》라고 고집할수도 있다. 그리고 그 말이 옳을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생각한다. 내가 써낸 작품계렬에서 어느것이 제일 나은가고 저울질해 보지는 말자. 그 어느 작품이든 그것을 시작하면서 추구했던것이 독자들의 마음에 들었다면 나는 작가로서의 보폭이 더 커지고 있음을 말해 주는것이 아니겠는가!...

총서 《불멸의 향도》에 속하는 장편소설 《별의 세계》를 시작하면서 내가 추구한것은 극성이었다. 이전의 작품들에서는 속도감, 행동성, 영화적인 편집을 추구했다면 이번에는 여전히 나에게 부족한것으로 느껴 지는 극성이 주되는 목표였다.

그런데 그 극성을 담보하는것도 성격에 있다.

사실 장편소설 《별의 세계》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력사에 류례 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이어 가시는 속에서도 어느 한때도 비전향장기수들을 잊지 않으시고 불면 불휴의 로고를 다 바쳐 오신 위대한 동지적사랑과 믿음의 세계 그리고 김진서(본명 김인서)를 비롯한 비전향장기수들이 수십년간 철창속에서 신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싸운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그린 작품이다.

나는 이 작품에서 곡절 많은 20세기와 더불어 력사에 아로 새겨 진 우리 혁명의 위대한 동지애의 세계와 그속에서 태어난 인간의 불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다시 말하여 작품이 인간의 참된 삶에 대한 레찬으로 되게 하고저 했다. (그러한 목적과 희망이 어느 정도로 실현되었는가 함은 독자들의 분석과 평가에 맡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김진서를 위주로 한 작중인물들의 성격창조에서 느낀 점들만 몇가지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것은 전혀 생소한 미지의 세계였다. 지리산 빨찌산과 포로수용소, 교도소들의 참혹한 철창속 세계, 모진 고문과 회유, 기아와 질병, 고독의 세계 그리고 끊임 없는 삶과 투쟁의 세계였다. 그러므로 치열한 삶과 투쟁을 무대로 하는 작중인

물들은 당연히 삶의 의의와 목적, 투쟁의 필연성은 물론 패배의 쓰라림과 좌절, 치욕도 체험하는 사람들로 선택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김진서의 인생행로에는 하정례, 최동환, 조아라와 변절자 차일평 등이 선택되고 등장하였다.

먼저 하정례를 보기로 하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 김인서동지를 취재하면서 나는 지리산빨찌산에서 그와 제일 인연이 깊었던 4명의 녀성들인 현춘임과 김옥순(제주도출신들임) 그리고 리화녀대 프랑스문학과를 다니던 하동례와 목포사범학교를 나오고 교원을 하던 최홍례를 알게 되었다.

이 4명의 처녀들중 현춘임은 작품에서 지리산의 치열한 싸움터에 분명 그대로 잠간 나오나 나머지는 하정례라는 한인물속에 체현되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름도 출신도 경력도 엇비슷한 최홍례가 하정례라는 한 지식인녀성의 형상에 합쳐 졌던것이다.

처음부터 나는 교육자의 가정에서 나서 자라 리화녀대까지 다니던중 일가식술이 참혹하게 학살된후 개인복수를 위해 입산한 하정례를 미모에 지성미도 있는 매력적인 녀성으로 묘사하기 위해 무등 애를 썼다.

사실 거의 모든 작가들이 자기 작품의 녀 주인공을 아릿답게, 매력 있게 그리려고 애 쓰며 책을 읽는 독자들모두가 그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한다. 따라서 나는 매 작품의 작중인물들가운데서도 녀성들에 한해서는 특별히 중시하곤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어느 녀성도 장편소설 《력사의 대하》중의 오영범이나 장편소설 《열병광장》의 박락권과 같이 인상 깊게 그려 지지 못했다.

나는 김인서동지에게 지리산의 인연 깊은 녀성들에 대하여 많은것을 캐여 물었다. 그들의 생김새, 말씨, 몸가짐과 성격의 이모저모... 그러면 그는 매번 한마디로 규정 짓곤 했다.

《훌륭한 녀성이었지요.》

《예, 고왔어요.》

《드문 녀자였지요.》

그에게는 추억속의 그 처녀들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훌륭한 녀성들로 새겨 저 있는듯 했다.

그리하여 하정례는 미모의 녀성으로 남 달리 총명하고 발랄한 성격을 지녔으나 점차 피뻘하게 변모되는 녀성으로 그려 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작중인물의 매력은 미모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주되는것은 성격에 있다. 그런데 미모의 녀성, 지성미도 있는 하정례만을 추구하던 나머지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여 성격은 주어졌지만 하정례라는 살아 있는 사람을 나는 보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작품도 잘 나가지 않았다. 사건들에 격렬한 호흡이 없었다. 나는 격조 높

은 교향곡을 원했는데 작품은 실내악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무렵 나는 한 여성독자를, 얼마전까지 조국보위초소에 서 있다가 심한 타박상으로 군복을 벗은 제대군관을 알게 되었다. 강마른 몸에 충동적이고 신랄하기도 한 여성이었다. 그는 정열적인 독서가여서 문단의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거의나 통달하고 있었다.

《선생님의 장편소설 <열병광장>에서》하고 그 여성은 말하였다. 《제일 마음에 든 인물은 정희였어요. 물론 너주인공들에 한해서지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가요. <력사의 대하>에 나오는 수련이라는 처녀는 정이 끌리지 않았어요. 그전에 나온 <조선의 힘>에서 리숙이는 맘에 들었었는데...》

그러면서 그는 작가가 여성들을 그릴 때 누구든 모델을 삼고 쓰는가, 정희라는 여성은 실재한 인물인가, 작가는 자기가 그린 여성들을 다 사랑하는가 하는것 등을 물었다.

그때 나는 불시로 머리를 치는 생각에 놀랐다. 마치도 살아 있는 하정례를 보는듯 했다. 병색이 짙은 얼굴, 신경질적인 손세, 재빠른 말씨며 공손하지 않은 눈빛 그리고 가늘고도 긴 팔... 하정례가 나타나 자기를 잘못 그리고 있다고 항변하는듯 했다. 그렇다. 나는 작품의 중요인물인 하정례를 억지로 꾸며내고 있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주어 진 성격이었고 어렴풋이 상상해 본 하정례였을뿐 살아 숨 쉬는 인물은 아니었다.

결국 《미모에 지성미도 있는》 하정례를 버려야 했다. 그러나 작품이 어지간히 진척되어 있었으므로 거기에 바쳐 진 시간과 노력이 아까웠다. 많은 작가들이 이미 써놓은것을 대담하게 버리지 못하는 리유의 하나가 여기에도 있다.

유명한 해부학자 존 한터는 말하였다.

《왜 생각만 하는가. 어째서 실험해 보지 않는가?!》

작가에게 있어서 결단은 특히 중요하다. 원고보따리가 아무리 크고 아까운것일지라도 제때에 버릴줄 알아야 한다. 버려야만 새로 시작하게 되고 새로 시작하면 작중인물들도 모습을 달리 하여 새롭게 태어난다.

마침내 새로운 하정례가 등장하여 김진서와 마주 서게 되었다. 장면들은 이전과 같았으나 주고받는 대사들과 서로의 체험은 판판 달라 졌다. 격렬해 지고 통절해 졌다. 그리고 많은 장면들이 함축되고 비약되었다.

나는 하정례의 초상묘사를 거의나 하지 않았다. 류달리 팔이 길어 보인다면 사내애들처럼 머리를 짧게 깎고 해골같이 여위였다는것 등만을 강조하였다. 즉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다루었다. 따라서 새로 등장한 하정례 역시 작품속에서 《제멋대로》 놀아대었다. 김진서가 그 처녀를 《망가진 죽음기》처럼 여기며 고쳐 보려 했지만 허사로 된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하정례의 성격은 뒤

늦게야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되는데 이미 때는 늦어 새로운 고통과 번민에 시달리게 되는것이다.

작가인 나는 그를 진정 사랑하였으나 불행과 고통을 덜어 줄수는 없었다. 하정례는 끝까지 자기의 성격에 따라 자기의 길을 걸어 갔다.

다음으로 김진서의 34년간의 기나긴 옥중투쟁은 주로 최동환이라는 인물과의 관계속에서 그려졌다. 변절자로 낙인된 최동환, 모든 비전향장기수들이 그러했지만 변절자로 낙인된 그는 남보다 더 처참한 삶을 지탱해야만 했다.

책이 나가자 제일 먼저 읽어 본 독자들중의 한 사람(인민군 대좌)이 전화를 걸어 왔다. 작가를 만족시키는, 자칫하면 허영심을 불러 일으킬수도 있는 독후감을 쏘아 놓고 나서 이렇게 물었다.

《최동환은 실재한 인물입니까?》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아, 제가 괜한 질문을 했는가 본데 실은 최동환이라는 인물이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해서... 물론 본명 그대로 썼겠지요? 그의 아들 최수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최동환은 허구인물이 아니다. 유명무명의 많은 통일애국투사들중의 한사람이다. 그의 본명이 무엇인가고 묻지는 마시라. 하정례의 경우와 같이 그도 역시 다른 불굴의 인간, 통일애국투사와 합쳐 진 인물이다.

처음 작품을 시작할 때 김인서동지는 이렇게 부탁했었다.

《나랑 함께 싸운 동지들을 많이 내주시오. 특히 전사한 동지들을... 우리야 뭐랍니다. 조금 나와도 일 없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품에 안기지 못하고 먼저 간 동지들은 한사람도 빼놓지 않고 써줬으면 합니다.》

하여 나는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간 그들을 가능한 작품에 등장시키려고 애 썼다. 그러나 수십수백명 그의 전우들을 하나하나 다 꼽아 갈수는 없는것이다. 결국 최동환도 그런 리유로 전형화된 인물이였다. 복에 자식을 둔 비전향장기수와 지리산빨찌산의 용감한 전투원으로서 고통을 받았던 한사람이 최동환의 형상속에 《용해》되었다.

그 인물은 처음부터 생생히 눈앞에 보면서 썼다. 비록 실재했던 사람들은 한번도 보지 못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한 전쟁로병을 지리산과 포로수용소, 교도소의 철창속에 세워 보면서 그렸기 때문이다.

그 최동환이 비전향장기수 김인서동지를 통해 알게 된 불굴의 인간으로 등장했다. 눈앞에 생생히 보면서 그렸지만 이번에도 초상묘사는 거의나 하지 않았다. 과묵하고 얼굴의 흉터때문에 때로 무시무시해 보인다는것을 강조했을뿐이다. 하지만 이 인물 역시 김진서의 장구한 옥중투쟁사를 단 몇개의 절로 요약할수 있게 나를 도와 주었다. 따라서 작품의 극성도 더 첨예해졌다.

초상묘사는 필요하며 중요하다. 그러나 아무런 특징도 없고 인상에 남는것도 없는 초상묘사는 하품만을 자아낼뿐이다.

어느 한 력사소설에 외팔이장군이 등장한다. 그는 수만대군을 거느린 적장이 성문을 열고 호통을 치자 이렇게 대답한다.

《네가 직접 열려무나. 나는 한손뿐인데 이 손엔 장검이 쥐여 있다!》

이러한 극적정황과 성격의 특질을 집약한 우의 대사가 없었더라면 한팔이 없는 장군에 대한 자질구레한 묘사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것이다.

디드로가 극이란 두 천재의 작품이라고, 하나는 배열하는 천재요 다른 하나는 말을 시키는 천재라고 한것은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비록 그는 《배렬하는》(즉 사건을 꾸미는) 재능과 《말을 시키는》(즉 성격을 보여 주는) 재능의 금새를 동렬에 놓았지만 작중인물들의 대사 한마디한마디가 작품의 우열을 결정한다는 의미심장한 뜻을 강조하였다.

작중인물의 대사는 성격에서 나오며 오직 그 인물만이 할수 있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수십행에 달하는 지루한 인물묘사보다도 의미깊은 말 한마디가 더 명백히 그의 성격을 보여 준다.

그런데 장편소설 《별의 세계》에서 최동환은 거의나 말이 없다. 그의 성격특질은 과묵하고 무자비한것이다. 그러한 성격의 일단이 묘사된후 그는 총탄이 입을 관통하여 끝까지 말을 못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참혹한 수인생활을 보내게 했고 그것이 작품의 극성을 더 첨예하게 끌어 갔다.

이 모든것을 작가는 처음부터 의도하였던가?...

돌이켜 보건대 많은 작가들이 비전향장기수들을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창작을 준비하면서 고민한것이 있다. 그것은 수십년간을 철창속에서 치절한 삶을 양버티어 온 그들의 한생을 어떻게 집약하며 어두운 감방과 모진 고문, 학대와 항거, 피 흘리는 싸움뿐인 그 생활을 어떻게 단조롭지 않게 비반복적이면서도 흥미 있게 끌고 가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소설은 읽혀야 한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았다 해도 읽히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글을 써낸 작가가 아무리 간절히 원했어도 독자들이 책장을 덮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비전향장기수들은 0.75평의 철창속에만 갇히워 있다. 사랑하는 안해도 자식들도 곁에 없었다. 푸른 하늘도 마음놓고 볼수 없었다. 끊임 없는 고통과 질병, 고독의 연속... 매일같이 반복되는 전향테로의 철쇄소리만 그릴수는 없는것이다.

그리하여 한 작가(리종렬)는 말했다.

《취재를 해보니 감옥안에서 수십년간 죽도록 얻어 맞으며 싸운것이 생활의 전부요.》

작가 김삼복은 또 이렇게 말했다.

《처참한 인생을 체험한다는게 정말 쉽지 않구

만.》

하지만 그들은 지금 독자들속에서 널리 읽히우는 장편소설 《조국의 아들》(리종렬), 《나의 추억, 40년》(김삼복)을 남보다 먼저 그리고 훌륭하게 써냈다. 《처참한 인생》을 체험하면서 그 한생을 집약할수 있고 다채롭고 풍부하게 투쟁하는 삶을 그릴수 있는 묘술을 발견하였던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였고 무엇을 발견하였는지 물론 나는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자신 있게 말할수 있는것은 주인공의 성격에서 그것을 찾았으리라는것이다.

지금 독자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장편소설 《의리》(김덕철), 《최후의 한사람》(림채성) 등 비전향장기수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들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그들은 억지로 사건을 꾸며 내지 않았다. 사실그대로 그리려 애 썼고 주인공과 작중인물들의 성격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였을뿐이다.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문학에서도 성격이 작품의 우열을 결정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성격이 보다 내적이고 본질적인것이라면 사건은 보다 외적이고 현상적인것이다. 성격이 보다 주동적인것이라면 사건은 보다 피동적인것이다.》

독자들은 사실상 인물의 성격에 끌려 작품을 읽는다.

언젠가 우리 4.15문학창작단 작가들 몇이 텔레비죤촬영을 위해 평천혁명사적관을 찾아 갔을 때였다. 우리를 안내한 녀강사가 작가들의 이름을 듣더니 대뜸 자기가 읽은 소설의 작중인물들을 쪽 꼬아 가는것이였다. 나를 불들고는 장편소설 《열병광장》의 박락권과 정희에 대하여, 안길의 최후장면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말하였다. 끝으로 사적관의 녀강사들모두가 정희처럼 진실로 열렬히 사랑하고 사랑 받는 녀성이 되고 싶어 한다면 서 《다신 그런 녀성을 불행하게 그리지 말아 주세요!》하고 부탁했다.

작가 안동춘에게는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 《50년여름》의 림운학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작가 안동춘이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림운학을 다 기억하고 있소?》

《왜 모르겠어요.》 녀강사가 스스럼없이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런 남자야 사랑할만 하지요!》

한편에서는 다른 작가(최학수)를 둘러 싸고 녀강사들이 장편소설 《평양시간》의 녀주인공에 대하여 떠들어 대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작가들모두가 흔히 겪는 레사로운 일이다. 독자들에게서 날아 오는 편지나 때없이 걸어 오는 전화,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모두가 인상깊은 인물에 대하여 흥분하여 말하곤 한다. 그러고보면 외국의 한 작가가 《어째서 문

학의 주인공들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는가!》라고 한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듯 싶다.

본 이야기로 돌아 가자.

장편소설 《별의 세계》에서 김진서를 중심으로 한 인물들중엔 조아라도 있다. 변절자 차일평의 딸인 조아라는 작품의 첫머리에 등장했다가 수십년 세월이 흐른 뒤 마감에 다시 나타난다.

그는 비록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역을 맡고 있다. 그는 치열한 투쟁의 무대에 마스한 빛과 정서를 보태 주고 있으며 사건진행에서는 복과 남, 김진서와 그의 딸들을 이어 주는 인물이기도 하거니와 참된 삶과 치욕스러운 삶의 산 증견자이기도 하다.

나는 조아라 역시 커다란 애착을 가지고 귀엽게, 사랑스럽게 그리려고 애 썼다.(지면상 관계로 그의 성격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한 하나의 세부만을 말하려 한다.)

조아라는 일곱살때 등장하여 선두살이 넘어서야 다시 나타난다. 변절자의 딸로서 한생을 불우하게 보내야 했다. 처음엔 밝고 생신하고 정겹게, 나중엔 슬픔과 남 모르는 고통속에서 외롭게 살아 가야 했다. 그 한생의 성격을 대변하는것이 제주도민요였다.

앞강의 배는 낚시질배여

뒤강의 배는 님 실은 배여

혹시 어떤 독자들은 민요 한구절이 어떻게 그 인물의 성격에 신선한 활력과 비탄의 그림자를 드리울수 있겠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수도 있다. 그러나 그 민요를 찾았을 때 나는 너무 기뻐 한성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다. 일곱살난 소녀의 꿈의 세계가 그리고 흘러 간 세월의 먼 발자취를 더듬는 너인의 쓰라린 심정이 그대로 옮겨 진 민요였던것이다.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조아라에 대해서는 다른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게 되었다.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조아라는 김진서나 다른 인물들과도 자연스럽게, 진실하게 얹혀 저갔다. 친아버지인 추악한 변절자 차일평과 이어진 수치와 절망, 비탄의 감정도 그 노래와 함께 그려 졌다.

노래는 수차 반복된다.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 왔는지 책을 읽어 본 독자들은 이해하고 긍정할것이다. 글줄에도 음향이 있다. 결국 조아라는 한구절 민요의 선물로 묘사된셈이다.

끝으로 변절자 차일평을 보기로 하자. 그자를 단순히 더러운 변절자, 가증스러운 개라고만 규정했다라면 그의 죽음이 그닥 인상에 남지 않았을것이다.

나는 그자가 어떻게 치욕스러운 생을 마쳤는지 알지 못한다. 비전향장기수 김인서동지도 그것만은 알지 못했고 또 알수도 없었다. 오랜 세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살던 그자의 최후를 목격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그러면 그자를 어떻게 죽게 할것인가?... 개들한테 물어 뜯기워 죽어 가는 장면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자를 복수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하였던 하정례의 손에서 죽게 할것인가?...

그러나 나는 그자의 마지막소원마저 짓밟아 버리는것으로 비참한 죽음을 강조하고 싶었다. 하여 딸(조아라)을 찾아 헤매는 늙은이를, 죽음의 문지방앞에서 한점 인정의 온기를 찾고 부르며 몸부림치는 늙은이를 그렸다. 결국 그자는 벼랑에서 떨어 져 파리페의 장송곡속에 가버리는 혐오스러운 최후를 마치게 되었다.

작품이 절반이상 진척될 때까지 차일평이 어떻게 죽게 될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것처럼 구역질나는 변절자에게도 한가닥 인정을 갈구하는 최후의 모대김이 있다는것을 발견하였을 때 비로소 그자의 비참한 종말을 내다보았다.

진정 창작실천은 많은 귀중한 경험과 교훈을 남기군 한다. 그렇지만 내가 이 글에서 결코 그 누구를 가르치려 한것이라고는 생각 마시라.

가르칠수도 없다.

지식은 가르칠수 있어도 지혜는 가르치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사랑과 헌신과 꾸준한 인내로 터득할뿐이다.

장편소설 《별의 세계》의 초고를 끝냈을 때 나는 안도감에 앞서 은근한 불안에 모대기였다. 그것은 작품의 중요인물원형인 비전향장기수 김인서동지가 실망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때문이었다.

대체로 원형인물들은 자기를 그린 작품에 심한 불만을 느끼기 마련이다. 자신이 겪은 인생고초와 쓰라린 체험이 십분의 일, 백분의 일도 그려지지 못하기때문이다. 더우기 장구한 세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전대미문의 경난과 시련을 이겨낸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의 경우 에야 더 말해 무엇하랴!

우리가 그려 낸 그 모든 사건과 인물들이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는 비상한 그 체험들이 아주 작고 빈약하고 보잘것없이 그려 졌을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것을 사실대로 그리면서도 우리 작가들은 나름대로 인생을 체험하며 무엇인가를 발견하는것이다. 그 발견이란 바로 작가자신의 주장이다. 생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주장, 사랑과 증오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장이다. 그것이 독자들에게 이해되고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작품은 그만한 값어치가 되는것이 아닐가?...

김인서동지는 작품초고를 끝까지 다 읽었다. 적들의 모진 고문과 질병의 후유증때문에 아직도 몸이 불편했으나 침상에서 자신이 읽기도 하고 가족들이 료번제로 읽어 주는것을 귀담아 듣기도 한 끝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작가가 아주 영동하군!...》

그 말을 전해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작가의 수고에 대한 긍정이었을까 아니면 의아함이었을까?... 어쨌든 비난이나 실망이 아닌것만은 확실했다.

감사를 드리지 않을수 없다. 우리 작가들은 파란만장의 인생길을 걸어 온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을 만나 그들을 원형으로 하는 작품을 쓰면서 키도 자라고 마음도 더 커졌다. 작가로서의 사명감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격변하는 시대, 자랑 높은 선군혁명시대는 우

리 작가들로 하여금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시대를 호흡하는 심장이 더 커지고 작가적력량의 키가 더 자라 세계와 인생을 굽어 보며 시대와 혁명의 부름에 대답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진정 세계는 넓고 인생은 변화무쌍하다. 그속에서 참된 인생의 진리를 보석처럼 발견하고 빛내이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자!... 지금도 나는 이렇게 속다짐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다.

단시묵음

조국

권오준

피 어린 격전의 고지에
홀로 쓰러졌을 때
누구도 나를 일으켜 세우지 못했다

히나 마지막힘을 모아 움켜 쥔 총대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아, 그것은 조국이었다

꽃이 묻네

천일수

꽃은 피네
꽃은 피네
이 땅우에 아름다움 더해 주려

꽃은 지네
꽃은 지네

이 땅우에 알찬 열매 맺어 주려

피며 지며 꽃이 묻네
나에게 묻네
너는 어떻게 이 땅을 받드느냐고

붓

문광근

붓 한자루 세워 놓으면
한대의 가냘픈 초불 같아라
방안의 어둠도 채 가시지 못하는...

그 붓 마치고 닛과 함께
우리 당 기폭에 자리 잡으니
아, 세상에 존엄 높은 우리의 붓은
누리를 밝히는 진리의 해불됐도다

축포

오정로

불 타는 고지에서
육박전을 앞둔 그 시각
전사들 새장문을 열어 놓았네
강도에서 애지중지 키우던
7마리 새

즐거움에 깃을 치며
새들이 떼지어 날아 올랐네
불대 감은 손들의
바래움을 받으며
저 하늘의 포연을 걸어 내며
전승의 축포마냥 새들은 날으네

푸른 꿈

윤경찬

옥선원장은 무용실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었다. 남 보기엔 쉽고 단순한 춤가락 같지만 유치원아 이들의 심리적, 육체적특성에 맞는 춤동작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낸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젊었을 때는 무용실에 들어 서면 하늘의 새처럼 자유롭고 유연하던 그의 몸도 이제는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 하기야 60나이가 아닌가.

그는 두팔 펴고 세바퀴 회전을 하다가 눈앞이 어지러워 지면서 몸의 중심을 놓치는 중에 그만 쿵- 하고 넘어 졌다. 넘어 지면서 한쪽 발목을 접질렀는지 저도 모르게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일어설념도 못하고 이마에 흥건한 땀을 흘리며 허거운 미소를 지었다.

(내 나이에 춤이라니... 이런 경우를 두고 로망이라고 하겠지.)

이제는 집에 앉아 손자시중이나 하라는 세월의 가혹한 판결을 받은것만 같아 그는 마음이 쓸쓸해 졌다. 늙음을 인정하기가 이렇게 힘든것인가.

그는 복도에서 울려 오는 발자국소리도 듣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기척소리가 별로 요란히 울리고 출입문이 벌컥 열렸다. 옥선은 문으로 들어 서는 사람을 알아보자 안색이 밝아 졌다.

《지배인동지가?...》

《허... 원장선생은 여기를 제집 아래목으로 생각하는게 아니요?》

건설사업소 박선호지배인은 방바닥에서 일어 설줄 모르는 옥선원장에게 무릅 없는 어조로 말했다. 체통도 크고 목청도 우렁우렁한 장년의 지배인은 오래전부터 옥선원장과 각별한 사이였다.

《춤을 추다가 발목을 접질렀어요.》

《춤을?...》

왕청 같은 소리에 눈이 등그래 졌던 지배인은 아무말없이 창가에 다가가 걸상을 들고 왔다.

《어째 가만 있어요? 이 로친네가 로망한다고 한바탕 놀러 델줄 알았는데...》

《놀러 주긴... 오히려 그 반대요 자, 가만히...》

그는 원장의 한쪽팔을 부축하여 조심히 의자에 앉혀 주었다.

《고마워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알아 맞춰 보오. 내 무슨 기쁜 소식을 가져왔는가?》

지배인의 너부죽한 얼굴엔 온통 웃음천지였다.

《정말 좋은 일이 생겼나 보군요?》

《생겼소. 우리 동일이가 박사가 됐단 말이요.》

《동일이가?》

옥선은 뜻밖의 소식에 놀라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다. 기쁨과 환희의 짜릿한 흥분이 온몸에 퍼지는통에 그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애가 벌써 박사가 됐단 말이지...

《대학기간에 수학분야의 새 공식을 발견해서 세상을 놀래웠대요. 방학에 집으로 오자마자 원장선생에게랑 인사하러 오겠다기에 내 함께 오는 길이요.》

《어디 있어요. 동일이가? 어서 가보지요.》

옥선은 마음이 다급해 저 발목이 상한것도 있고 별떡 일어 서다가 괴롭게 얼굴을 찡그렸다.

《앉으시우. 지금 정문에서 교양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으니 우린 천천히 내려 갑시다.》

어쩔수없이 걸상에 주저앉은 옥선원장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동일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애가 유치원을 떠난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박사가 되다니 참 꿈 같군요.》

《원장선생 같은 교육자들 덕분이지요. 그런데... 우는게 아니요?》

옥선은 얼른 눈굽을 훔쳤다.

《너무 기뻐서 그래요. 녀자란 어쩔수 없나 봐요.》

《원장선생이야 강한 녀성이지요. 난 처음 원장선생을 만났을 때 그렇게 느꼈소.》

지배인이 자신 있게 하는 말을 듣느라니 옥선은 자연히 그를 처음 만나던 때가 돌이켜 졌다. 하긴 오늘처럼 기쁜 날에 지나온 한생의 갈피갈피를 뒤져 보는것은 더없이 행복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겠는가.

(이젠 20년 세월이 흘렀구나. 그러니 이 사람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수 있지. 그 때는 이 사람이 건설사업소 기사장을 했었지. 지금처럼 몸두 나지 않구.)

...

1

김옥선이 신의주시 본부유치원 원장으로 임명 받고 왔을 때 유치원은 자그마한 단층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창문이 작아 채광조건도 나쁘고 통풍도 잘되지 않는 옛날건물이었다. 겨울이면 벽체가 얼어 들었고 여름에는 비가 새곤 했다.

그는 대담하게 유치원을 새로 짓는것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매 교양원들에게 건설전망도를 하나씩 그려 내도록 조직하고 자기도 집에 들어 오면 책상에 마주 앉아 밤을 꽤우곤 했다. 몇장씩이나 그

러 왔지만 어느 하나 마음에 꼭 들지 않았다. 어느 날엔가는 밤 늦게 퇴근해 온 남편이 휴지가 되어 버린 전망도들을 펼쳐 놓고 눈이 둥그레 졌다.

《이게 어디 유치원이요? 궁전이지.》

《그래두 마음에 안 드는걸 어떻게 해요?》

남편은 입을 딱 벌렸다.

《욕심두! 유치원에 가더니 꿈과 현실을 분간 못하는 어린애가 된게 아니요. 중요대상건설장에도 자재가 긴장한 때인데... 이불깃 봐가며 발을 퍼야지.》

옥선은 붓질을 하다 말고 성난 표정으로 돌아 앉았다.

《후대들을 키우는 일이야 래일에 맞추어야지 오늘의 조건에 복종하라는거예요? 도당일군의 관점이 왜 그래요?》

남편은 안해의 절고 드는 태도에 그만 항복하고 말았다.

《허허... 내 잘못했소. 건설이 시작되면 내가 제일 먼저 지원동동에 나가겠소.》

《응당 그래야지요.》

그제서야 옥선은 행주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나갔다. 한주일후에 열린 《현상모집》 심사에서는 옥선원장이 그린 전망도가 교양원들의 일치한 공감을 받았다.

기다란 3층짜리 기본건물과 그 한옆에 원형놀이장이 결달린 보기에도 욕심나는 건물이었다. 창문도 큼직큼직하고 하늘색 외장재를 바른 로대가 참다마 붙어 있는 건물은 꽃밭에 심어 놓은 갖가지 꽃들로해서 마치 꽃바다위에 떠 있는 한 척의 산뜻한 럭셔리선 같았다.

그날부터 옥선은 시장과 시민민위원회를 부지런히 오가며 끝내 건설승인을 받아 내교야 말았다.

전망도가 실제로 완성되어 도시건설사업소로 도면이 넘어 간지 며칠 지난 어느 날 사업소 기사장이라는 사람이 옥선원장을 찾아 왔다. 얼굴이 갱긋해서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사람인데 행동거지는 예상외로 몹시 조심스러웠다. 그는 원장이 원하는 결상의 한귀퉁이에 조심히 걸터 앉아 무척 미안스런 표정으로 원장을 흘끔 흘끔 쳐다볼뿐 찾아 온 용건을 선뜻 터놓지 못했다. 한참만에야 그는 자기의 어좁은 행동거지에 스스로 화가 났던지 움쭉 몸을 일으켰다.

《아무래도 설계를 고쳐야겠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유치원건설도면말이를 책상위에 퍼놓았다.

《왜 그러세요?》

옥선의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불안으로 떨렸다.

《이 원형놀이장까지 3층으로 하자면 지금 형편에선 몹시 곤란합니다. 현재 사업소가 안고 있는

건설과제만 해도 힘에 부치는데 이 설계대로 유치원을 건설하자면 로력과 자재가 도저히...》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기사장은 힘들게 말꼭지를 뽀뽀에는 내친김에라 생각했는지 찾아 온 용건을 솔직히 털어 놓았다.

《그래서 우린 원형놀이장건설만은 그만 두었으면 합니다. 그대신 야외놀이터를 잘 꾸려 주지요. 전망도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배그네랑, 회전목마랑... 어떻습니까?》

기사장의 어조에는 어려운 부탁을 하지 않을수 없는 안타까움과 애원에 가까운 호소가 진하게 어려 있었다.

옥선은 맥이 탁 풀려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건설을 담당한 시공주축에서 시작도 하기전에 이렇게 나오니 가슴만 답답했다.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설복시킨단 말인가.

무거운 침묵속에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던 옥선원장은 음악분과장 김혜선을 찾았다.

《공연을 준비하세요. 이제 당장!》

기사장은 건설문제를 토론하던 옥선원장이 왕창같은 소리를 하는 바람에 눈이 둥그레 졌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장선생?》

《기사장동지! 우리 유치원아이들의 공연을 본 다음에 다시 토론합시다.》

기사장은 옥선원장의 속심을 지레짐작하고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원장선생은 아이들의 춤과 노래로 날 감동시켜 볼 생각이군요. 미안하지만 나에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태도는 강경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건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러구 난 기사장동지를 감동시키려는게 아니에요.》

옥선은 제 먼저 일어 섰다. 기사장도 어쩔수 없이 따라 일어 섰다. 계획에 없던 공연이여서 관람석에는 그들 두사람뿐이었다. 무대라는것도 맨 앞에 놓여 있던 풍금을 창문쪽으로 치우고 넓은 공간인데 무대막도 없어 아이들은 출입문쪽에 오그그 몰켜 서 있다가 차례가 되면 가운데로 나오곤 했다. 난방이 보장되지 않아 썰렁한 기운이 도는 방안에 엷은 무대복을 입은 아이들이 어깨를 움송그리고 있는것을 본 옥선의 마음은 한결 더 무거워 졌다.

그는 저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어째서 덧옷들을 안 입었어요?》

《저... 갑가지 준비하다 보니 미처...》

옥선은 자기가 입었던 솜옷을 벗어 소해금을 들고 있는 제일 작은 처녀애에게 씌워 주었다.

《차례가 될 때까지 입고 있어라. 손이 곱아 들면 악기를 잘 타지 못해.》

웅색해 진것은 기사장이었다. 그는 저 혼자 숨
옷을 입고 있기가 더 불편했던지 민족의상을 입
고 있는 꼬마에게 그것을 입혀 주었다.

이윽고 공연은 시작되었다. 무대가 작다보니
독창, 독주를 할 때에는 그런대로 일 없지만 춤
추기에는 몹시 좁은 공간이었다. 민족의상을 입
고 꽃줄놀이를 하던 어린애가 풍금에 줄이 걸리
는 통에 어쩔바를 몰라 하다가 엉엉 울음을 터뜨
렸다. 아이들의 작은 걸상에 가뜩이나 불편하게
앉아있던 기사장은 그만해야 자리에서 일어 섰
다.

공연은 중지되었다. 유일한 관람자가 나가버렸
으니 더 계속할 필요가 없었던것이다.

기사장은 마당가에서 서성거리며 담배를 붙여
물었다. 손이 후들거려 성냥가치가 자꾸 부러졌
다.

처음엔 원장이 자기를 감동시키려고 조직한 공
연인줄 알았는데 채찍처럼 자기를 후려 치는것일
줄이야... 줄넘기를 하던 어린애가 울지만 앉았어
도 이렇게까지 웅색스럽진 않겠는데...

결국 공연을 보면서 받아 안은건 감동이 아니
라 수치와 모욕이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모욕
당한 그 분노를 터쳐 놓을 곳이 없는것이였다.
누구에게 뽀람이를 한단 말인가.

기사장은 자기결의로 다가오는 옥선원장에게
항의했다.

《원장선생! 이건 너무한데요.》

하지만 그 어조에는 맥이 없었다.

기사장보다 더 격해 진것은 옥선원장이었다.
그들은 공연을 함께 보고 다같이 격분되었지만
그 분노의 색깔은 서로 상반되는것이였다.

《기사장동지! 그래두 설계를 고치겠습니까. 기
사장동진 건설대상이 유치원이라고 해서 홀시하
고 있어요. 기사장동지도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
겠지요. 만약 기사장동지의 자식들이 이 유치원
에 다닌다면, 방금 공연을 하다가 울던 그 아이
가 기사장동지의 자식이라면...》

기사장의 갸웃한 얼굴은 순간에 험악해 졌다.
원장을 노려 보는 그의 눈길에는 말 못할 노여움
과 원망이 짙게 어려 있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 쉬다가 가슴을 섬찍하게 하는 갈린 목소리
로 한마디 했다.

《난 자식이 없소!》

그리고는 무슨 말인가 더 할듯 하다가 휙 돌아
섰다. 어리둥절해 진 옥선은 멀어 저 가는 그의
뒤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지나친
격분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던것이다.

(왜 그럴까. 내가 뭐 못할 말을 했는가?)

옥선원장을 더 놀라게 한것은 그로부터 며칠후
에 기사장이 유치원건설 총책임자가 되어 나타난
것이였다. 그가 자진하여 이 건설을 책임졌다는
것도 사업소에서 유치원건설을 뒤전에 놓으려 하

는것을 제일 강하게 반대한 사람이 기사장이라는
것도 옥선은 그때 다 알수 없었다. 그는 될수록
옥선원장과 단 둘이 마주 서지 않으려 했다. 불
가피한 정황에서는 사업상 문제만 한두마디 주고
받고 작업장으로 나가곤 했다. 아마 그때 받은
노여움이 쉽게 내려 가지 않는 모양이였다. 후날
에야 옥선은 기사장의 안해가 난치의 병에 걸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것을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제서야 기사장을 처음 만났던 날 그가
왜 그토록 격분했었는지 이해되었다. 자식이 없
어 가정생활이 불행한 사람에게 제일 아픈곳을
건드렸으니 그가 왜 노하지 않으랴. 옥선은 적당
한 기회가 생기면 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리라
생각했으나 그런 기회는 좀처럼 마련되지 않았
다.

유치원건설은 하루가 다르게 진척되어 갔다.
원장이 앞장 서니 교양원들은 물론이고 학부형들
까지 야간지원을 나오곤 해서 유치원건설은 사회
적지원속에 밤마다 우등불이 타오르곤 했다. 옥
선은 그 우등불빛에서 질통을 진 남편의 모습을
매일밤 찾아 보며 애뒀한 정을 한층 더 강하게
느끼곤 했다. 그런 순간이면 그는 자신이 무한히
행복한듯 싶었다. 하지만 행복이란 정녕 영원할
수 없는것인가.

평생 감기 한번 앓지 않던 남편은 뜻밖에도 불
치의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원래 장기
질환증세가 없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갑자기 병이
폭발적으로 악화되었던것이다.

옥선은 야간작업을 끝내고는 세수도 못한채 병
원으로 달려 가곤 했다. 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울면서 밤을 보내곤 했다. 하지만 생활
은 그에게 마음껏 슬퍼 할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한가정의 안해이기전에 유치원을 책임진
교육자였던것이다. 그는 건설장에 붙어 살다싶이
하면서 교양원들과 교수교양방법에 대해 토론
도 하고 직관물과 놀이감의 형태와 색깔에 대해
서도 의견을 주어야 했다.

그때 유치원에서는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예술
축전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 있었다.
이미전부터 옥선은 이번 축전에 자기도 올라 가
야겠다고 생각해 왔었다. 원장이 꼭 참가해야 한
다는 법은 없지만 다른 단체들의 수준도 제 눈으
로 직접 보고 경험도 교환하고 싶었던것이다.

《원장선생은 그만 두지 않겠어요? 세대주가 열
마후에 2차수술을 한다는데...》

옥선원장과 동년배인 김정옥이 어느새 눈치챈
는지 근심어린 얼굴로 말했다. 옥선은 아무 대답
도 못하고 그저 힘없이 고개를 수그리었다. 정말
어떻게 할것인가.

다른 녀자들 같으면 무조건 남편결에 있어야
한다는 단순하고 명백한 생활방식이 옥선이 자기
에게는 이다지도 힘든 문제로 나서는가.

2

그날 밤, 옥선은 남편의 머리맡에 앉아 점적방울이 규칙적으로 떨어 지곤 하는것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앓는 남편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가혹한 사정을 제 입으로 말하자니 도무지 말 꼭지가 떨어지지 않았던것이다. 아이들의 예술축전과 남편의 병상이라는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그의 머리속에는 왜서인지 자기의 길지 않은 인생행로가 언뜻언뜻 스쳐 지나갔다...

막별이군의 집안에서 막내딸로 태어난 옥선은 남의 집 아이보개노릇으로 인생을 시작하였다. 온 가족이 호구지책때문에 부모들은 머리태가 제비콩지만 한 어린 딸에게 밥벌이를 시키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조국이 해방되어서야 옥선이네 식구들도 먹고 사는것만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걸 이해하기 시작했고 새 생활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이 땅에 인민의 첫 정권이 수립되었을 때 락원기계공장의 기능공이었던 옥선의 아버지는 인민정권의 대의원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옥선의 아버지는 소주 한잔을 기분 좋게 들이키고 저녁상을 물리더니 어린 딸애를 불러 앉혔다.

《난 오늘 처음으로 나라의 국사를 론하는 큰 회의에 참가했었다. 회의에선 글썽 아이들의 연필문제가 첫 회의의정으로 상정되었구나. 이젠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의정이다. 지금 건국을 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바쁜 일들이 오죽 많으냐? 그래도 장군님께서는 교육문제를 제일 중시하신단 말이다. 그래서 난 옥선이만이라도 꼭 공부를 시키자는거다. 우리 집안도 장군님의 뜻을 따라야지.

옥선아, 넌 공부를 잘해서 이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이 되거라.》

그때부터 어린 소녀의 앞길에는 언제나 찬란한 무지개가 펼쳐져 있었다. 그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날아 오르는 선녀마냥 옥선은 대학공부까지 할수 있었고 졸업후에는 대학교단에 서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서도 그는 가정생활보다 대학에 더 재미를 느끼는듯싶었다. 그래서 저녁에는 남편이 행주치마를 걸치는 때가 드문하였다.

어느 날 옥선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난 유치원교양원을 할가 해요.》

《아니? 미래의 교수선생이 <아이보개>를 희망하다니? 대학교단이 너무 높아서 현훈증이 나는게 아니요?》

《난 <아이보개>가 좋아요. 왜서인지 마음이 자꾸만 거기로 쏠리는군요. 아이들에게 재능의 첫 싹을 틔워 주는 학령전교육은 사실 대학교육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에요. 과학자들이 밝힌데 의

하면 사람의 지능이 제일 발달되는 나이가 6살부터래요. 그리구... 제가 왜 교양원이 되고 싶어하는지 당신이야 잘 알지 않나요.》

남편은 알고 있었다. 그들이 처음 사귀었을 때 그는 사랑하는 처녀에게서 전설 같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은적 있었던것이다.

몇년전 신의주지방을 현지지도하시던 아버이 수령님께서는 집단체조 《압록강반의 새 노래》를 보아 주시면서 어린이장이 제일 훌륭하다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노래 부르는것을 볼 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였었다. 그리고 수령님께서는 집단체조창작가들을 저녁식사에 불러 주시었는데 그때 어린이장의 안무를 맡았던 옥선이기도 그 영광의 자리에 참가하게 되었던것이다.

《...

그때 수령님께서는 친히 저에게 축배잔을 부어 주시며 처녀선생이 오늘 나를 제일 기쁘게 해주었다고 앞으로도 아이들을 재간둥이로 잘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난 얼마나 행복하던지... 내 한생의 푸른 꿈은 어린이들을 나라의 보배로 키워서 아버지수령님께 또다시 기쁨을 드리는데요.》

옥선은 소원대로 유치원교양원이 되었고 남편이 행주치마를 걸치는 회수는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

그래도 안해의 불 같은 마음을 알고 있는 남편은 불평 한마디없이 코노래를 흥얼거리며 동자질을 하곤 했다...

그런데 이 무슨 불행이란 말인가. 옥선은 자기를 올려다 보는 남편의 시선을 감축하며 상념에서 깨어 났다.

《무슨 생각을 하오?》

《여보, 이런 때 난 어쩌면 좋아요?》

옥선은 자기의 속마음을 더 이상 묵여 둘수 없어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설사 남편에게서 원망을 산다 해도 말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었던것이다.

남편은 조용히 웃었다. 웃는다는게 그저 얼굴을 찡그릴뿐이었다.

《이런 때 주저하면 옥선이가 아니지. 내 걱정은 말고 결심대로 떠나요. 나야 당신의 꿈을 알지 않소.》

옥선은 뭐라 할 말이 없어 남편의 손을 얼굴에 가져다 대며 눈을 꼭 감았다. 눈을 감으니 며칠째 쌓이고 쌓였던 피로가 불시에 덜쳐 드는듯싶었다.

지금껏 가슴속에 껴져 두고 있던걸 털어 놓아서인지 마음이 한결 편안해 지며 한잠 푹 자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여보, 난 막 졸려요.》

《자오. 저기 빈 침대가 있지 않소?》

《아니, 여기서 자겠어요. 당신이 조금만 조이세

요.》

《허참, 간호원이 웃겠소.》

그러면서도 남편은 안해가 누울 자리를 내어 주었다. 둘이 함께 눕기에는 좁은 침대였지만 그래도 남편의 옆자리에 꼬부리고 누운 옥선에게는 그이상 편한 잠자리가 없었다. 그는 남편의 성한 팔을 베고 눕자마자 단박에 꿈나라로 가버렸다.

이날 저녁 옥선은 행복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남편과 함께 보낸 마지막밤이 될줄이야.

남편은 옥선이네가 축전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 는 그날 수술장에서 숨을 거두었다. 원래는 2차 수술을 옥선이가 온 다음에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어쩔수 없었던것이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달려 간 옥선은 남편의 시신 앞에서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한참만에 정신을 차렸다가는 극도의 정신적 허탈로 다시 쓰러지고 깨어 났다가는 또 몸부림치고... 엄청난 불행앞에 넋을 잃고 고통스러워 하는 너인의 정상을 보다 못해 모르핀까지 주사했건만 그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는 연약한 녀성이었던것이다. 그는 장례를 어떻게 치르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장례를 치른 다음날 불행에 영영 쓰러진줄 알았던 옥선은 새벽부터 일어 나 출근준비를 서둘렀다. 동생네 집에 와 있던 옥선의 언니가 놀라서 물었다.

《너 정말 일 나가려느냐?》

《예.》

《며칠 쉬려무나. 유치원에 미쳤니? 네가 무슨 정신에 애들앞에서 노래 부르구 춤을 추겠느냐?》

《그래두 애들속에 있는게 나아요.》

그는 오래동안 경태앞에 마주 앉아 있었다. 머리를 간간히 빗고 화장도 연하게 했다. 자기의 슬픔은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것이라 해도 아이들 앞에서는 그런 티조차 보여선 안되었던것이다.

교양원들은 원장의 정상출근이 너무 뜻밖이어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넌 생각도 못하고 눈길을 마주 치는것마저 피하려고 했다. 하기가 행복한 가정생활이 끝나버린 젊은 녀인에게 천마디 위로의 말이 무슨 소용 있으랴.

《다들 나왔어요?》

《순영선생이 가정사정으로...》

책임교양원 박춘옥이 사정을 설명했다.

《그럼 그 반에는 제가 대신 들어 가겠어요.》

첫 시간은 우리 말 공부시간이었다. 밝은 얼굴로 아이들앞에 나선 원장은 우리 말을 잘 배우자는 노래를 풍금소리에 맞추어 아이들과 함께 부르는것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소나무》라는 단어를 배워 주었다. 건너긋기, 내려긋기를 한획 한획 배워 주고, 반복해서 씌여 보고, 정확히 발음해 보고... 어느새 그의 이마에

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내뿜었다. 그는 소나무 결그림을 짚어 가며 소나무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소나무는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언제나 푸르싱싱하답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높은 벼랑이나 바위잡에서도 뿌리를 든든히 박고 억세게 자라나는 장한 나무입니다. 동무들도 앞으로 소나무처럼 억세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더 강해 지고 더 잘 살수 있습니다...》

그것은 옥선이 자기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날 교양원들은 자기네 원장을 지켜 보며 많은것을 생각했다. 자기들이 조국앞에 얼마나 위대한것을 책임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옥선이와 같은 연약한 녀인도 소나무의 기상을 지닌 초인간적강자로 되게 하는 교육자의 위치와 사명에 대하여...

3

유치원건설은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옥선이 그린 전망도대로 완공되었다. 새 유치원으로 이사한지 며칠 지난 어느 날 건설사업소 기사장은 세명의 아이들을 앞세우고 옥선원장을 찾아 왔다.

《원장선생! 이 애들을 받아 주십시오. 나두 이젠 아버지가 됐습니다.》

옥선은 선뜻 리해되지 않았다. 기사장에게야 자식이 없지 않는가.

《어찌된 일입니까?》

영문을 몰라 하는 옥선에게 어쭙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기사장은 간단히 말했다.

《난 어제 애육원에 갔됐습니다. 이젠 이 애들이 내 친자식들입니다.》

그는 나란히 서 있는 아이들의 머리를 차례로 쓰다듬으며 천진스런 어조로 말을 이었다.

《이 애는 몸이 튼튼한게 앞으로 인민군대에 나가면 틀림 없는 장령감입니다. 그리고 이 애는 머리통이 큼직한게 꼭 과학자가 될겁니다. 이쪽 녀석은 생김새가 처녀애들처럼 곱살한게 음악가로 키워 불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옥선은 아이들의 미래를 선 자리에서 첩첩 규정해 버리는 기사장에게 어이 없는 웃음을 지었다.

《아이참, 기사장동지 욕심두...》

《욕심이 크다는건 나두 압니다. 하지만 난 봉창을 해야겠습니다. 부디 아이들을 잘 키워 주십시오.》

기사장은 제 말이 결코 통담이 아니라는것을 강조하려는듯 정색한 표정으로 어딘가 애원에 가까운 어조로 말하는것이였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앓는다면 애들을 셋씩이나 데려 오면 도대체 어찌자는거예요?》

그 말에는 그도 인츰 입을 열지 못했다. 한동

안이 지나서야 기사장은 고개를 들며 먼 곳에 눈길을 주는 것이었다.

《난 원장 선생을 처음 만났던 그날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지요. 나의 후대관에 대해서. 말로만 래일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눈앞의 난관만 크게 보는 나의 편협한 생활태도에 대해서... 어리석게 설계도면까지 고칠 생각을 했으니 내가 얼마나 좁았는가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직 자식이 생기지 못한 것도 나에게 차려진 응당한 처벌로 느껴지더라 말입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 나보자고 유치원 건설장에 나왔었지요. 내가 이 애들을 데려 온 것도 후대앞에 나 자신을 속죄하고 싶은 마음에서라고 할지... 그러니 우리 집 형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애들을 친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느껴 지지 않겠지요.》

옥선은 기사장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사람은 후대앞에선 누구나 아름다와 지는 법인가.)

그렇게 받아 들인 세 아이 중에서 처녀처럼 곱살하게 생긴 동일이는 음악적 감수성이 남 달리 예민한 아이였다.

하루는 박명숙 교양원이 찾아 와 동일이에게 바이올린을 배워 주겠다고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 애가 글썄 어제 저녁 텔레비전에서 처음 나오는 노래를 제법 흥얼거리지 않겠습니까. 그 애는 틀림없이 음악수재입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옥선은 두말없이 박명숙에게 맡겨 주었다. 그는 박명숙 교양원을 믿고 있었다. 사실 박명숙이 처음 교양원으로 배치되어 왔을 때 옥선원장은 저 최초리같은 뱀시쟁이 처녀가 아이들을 꽤 다루어 낼까 하고 은근히 걱정했었다. 그런데 웬걸. 박명숙은 타고 난 근시여서 도수 높은 안경을 끼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눈을 밝혔는지 음악적 재능이 있는 어린이들을 속속 골라 내어 바이올린 5중주를 조직하겠다고 제기해왔다. 처녀 교양원이 오자마자 관을 크게 벌리는 것이 대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어 옥선은 박명숙에게 넌지시 물어 보았다.

《차라리 손풍금 같은 리듬악기로 시작해서 경험을 쌓는게 낫지 않을까. 바이올린이야 음색이 제일 예민한 현악기인데 아이들이 해내겠는지... 처음부터 힘들게 시작했다가 실망하지 않겠어요?》

그때 박명숙은 새물새물 웃으며 원장에게 반문했다.

《원장 선생님은 제가 못 미더워 보이는게지요?》

《그런 건 아니구...》

《그럼 됐어요. 쥐를 잡아 봐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법이야 없지 않나요?》

《그래 그래.》

처녀는 정말 호랑이를 잡을 심산인지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 붙었다. 그는 음악공부시간에는 출석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언어를 음악으로 대신하곤 했다. 레를 들어 누구에게는 도미솔, 누구에게는 레화라, 미레미... 이런 식으로 매 아이마다 음표를 기억시켜 주고 피아노로 그 음악이름을 불러서 대답을 못하는 아이는 그 시간에 결석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 아이들을 시작부터 긴장시킬 뿐 아니라 청음 훈련에도 아주 효과적이었다.

그런 이악쟁이가 동일이를 말았으니 틀림없이 재능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키울 것이라고 옥선은 믿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박명숙은 유치원의 하루일과가 끝난 후에도 동일이와 마주 앉아 있곤 했다. 하루종일 높은 훈련강도에 지친 동일이는 밤 늦게 집에 갈 때면 교양원 처녀의 잔등에 업혀 꿈나라를 헤매곤 했다.

옥선은 동일이에게 집에 가셔도 훈련하라고 바이올린을 하나 사주었다. 그런데 그게 기사장을 딱하게 할 줄이야.

다음날 유치원에 찾아 온 기사장은 바이올린 값을 책상 위에 올려 놓으며 몸 돌바를 몰라 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게 험치 않군요. 난 어째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옥선원장은 사소한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기사장의 마음을 늦춰 주고 싶어 혼연한 어조로 말했다.

《기사장 동지야 바쁘지 않습니까?》

《이건 바빠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관심했기 때문이지요. 제 친자식이었다면...》

그는 원장과 마주 앉아 있기가 피로했던지 서둘러 떠나버렸다.

계절이 바뀌고 한해가 흘렀다. 그 동안 동일이의 재능은 몰라 보게 높아 졌고 박명숙의 기쁨도 그만큼 커졌다. 요즈음 박명숙은 정말로 사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성공한 창작가들마다 한생의 대표작이 있듯이 박명숙은 자기가 키워 낸 동일이를 청춘시절의 최결작품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처녀 교양원의 그 남 다른 자부심이 옥선원장에 의해 산산히 부서질 줄이야...

어느 날 옥선은 속상한 표정으로 현관을 나서는데 박명숙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울상이예요?》

《동일이가 또 달아 났습니다. 틈만 생기면 없어 지곤 하는데 에이 참.》

《그 애가 바이올린에 싫증을 느낀게 아닐까?》

《그렇리야 있겠습니까? 장난이 세찬 때이니 또 아동공원에 가 있을 겁니다.》

옥선은 다른 아이들을 훈련시키라고 박명숙을 돌려 보내고 자기가 동일이를 찾아 나섰다.

(아이들에게 지속성이 없는건 사실이지만 천성적으로 자기 취미에 맞는 재능을 배울 때에는 재미 있어 하는 법이 아닌가. 그런데 동일이는…)

동일이는 아동공원의 구석진 곳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 애는 옥선원장이 곁에 다가서는것도 모르고 무슨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여기서 뭘해요?》

옥선원장이 엄하게 물어서야 동일이는 음악실을 몰래 빠져 나온 제 잘못을 깨달았던지 고개를 푹 떨구고 일어 섰다. 동일이가 장난하던것들을 살펴 보던 옥선은 머리를 기웃거렸다.

《이건 무슨 놀이예요?》

땅바닥에는 나무가지와 조약돌이 서로 절반씩 갈라 져 있었다. 옥선원장이 재차 물어서야 동일이는 기여 들어 가는 소리로 대답했다.

《땅크하구 비행기입니다. 두편으로 똑같이 나누었는데 땅크 한대가 남아서…》

그리고 보니 조약돌 하나가 덩그러니 한쪽에 놓여져 있었다. 그 애는 쉼세기놀음을 하고 있었던것이다. 동일이가 앉았던 주변에는 나무꼬챙이로 써놓은 수자들이 가득 널려 있었다.

《재미있어요?》

옥선원장이 한결 온화한 어조로 묻자 동일이는 활기를 띠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예!》

《바이올린보다도 재미 있어요?》

《예!》

철부지장난꾸러기의 대답이지만 옥선은 심중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이 애가 혹시 자연과학에 더 취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애를 잘못 키워 왔단 말인가.)

옥선은 도대체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그날부터 그는 동일이의 재능을 정확히 규정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험을 쳐보았다. 그 순간순간은 가슴을 조이며 실험관이 끓는것을 주시하는 연구사의 심정과 비슷한것이였다. 불안, 두려움, 희망과 실망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그런 순간들을 거치는 과정에 옥선은 동일이가 쉼세기시간을 특별히 즐겨 한다는것과 음악시간에도 수자악보에 대한 리해가 더 빠르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총체적으로 동일이가 음악보다는 수학적재능이 더 크다는 결론은 옥선원장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 무슨 변이란 말인가. 한 인간의 앞길을 어떤 왕창 같은 곳으로 몰아 갈번 했는가. 어째서 애초에 동일이의 취미를 옳게 가려 보지 못했단 말인가. 어째서… 그의 마음을 더 번거롭게 한것은 박명숙교양원에게서 동일이를 떼내야 한다는 것이였다.

옥선은 같은 교육자로서 박명숙에게 동일이를

포기하라는 말을 차마 할것 같지 못했다. 하지만 옥선은 박명숙을 부르지 않을수 없었다. 그것은 결코 외면할수 없는 자기 몫이었던것이다. 그는 될수록 처녀와 눈길이 마주치는것을 피하며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사연을 설명했다. 언제나 명랑하던 처녀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 지더니 다시 창백해 졌다. 낮색이 하얗게 질린 처녀는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 방안이 떠나갈듯 웅크렸다.

《안됩니다!》

처녀의 얼굴에서 안경알이 번뜩이였다. 그 안경알너머에서는 날카로운 눈빛이 원장을 쏘아 보고 있었다. 한동안이 지나자 그 날카로운 빛은 사라지고 대신 두줄기 눈물이 보들보들한 얼굴로 주르르 흘러 내렸다.

《어쩌면… 원장선생이 그런 요구를…》

《섭섭하지만 어찌겠어요. 우리가 그 애의 재능을 너무 쉽게 규정한게 잘못이었어요.

엇그제도 동일이가 꽃밭에 심은 꽃나무앞에서 서성거리길래 뭘 하는가고 물었더니 자기네 세형제의 나이를 합친것과 꽃나무에 핀 꽃송이가 꼭 같다고 기뻐 하지 않겠어요. 그 애의 눈앞엔 온통 수자뿐이예요. 우린 그 애한테 더 넓고 무한대한 수자의 세계를 펼쳐 주어야 해요. 사실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에 남 다른 취미를 가진 과학자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건 수학이 모든 지능활동의 기초이기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린…》

하지만 박명숙은 물려설 잡도리가 아니였다.

《원장선생님은 제가 동일이에게 얼마나 큰 기대를 걸었고 그 애한테 얼마나 많은것을 바쳐 왔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옥선은 마음이 견잡을수 없이 흔들렸으나 애써 랭정하게 말했다.

《선생은 이제 와서 자기가 바친 노력에 대한 보상을 계산하려는거예요? 한 어린이의 미래가 그 누구의 자부심이나 만족시켜 주기 위해 복종된다는건 언어도단이에요. 동일이에게 수학적재능이 더 크다는걸 알면서도 계속 바이올린을 시킨다면 그건 범죄예요. 두말 말고 래일부터 동일이한테서 손을 떼세요.》

《예?》

너무도 가혹한 선고에 박명숙은 흠칫 놀랐다. 원장의 태도에서 추호의 타협도 읽을수 없었던지 박명숙은 마지막으로 간청하다싶이 말했다.

《정 그러면 유치원기간만이라도 바이올린을 시킵시다. 공부야 학교에 가서부터 해도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축전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제 당장 그만한 수준에 있는 아이를…》

《안돼요!》

옥선의 노성이 방안을 쩍- 울리며 박명숙의 말꼬리를 잘라 버렸다.

박명숙은 얼굴을 싸쥐며 방에서 뛰쳐 나갔다. 홀로 남은 옥선은 허물어 지듯 걸상에 주저앉았다.

큰 고역이라도 치르고 난듯 온몸의 맥이 다 빠져 버린듯 한 허탈감을 이겨 낼수 없었던것이다.

(내가 너무했는가. 축전까지만이라도 동일이를 그냥 놔둘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동일이는 1년을 헛되게 보내지 않았는가. 나 같은 무책임한 교육자때문에 놓쳐 버린 그 1년을 우리가 조국앞에 어떻게 보상한다 말인가.)

그 다음날 동일의 아버지가 옥선원장을 찾아왔다. 이미 사연을 다 듣고 왔는지 그는 옥선에게 직방 들이대는것이였다.

《난 우리 애를 음악반에 그냥 두었으면 합니다.》

옥선은 껍심이 풀렸으나 침착해 지려고 애쓰며 기사장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기사장은 담배를 꺼내들며 폭 가라앉은 소리로 자기의 심중을 터놓았다.

《난 그 애에게 바이올린을 배워 주겠다고 할때 그 애가 커서 이름 있는 음악가가 되리라고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저 부모없이 자란 그 애가 한점 그늘없이 마음껏 노래 부르며 행복하기만을 바랬지요. 사실 유치원에서야 그 아이들이 재롱스럽게 자라면 그만이 아니겠소. 더구나 그 애가 이다음에 큰 과학자가 된다는 아무런 담보도 없는데...》

《담보가 있습니다!》

옥선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절절하고 확신성있게 말했다.

《동일이한테 그런 담보가 있어요. 그 앤 틀림없는 수재입니다. 그래서 명숙선생이 섭섭해하는줄 알면서도 그 애를 돌려 놓는거예요.》

기사장은 어지간히 속이 달았던지 담배를 비벼 끄고 옥선이쪽으로 바투 나앉았다.

《원장선생! 털어 놓고 말합시다. 명숙선생이 지금껏 품을 들었는데 이제 와서 그만 두면 그가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교육자도 인간일진대 아무리 미래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오늘날 자기를 위한 몫이 있어야 할게 아니요? 동일이가 바이올린을 계속해야 그 선생의 공로가 인정된다는걸 원장선생이 모른단말이요?》

옥선의 표정은 날카로와 졌다.

《기사장동지는 우리 교양원들을 잘 모르시는군요. 우리한테 아이들의 재능을 옳게 짚 튀워 줄 나라앞에 지닌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장동진 자식의 미래를 놓고 무슨 흥정을 하려는건가요?》

두사람사이에는 오래도록 무거운 정적이 깃들어 있었다. 기사장은 대답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한숨소리는 오히려 방안에 드리운 정적의 중압을 더 크게 해주었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기사장은 제 목소리 같지 않게 갈린 소리로 말하는것이였다.

《어제 밤에 명숙선생이 집에 왔습디다. 처녀선생이 혼자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툭툭 부었더군요. 동일이의 손목을 꼭 잡고 이제부턴 음악실에 오지 말구 공부를 잘하라고 몇번이나 꿀꺽구 가져 온 학습장이랑 연필이랑 안겨 주고도 종시 떨어 지질 못하더군요. 그래 내 하루밤 같이 자라고 했수다. 그새 애한테 얼마나 정이 들었는지 제 친자식처럼 꼭 껴안구 자는걸 보니 가슴이 얼얼해 와서... 그래 내 원장선생을 노엽힐줄 알면서두 찾아 왔됐습디다. 원장선생! 나야 이미 아이들을 유치원에 맡긴 사람이 아닙니까?》

기사장의 마지막말은 물기에 폭 젖어 있었다.

4

세월은 흘렀다. 동일이는 어느덧 중학교과정을 2년이나 앞당겨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게 되었다. 그때는 이 땅에 고난의 모진 광풍이 휘몰아치던 준엄한 시기였다. 그 모진 바람은 이 땅의 제일 나지막한 울타리, 그러나 미래를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들에 고여 저 성새처럼 높고 든든했던 탁아소와 유치원의 울타리마저 타고 넘어 왔다.

옥선원장은 교편물로 리용할 토끼를 마분지에 서 오려 내다 말고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어제는 난방용석탄이 보장되지 않아 시에까지 제기했는데 오늘은 공급소에 콩기름을 타러 갔던 경리원 김정옥이 어깨가 폭 처져 빈 손으로 돌아 왔던것이다. 그의 귀가에는 이려다간 유치원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라고 안타까와 하던 김정옥의 울먹울먹한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아니, 그럴순 없어! 절대 그렇젠 안돼!)

문기척소리가 울렸다. 고개를 드니 동일의 아버지가 문가에 서 있었다. 이제는 큰 건설사업소의 지배인이 된데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이 난

그는 예전의 칼칼하던 인상대신 푸수한 느낌을 주는 장년으로 변했었다. 건설사업소가 유치원 후원단체가 된후부터 지배인은 특별한 일거리가 없어도 옥선원장을 자주 찾아 오곤 했다. 그는 기분이 울적하거나 일에 부대껴 피곤할 때면 지나가던 길에라도 잠깐 들려 자기의 사업상 고충과 생활다반사까지 허물없이 털어 놓으며 심신의 피로를 푸는데 습관되었던것이다.

《잘 있었소? 그런데 무슨 소꿉놀이를 하시우?》

지배인은 마분지를 오려 내는 원장에게 즐거운 어조로 물었다.

《토끼를 오려 내고 있어요.》

《토끼? 허허... 원장선생은 정말 <늙은 애기>요.》

언제부터인가 지배인은 옥선원장에게 그런 별명을 붙여 주었다. 나이가 들도록 유치원에 붙어 있다는 소린지 아니면 울적마다 해달라는것을 다해 주어도 새라새로운 일거리를 끝없이 요구하는게 욕심 많은 어린애와 같다는 뜻인지...

《그런데 건 뭘 만드느지요?》

《<달나라 만리경>이라는 동화그림책이에요.》

옥선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참 뜻이 깊은 동화예요. 달나라에서 두 만리를 본다는 망원경이 없었다면 살기 좋은 우리 나라를 찾아 내지 못했겠지요? 멀리를 본다는게 어디 쉬운가요?》

《별걸 다 부러워 하누만. 세상에 교육자이상 멀리 볼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지구...》

《아이참, 지배인동지두...》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며 허물없이 웃었다. 옥선은 마음이 무거운 이 시각에 그가 찾아 와 준것이 반가웠다.

《그렇지 않아도 한번 찾아 가려했는데 마침 잘 오셨어요.》

《또 무슨 일감이 생긴게로구만》

《우린 3층옥상에다 태양열온실을 짓자고 해요. 겨울에도 아이들에게 신선한 남새를 먹일수 있게 말이에요. 이번에도 도와 주시겠지요?》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던 지배인은 뭔가 타산이 생겼는지 시원스레 대답했다.

《도와 주겠소!》

《그저 세멘트만 좀 해결해 주세요. 나머지는 우리 자체의 힘으로 해보겠어요. 미안해서...》

《원장선생은 언제부터 그렇게 소심해 졌소? 내로력이랑 다 보장해 주겠으니 걱정 말고 애들이나 잘 키우시우.》

《고마워요.》

그런데 그 일이 문제시될줄이야...

며칠후 옥선은 시검찰소의 호출을 받았다. 건설사업소에서 다른 대상건설에 써야 할 자재와 로력을 유치원에 돌린것때문에 지배인이 제기되었던것이다. 검찰소의 담당검사는 젊은 사람인데 몹시 딱딱해 보였다. 그는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며 물고는 조서용지를 내밀었다.

《검사동무! 이건 다 내 잘못이에요. 그러니 지배인동무는 추궁하지 말아 주세요.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지겠습니다.》

《건설사업소 지배인은 국가물자를 독단적으로 처리한데 대한 법적추궁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소정문을 나신 옥선원장은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 길옆에 주저앉았다.

(일이 이렇게 되다니? 공연히 지배인이 화를 입게 되지 않았는가.)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것은 이번 사건으로 동일이가 받아 안게 될 심리적타격때문이었다. 아버지가 법적책임을 지게 되면 당장 대학입학시

험을 치러 가야 하는 동일이에게 얼마나 큰 타격으로 될것인가. 분명 그 애는 시험을 제대로 치러 내지 못할것이다. 아니, 애당초 동일이는 시험치러 가지부터 앓을거야. 그러면 결국 한 인간의 재능이, 그의 미래가 영영 묻혀 버릴수도 있지 않는가.

옥선은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혀 저도 모르게 부르르 몸을 떨었다.(절대로 그렇게 될수 없어!)

유치원에 돌아 온 그는 당장 공사를 중지시키고 노동자들을 다 돌려 보냈다. 아이들에게 겨울남새를 먹일수 있게 되었다고 신이 나서 일손을 다그치던 노동자들은 낮색이 컴컴하게 질려 있는 원장에게 왜 공사를 그만 두는가고 감히 묻지도 못했다.

그날 저녁 옥선은 집에 들어 갈 생각도 못하고 밤 늦도록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도무지 아무일도 손에 걸리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다.

누군가 꾸벅꾸벅 복도를 걸어 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문이 열렸다.

《누구예요?》

《불도 켜지 않구 뭘하시우?》

지배인은 제 손으로 벽가의 스위치를 눌렀다.

옥선은 텅기듯 자리에서 일어 나며 다급히 물었다.

《어떻게 됐어요?》

지배인은 대답대신 근심이 가득 실린 원장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원장선생! 울었구려, 허참...》

《어서 말해 주세요. 무사할것 같애요?》

그래도 아무 말없이 옥선을 바라보던 지배인의 입에서는 불안간 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래 내가 잡혀 갈가 봐 노동자들을 돌려 보냈소? 어째서 공사를 중지시켰는가 말ियो?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일이면 끝장을 봐야지 그게 뭐요? 교육자라면 아이들을 위한 일에서야 한본새로 강해야지 서리맞은 떡잎처럼 맥을 놓으면 어찌는가 말ियो?》

지배인의 목소리는 준절하게 울렸다. 묵묵히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원장을 내려다 보니 오늘따라 그가 별로 측은하게 여겨 졌다. 녀인의 눈가에 깊어 진 잔주름이며 귀밑머리의 흰 서리가 유묘하게 눈에 띄었던것이다. 지배인의 가슴은 푸근한 런던의 정에 스르르 젖어 들었다. 자기의 고달픔은 단 한번도 하소해 본적 없던 이 강의 한 녀인이 지금 지배인 자기의 운명이 걱정되어 빈 방에 홀로 앉아 속을 태우고있지 않는가.

지배인은 아까보다 퍼그나 가라앉은 어조로 입을 열었다.

《원장선생은 어떤 경우에도 나약해 지면 안될 사람이지요. 선생이야 교육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만한 일에 주저앉은걸 보니 섭섭하군요. 선

생이 지금껏 교육자로서 강하게 살아 왔기 때문에 난 여태 선생을 존경해 왔습니다. 이걸 나만이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모든 부모들이 원장선생 같은 교육자들에게 바치는 진심이지요.》

지배인은 할 말을 다했는지 책상우에서 가방을 집어 들고 자리에서 일어 섰다. 문가로 걸어 가던 그는 발길을 멈추고 따뜻한 눈길로 원장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다른 걱정 말구 래일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구… 이걸 내 개인적인 부탁인데… 미용원에 가서 머리염색이랑 하면 더 젊어 보일거요. 너자들은 자기가 아름답다는걸 확인할 때 힘이 생긴다더구만. 어쨌든 우리 나이에 늙었다는 생각에서 해방되는것만 해도 얼마나 좋소. 허허…》

《고마워요.》

지배인이 약간 뒤 그가 한 말들을 되새겨 보느라니 옥선은 저도 모르게 눈곱이 축축해 졌다. 그는 이 밤 혼자서 마음껏 울고 싶었다.

이튿날 담당검사가 옥선을 찾아 왔다.

《지배인동무에겐 잘못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와 주어야 할 유치원인데 제가 사업년한이 어리다 보니 원칙 하나만 내세우면서… 제 지금 우리 당조직에 자기비판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원장선생님! 용서하십시오. 사실은… 저도 이 유치원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옥선은 말없이 젊은 검사의 손등만 쓸어 주었다. 아이들을 위한 일에서는 무한한 사랑만을 아는 우리의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회상에서 깨어 난두 사람은 천천히 무용실을 나섰다. 복도를 걸어 가던 옥선원장은 음악실에서 울려 나오는 바이올린소리에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교양원들이 늘썩 타군 하는 바이올린소리와 어딘가 음색이 다른감을 느꼈던것이다. 그 노래소리는 그 무엇을 절절하게 호소하기도 하고 뜨거운 격정의 환희를 터치기도 하며 옥선의 가슴속으로 파고 들었다. 옥선원장은 그 노래소리에 이끌리어 조용히 음악실로 들어 섰다. 음악실 한가운데에는 중년부인이 된 박명숙교양원이 주위세계를 망각하고 그런듯이 앉아 있는데 햇빛 밝은 창가에서는 릉름한 청년이 열정적으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다.

박명숙의 앞에 놓인 책상우에는 청년박사-동일의 박사메달이 햇빛에 번쩍이군 하였다.

그 박사메달을 바라보는 박명숙의 눈가에서는 맑은 눈물이 찰랑거리는데 어제날의 처녀교양원은 그것을 씻을념도 않고 그 눈물의 맑은 투명막을 통하여 더더욱 금빛으로 령통한 빛을 뿌리는 그 메달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음악실은 이름할수 없는 감동적이고 그리고 엄숙한 분위기에 넘쳐 있었다. 그 바이올린소리는 한 청년과 학자가 배움의 첫 걸음마를 떼여 준 고마운 스승들에게 드리는 열렬한 찬가였으며 다함 없는 존경의 인사였던것이다.

옥선은 천천히 창가로 다가섰다. 석양에 물든 하늘가는 어느때 없이 아름다왔다. 태양은 서산마루를 넘어 가면서도 드넓은 하늘가에 장엄한 노을을 펼쳐놓은것이였다. 옥선원장은 태양이 어둠을 앞두고 펼쳐 놓은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여덟살 어린 나이에 남의 집 아이보개로 시작된 인생이 《아이보개》로 한생을 살아 오면서 진정으로 삶의 보람을 누릴수 있는것은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는 사회주의 이 제도가 운명 지어 준 그 길에서 미래를 위한 꿈을 안고 그것을 쫓 피워 왔기때문이 아니겠는가. 그의 한생의 행복을 증명하려는듯 동일이가 두팔을 벌리고 달려 왔다.

《선생님!》

...

×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보아 주시면서 민족의상을 차려 입고 꽃줄놀이를 재치 있게 하는 신의주시 본부유치원어린이들이 볼수록 기특하다고 뜨겁게 축복해 주시였다.

로동신문은 그에 대해 소개하면서 김옥선원장의 심정에 대해 이렇게 썼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어린이들을 얼마 안은 김옥선동무의 눈가에는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차넘치였다.

<…정말 장해요! 어린 동무들이 공연을 잘해서 아버지수령님께서 아시던 우리 유치원이 오늘은 아버지장군님께서도 아시는 유치원이 되었어요!>…》

해방전 기행문에 반영된 시가문학에 대하여

유성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찬란한 문학예술유산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민족의 크나큰 금지이며 민족문학예술을 끊임없이 개화발전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금은보화 가득찬 삼천리 금수강산을 세상에 높이 자랑하며 탐승의 길을 꾸준히 개척해 왔다.

8세기 김대문의 《한산기》,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으로부터 오랜 발전력을 계승하여 온 우리 나라 기행문학은 해방전 일제의 가혹한 탄압이 가해지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근기 있게 창작되어 왔으며 탐승길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을 시가형식으로 엮어 놓았다.

해방전 대표적인 기행문으로서 《반도산하》, 《수필기행문집》, 《탐라기행》, 《십춘순례》, 《백두산행기》, 《백두산등척기》, 《백두산근참기》 등을 들수 있다.

이 기행문에 수록된 시들은 대개 기행로정을 시화하여 조국산천의 아름다움과 매 지방의 미풍양속,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 력사적사실 등을 서사시적화폭으로 진실하고도 풍부한 사상감정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시로는 리은상의 《산상의 로영초야》, 《천주의 대주상》, 한통운의 《명사십리》, 김동환의 《초하의 반월성》, 김억의 《약산동대》, 로자영의 《천안삼거리》, 안재홍의 《백두산에 올라》, 윤화수의 《백두산을 찾아서》, 최남선의 《백두산대탄덕문》 등이다.

이 시작품들가운데서 제일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윤화수, 안재홍, 최남선의 백두산기행시들이다.

일반적으로 금강산, 구월산, 한나산, 제주도를 유람하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 많은 시를 창작하였지만 일제의 엄밀한 감시와 통제하에서 백두산을 탐승하고 시를 남긴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이로부터 백두산에 대한 사람들의 표상은 백두산이 우리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며 사철 흰 눈을 이고 서 있는 산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윤화수의 《백두산등척기》, 안재홍의 《백두산행기》, 최남선의 《백두산근참기》가 나옴으로 하여 백두산을 웅장하고 신비함으로서만 아니라 조종의 산으로, 민족의 녀트로, 조선의 자랑으로 더욱 깊이 알게 하였다.

윤화수의 《백두산을 찾아서》에서는 이렇게 노

래하고 있다.

1

험난한 산악을 넘고요
심원한 림해를 건너서
님 찾아 간다는 사람아

2

알음이 있고서 가는지
알음이 없어도 가는가
알고저 하여서 묻노라

3

알음이 있던지 없던지
정든 님 그린지 오래서
뵈고저 찾아서 가노라

시는 갈 길 몰라 헤매이던 발길이 왜서인지 백두산으로 향하여 지는 마음과 함께 알아도 몰라도 험난한 산을 넘고 넘어 백두산을 찾아서 가는 필자의 심정을 노래하였다.

안재홍 역시 백두산을 바라보고 밀려 오는 격정의 홍수를 이길수 없어 《백두의 신비경》이라는 제목아래 4개의 련으로 된 시를 창작하였다.

이 몸이 울어 울어
우뢰같이 크게 울어
망천후 사자되어
온 누리 놀래고
지치다 데깁 넓이
행여 내쳐 잡들리

이 산이 터져 터져
오늘도 탁 터져서
사납게 타는 불꽃
온 세상 재될세라
빈터에 새 일월이
하마 한번 비치리

이 숲이 넘쳐 넘쳐
단박에 와락 넘쳐
엄청난 홍수되어
이 강산 덮을세라
대지의 낡은 꼴이
휼 씻긴들 한되리

저 숲을 다 죽이어
억천호 집을 짓고

남북만리 넓은 벌로
한마을 맨들랴다
없노라 하소하느 님
다 찾으면 어머리

이 시는 백두령봉에 오른 필자의 정화이다.
백두에 오르고저 행장을 차렸던 필자의 취지,
백두에 올라서 가슴에 묻어 두었던 가지가지 많은 사연을 한마디로 터치리라던 생각, 바라는 모든것을 아뢰이고 나라 잃은 민족이 념원하는바를 유감없이 다 표시하리라던 깊은 심증이 이 시에 집약되어 있다.

총체적으로 그가 바라는것은 백두의 기상이 우뢰같이 온 누리를 놀래우고 백두의 정기가 온 세상을 덮고 백두의 천지물이 대지의 어지러움을 씻으며 백두의 나무로 이 나라를 일떠세우고 싶어 하는 씩씩하고도 열정적이며 간곡하고도 눈물에 찬 인민의 념원을 대변하고 있다.

13개의 긴 장시로 된 최남선의 《백두산대탄덕문》도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은 조선인민의 념이라는것을 주장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최남선의 《백두산근참기》는 구절마다 애국심이 흐르는 기행문이라고 하시였다.

원문 한개편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심으로 백두산께 귀명합니다
우리 종성의 근본이시며
우리 문화의 연원이시며
우리 국토의 초석이시며
우리 역사의 양분이시며
우리 정신의 편책이시며
우리 리상의 지주이시며
우리 인민의 효모이신
백두산 천왕전에
일심으로 귀명합니다

이처럼 시에서 보는바와 같이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우러르며 《우리 문화의 연원》, 《우리 국토의 초석》, 《우리 역사의 포태》, 《우리 생명의 양분》, 《우리 정신의 편책》, 《우리 리상의 지주》로 찬양한것은 필자의 높은 민족정신의 발현이다.

백두산기행문에 수록된 시가들은 한결같이 백두산을 더 잘 알게 하고 백두의 참모습을 서사시적화쪽으로 그려 낸것으로 하여 우리 시가문학의 귀중한 유산으로 된다.

해방전 진보적인 작가들은 백두산시가뿐아니라 어디 가나 아름다운 조국땅을 노래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기행시의 사상주제적지향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첫 부분은 유구한 력

사를 자랑하는 력사유적유물들에 대한 고찰과 둘째 부분은 민족수난의 검은 구름이 드리웠던 조국강토를 보고 느낀 감정, 셋째 부분은 조국의 명산 명승지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하고 있다.

해방전 기행시들에는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슬기롭고 용맹한 애국명장들의 공적을 노래하는 시들이 수많은 창작되였다.

해방전 력사유적과 관련된 기행문으로서 《삼천리사》에서 일제가 패망하기전인 주체33(1944)년에 간행한 《반도산하》, 《사적8경》편에 《락화암》(리병기), 《대동강과 모란봉》(량주동), 《남한산성》(박종화), 《만월대와 선죽교》(최정화), 주체 25(1936)년 《백운사》에서 간행된 《심춘순례》(최남선), 《수필기행문집》에 수록된 《반월성순례기》(로자영)를 들수 있다.

로자영의 《반월성순례기》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석사자 살아 나서 큰 소리로 울듯 하다
풍마수우 몇천년가 그렇교 남았거늘
어이하다 못난 나그네 이돌앞에 우는교

토함산 바람 불고 불국사 종이 울제
석사자 눈을 감고 홀로 땅을 활고 있네
울지도 못하는 마음 더욱 슬퍼 보여라

경주의 대웅전을 찾은 필자는 몇천년의 력사의 자취가 력력히 남아 있는 돌사자앞에 서니 절로 눈물이 나온다고 하였다.

그리고 빼앗긴 내 조국땅에서 돌사자 홀로 이 력사유적을 지켜 가는 모습이 이 가슴을 더 아프게 한다고 노래하였다.

필자의 이러한 감정은 찬란한 문화와 력사로 빛나던 내 조국땅, 강성하던 내 나라가 일제의 구두발에 짓밟힌 다음부터 뼈를 깎는 아픔이 차례였다는것을 시사하고 있다.

시들은 울분과 통탄만이 아니라 애국명장들에 대한 찬양과 함께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라면 한 목숨 서슴없이 내대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희생정신, 외적과는 끝까지 싸워 이기고야마는 불굴의 투쟁정신을 대비적인 수법으로 우리 민족에 대한 끝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노래하였다.

필자들은 또한 김종서, 남이장군들의 혁혁한 공적을 긍지높이 노래하였으며 선조들의 숭고한 애국심을 본 받아 조국땅을 곳곳이 지켜 갈 굳은 결심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기행시의 둘째 부분에서는 민족수난의 검은 구름이 드리운 조국강토를 편답하고 그곳에서 느낀 감정을 시적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흐르는 이의 군소리》(최서해), 《락동강》(리

기영), 《압록강기행》(김우철), 《춘풍천리》(안재홍) 등은 고달픈 삶을 이어 가는 인민들의 생활을 찾아 려행한 기행문들이다.

해방전 진보적인 문필가, 사회활동가들은 의식적으로 인민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국강토의 여러 곳을 편답하며 거기에서 얻은 생활체험이나 소감들을 기행시가로 엮어 놓았다.

안재홍의 《춘풍천리》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고요한 가을 찬밤 귀뚜라미 울지 마라
어지러운 때의 물결 이적엔 어이되고
등알에 홀로 누운 몸이 한숨 겨워 하노라

기차를 타고 남원으로 가는 필자는 갈 길 몰라 헤매는 조선인민의 신음소리가 하도 높아 귀뚜라미 울음소리마저 슬픔으로 들리고 나라를 빼앗긴 인민의 모습은 차마 보기 어려워 한숨밖에 나오는데가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일제의 우리 인민에 대한 탄압이 얼마나 극심하였는가를 실증하고 있다.

시들에서는 또한 민족수난을 당하는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동정하는것과 함께 한결을 더 나아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행복한 봄동산을 꾸려나가야 한다는 시인들의 애국적사상감정을 반영하였다.

시의 셋째 부분은 조국의 명산 명승지를 려행하고 그곳을 소개하려는 작가들의 의도이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진보적작가들은 조국의 명산, 명승지를 찾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의도밑에 기행문과 함께 기행시가를 창작하였다.

명산, 명승지들을 소개하는 기행문들로서는 리기영의 《금강비경행》, 《합천해인사》, 한설야의 《두류산기행》, 김억의 《약산동대》, 로천명의 《선경묘향산》, 한룡운의 《명사십리》, 리은상의 《탐라기행》이다.

명승지기행에서 뚜렷한 자리를 차지하는 《탐라기행》은 《백두산행기》, 《백두산등척기》, 《백두산근참기》와 함께 해방전 조국의 명산을 찾은 대표적인 기행문의 하나이다.

《탐라기행》은 리은상이 주체26(1937)년 《조선일보사》에서 조직한 한나산순례자 50여명과 함께 서울을 떠나 목포를 거쳐 제주도까지 갔다 온 다음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필자는 서울에서 목포까지 이르는 로정을 다른 기행문에서와는 달리 시로 노래하였다.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강은 오늘도
푸른 물결이
노들의 흰 모래를
스쳐 흐르네

흐르는 물 따라
가는 세월에
사람도 력사도
다 가버리고

가버린 빈터우에
무엇 있으리
호몰로 우뚝한 곳
내 마음이어라
...

한강의 푸른 물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 없건만 흐르는 세월속에 이름 높던 영웅도 빛나던 력사도 자취를 감추고 빼앗긴 강토에 대한 울분만이 남았다는 필자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조약돌 하나, 풀 한포기, 매미 우는 소리마저 그냥 스치고 싶지 않으며 성벽마냥 거연히 솟은 조국의 산발과 근면한 인민이 사는 내 나라라는 어디가나 명산이라고 하였다.

59개련으로 된 이 시는 기행장시특성에 맞게 목적지에 당도하기까지의 보고 느낀 체험을 순차적으로 엮어 나가면서 매 계기마다 해당 지역의 특징이 직관적으로 안겨 울수 있게 전형적세부들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생동한 시적묘사를 주고 있다.

해방전 기행문들에 반영된 기행시가들은 시적 묘사와 해당 대상에서 느끼는 필자들의 사상감정을 잘 배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작품에서 노래하려는 사상주제적지향이 깊은 서정속에 진실하게 안겨 오게하고 있다.

그러나 기행문에 반영된 시가들에서는 필자들의 세계관적미숙성, 일제의 삼엄한 감시로 하여 당대 사회적문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족점이 있다.

이러한 제한성이 있으나 해방전 기행문에 반영된 시가들은 삼천리금수강산에 대한 긍지와 사랑의 감정을 여러가지 형식과 구성, 표현수법들을 다양하게 활용함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백두산을 알게 하고 유구한 력사를 가진 민족적금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데서 큰 기여를 하였다.